

2020 청소년상담연구 • 220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청소년 중심으로 -

책임 연구자 : 김 세 진

공동 연구자 : 조 규 필

노 자 은

이 상 철

전 예 나

김 아 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20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청소년 중심으로

인 쇄 : 2020년 12월

발 행 : 2020년 12월

발 행 인 : 이기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14 / F. (051)662-3007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832-7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청소년 자립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자립지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립은 경제적 독립 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독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더 많은 준비와 절차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정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나 조언, 정서적 지지 등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가정이 없거나 학대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밖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들은 자립에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약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에 대한 전문화된 개입 및 객관적 사정, 평가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실무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소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립준비 사정도구 및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이 포함된 매뉴얼 개발을 통해 타 시설과는 차별화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청소년 자립관련 척도 및 사정도구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기사정도구를 비교·분석하여 자립준비 관련 변인들에 대해 고찰하였고,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가진 학계·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기초문항을 토대로 현장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를 평가한 후,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립준비영역은 자립의지,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일상생활관리, 사회적기술 9가지 영역, 30개 자립준비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자립준비 사정도구의 최종문항을 완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동연구자이신 조규필교수님, 노자은박사님, 그리고 본원의 연구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적절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를 도와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이 기 순

초 목

최근 정부에서는 청소년기의 안정적 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인기로의 이행’ 과 ‘자립’ 에 관련된 여러 정책적 지원 및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자립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에게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인기’ 로 이행하는데 있어 ‘자립’ 은 중요한 과정이며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궁극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경쟁적 사회분위기,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환경변화로 인해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더 많은 진로준비와 교육·훈련 등이 요구되면서 청소년의 자립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 등의 사적(private) 영역에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자립 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지원을 통한 공적(public)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요구된다.

국내의 자립지원은 법적 근거, 정책대상, 전달체계에 따라 자립지원이 차별화되고 있고, 지원 또한 매우 임의적이고 제한적이라 실질적이고 표준화된 자립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립지원에 대한 전문화된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자립준비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정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사정(assessment) 및 평가(evaluation)가 자립초기단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실무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소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부록에 이 사정도구의 활용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수록하였다. 본 연구 과정과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청소년 자립관련 척도 및 사정도구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기 사정도구를 비교·분석하여 직업, 학업, 건강, 주거, 경제, 자립의지, 사회기술, 일상생활, 자기보호 등의 자립준비 관련 변인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실증자료 수집을 위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종사하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특성, 초기사정도구, 종합 판정시 필수 영역, 사정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 입소 판정 절차 및 입소판정 결과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기초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가진 학계·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초문항 개발 구성요인, 입소관정 결과지, 영역별 자립준비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문항들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자립준비영역으로 자립의지,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기술 9가지 영역에 30개의 자립준비 요소가 도출되었다. 보완된 기초문항에 대해서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개 문항 모두 CVI가 .60 이상으로 문항들의 구성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의 중요도 범위, 명료성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서는 평정과정과 결과측면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는데, 평정과정 측면에서는 인터뷰시 사정도구 문항별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질문을 적절히 변형하고, 문항에 따른 예시를 추가하였으며, 평정결과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점수가 평정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 논의 후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고 예시를 보완하였다.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청소년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조사에서는 평정자 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서로 다른 평정자가 1명의 청소년에 대해 자립준비수준을 평정하였다. 그 결과 자립준비 사정도구의 문항내적일치도는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총점으로 살펴본 평정자 간 신뢰도는 89%로 확인되었다. 현장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모든 문항들의 타당하였고(CVI>.60),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에서도 문항들의 평정자간 일치도가 대부분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수집된 약간의 어휘 및 문맥수정 외에 모든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최종 자립준비도 사정도구 30문항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각 문항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수준별(1점~4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된 사정도구를 활용할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희망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실천현장 실무자의 개인변인에 따른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와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맞춤형 개입을 통해 단기적인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절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취약청소년 스스로도 현재의 자립준비 상태를 객관적

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자립준비 요소들을 인식하고, 어떤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지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본 사정도구 활용을 통해 다양한 영역별 청소년의 자립준비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 수립시 자립지원 유형별 분석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적 측면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대상자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 데이터가 축적되면 입소대상 청소년의 유형분류를 통해 유형별 표준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4

II. 이론적 배경 | 5

- 1. 청소년의 자립 및 자립준비 5
 - 가. 청소년 자립의 개념 5
 - 나. 자립준비의 개념 및 요인 6
 - 다.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 2. 자립지원관 14
 - 가. 자립지원관 역할 및 기능 14
 - 나.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청소년 15
- 3. 자립준비평가도구 21
 - 가. 사정도구의 개념 21
 - 나. 기존 자립준비 관련 평가도구 22
 - 다.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의 필요성 27

III. 연구방법 | 29

- 1. 연구 추진 절차 29
- 2. 분석방법 30

IV. 사정도구 기초문항 개발 | 33

- 1. 기존 사정도구 분석 33
- 2. 현장전문가 FGI 35
- 3. 전문가 자문 50
- 4. 종합분석 52
- 5. 사정도구 기초문항 개발 57

V. 사정도구 최종문항 개발 | 59

- 1. 내용타당도 검증 59

2. 예비조사	63
3. 본조사	65
4. 최종문항개발	72

VII. 요약 및 논의 | 88

1. 연구결과 요약	88
2. 의의 및 제언	90

참고문헌 | 92

[부록1] 자립준비도 사정도구 매뉴얼 | 100

1. 사정도구 소개	101
2. 사정도구의 활용	104
3. 자립준비 사정도구(AILR) 질문지	108
4. 고위험영역 위기수준 평가지(자살, 도박, 약물)	125
5. 자립준비 사정을 위한 사전점검 리스트*	132
6. 사례판정 결과지	133
7. 자립준비 사정 가이드라인	134

[부록 2] 사정도구 개발 기초자료 | 135

1. 현장실무자대상 FGI질문지	136
2. 전문가 자문 질문지 (불임 생략)	140
3.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	141
4. 청소년 인터뷰 동의서	157

Abstract | 158

표 목차 |

표 1. 자립준비 관련 개념	7
표 2. 자립준비 요인	10
표 3. 국내 자립준비 관련 평가도구 비교	23
표 4. 국외 자립준비 관련 평가도구 비교	26
표 5. 청소년쉼터 사정도구 및 내용	33
표 6. 청소년자립지원관 사정도구 및 내용	34
표 7.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36
표 8. 현장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구성	37
표 9. 자립준비 사정도구 정적변인/ 동적변인	46
표 10. 자립준비 사정도구 구성안에 대한 분석요약	52
표 11. 자립준비 사정도구 구성요인 및 가중치	55
표 12. 입소판정 기준(안)	56
표 13.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	57
표 14. 자립사정도구 문항 및 각 문항의 내용 타당도 지수	60
표 15. 예비조사 참여자 현황	63
표 16. 예비조사 결과	64
표 17. 본조사 참여자 현황	65
표 18. 요인별 평정 결과	67
표 19. 개별문항별 평정자 간 일치도	69
표 20. 개별문항과 총점 간 상관정도(Spearman correlation)	70
표 21. 문항내적일치도 및 총점의 평정자 간 신뢰도	72
표 22. 자립준비 사정도구 최종문항 요약표	85

그림 목차 |

그림 1. 청소년 자립준비사정도구 개발	29
그림 2. 요인별 평정 결과	68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정부에서는 청소년기의 안정적 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인기로의 이행’ 과 ‘자립’ 에 관련된 여러 정책적 지원 및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자립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에게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인기’ 로 이행하는데 있어 ‘자립’ 은 중요한 과정이며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궁극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자립’ 이란 사전적으로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 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자립(independent living readiness)은 “부모(보호자)로부터 독립하여 신체적·심리적·정서적·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예속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김지연, 백혜정, 최수정, 2017)로 정의된다. 그동안 자립이 경제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독립적·자율적 사고 및 의사결정과 같은 심리적 자립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및 자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생활을 포함한 자립준비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신혜령, 2001; 조규필, 2014; Ben-Ami & Beker, 2012)

청소년들은 경쟁적 사회분위기,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환경변화로 인해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더 많은 진로준비와 교육·훈련 등이 요구되면서 청소년의 자립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 등의 사적(private) 영역에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김희진 외, 2018; 여성가족부, 2017). 특히 가정밖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가정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한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지원들을 가정으로부터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경험하고, 적절한 학업·진로계획을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김희진 외, 2018).

원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안정적 생활기반을 갖추기 못해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복지시설 내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은 성인기로의 삶을 준비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문제, 퇴소후 심리적 부담감, 자립준비 미비로 인한 불안감을 경험할 가능성 높고, 자립이 더욱 불리할 수 밖에 없다(김지연, 정소연, 2014; 장주현, 김정애, 2015; 정문진, 김수정, 2016).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자립 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지원을 통한 공적(public)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요구된다(배주미 외, 2010; 여성가족부, 2017).

국외에서는 미국의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of 2008)에 의한 전환생활프로젝트(Transitional Living Project), 위탁보호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에 의한 교육훈련바우처(Educational Training Voucher),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에 의한 잡콕스(Job Corps), 영국의 아동위탁보호법(Children Leaving Care Act)에 의한 Connexions, 독일의 청소년지원법(KJHG)에 근거한 하임(Heimerziehung)등 취약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위기청소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주거, 교육, 경제, 직업, 정서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체계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희진 외, 2018; 배주미 외, 2010).

국내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청소년 자립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에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학교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문화공간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 전담기관설치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 자립지원 매뉴얼에는 “원가정 외 보호체계 아동·청소년이 자립생활 능력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호 종료를 준비하여 성인기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치직후부터 보호 종결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을 지원” 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또한 현금지원인 아동발달계좌사업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지급, 주거지원, 실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립체험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자립지원은 법적 근거, 정책대상, 전달체계에 따라 자립지원이 차별화되고 있고, 지원 또한 매우 임의적이고 제한적이라 실질적이고 표준화된 자립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배주미 외, 2010). 또한 자립지원에 대한 전문화된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자립준비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정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조규필, 2013). 이를 위해 정확한 사정(assessment) 및 평가(evaluation)가 자립초기 단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송원영 외, 200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개발 연구들(김정연 외 2011; 김지선 외, 2018; 김희성, 2002; 박은선, 2004; 배주미 외, 2010; 손혜옥 외, 2008; 신혜령, 2000; 신혜령, 김보옥, 2011; Daniel Memorial Institute, 2004; Learning Clinic, 2006; Nolan, Wolf, Ansel, Burns, Bar, Copeland, & Paddock, 2002)이 진행되었지만 주로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보호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되어 전반적인 자립준비에 필요한 영역 가운데 일부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검사도구들이 사용되어 왔다(조규필, 2013). 이에 따라 조규필(2013)은 국내 가출청소년 등의 취약청소년 상황에 맞는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를 타당화한 바 있다. 이 척도는 7가지 자립준비 영역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효과를 평가하여 부족한 영역에 대해 맞춤형 자립지원을 하기에 유용하다. 하지만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후기 취약청소년 자립지원기관에 적합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청소년만의 자기보고식 척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후기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소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립준비 사정도구 및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이 포함된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천현장에서는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청소년과 기타 취약청소년을 선별하여 다른 보호시설과 차별화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립준비도 척도 사용을 병행할 경우 입소 청소년에 대한 개입효과를 자립준비 영역별로 파악함으로써 부족한 영역에 대한 맞춤형 개입을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과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립지원관 입소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자립사정도와 메뉴얼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립 및 자립준비

가. 청소년 자립의 개념

자립이란 보편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대인관계 등 주변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 상태(Maluccio, 1990)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자립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얽매임이 없이 스스로의 지위에서 독립성의 의미로 정의된다(조규필, 2014).

국내 연구에서 신혜령(2000)은 자립이란 자원을 습득하여 활용, 배분하는 자원관리기술(resource skill)과 대인관계기술, 의사결정, 책임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기관리기술(basic skill)에 대한 준비라고 하였고, 박은선(2005)은 혼자서 힘아닌, 대인관계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상태의 준비라 보았다.

국외에서는 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영역에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직업, 신체, 심리, 교육, 주거지 구입, 경제 관리, 자기보호 등 다양한 관리 능력을 포함하기도 하였으며(Cook, Ansell, 1986), 일본학자 아유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능력을 갖추어 살아 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자립이란 사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잘 관리하여 단단하게 사는 삶(야스토미 아유무, 2018)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자립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Dixon & Stein, 2005; Pinkerton & McCrea, 2018).

특히, 청소년의 자립은 각 개인의 성취도와 동일하다고 보며 또래와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성인기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하며, 자신의 신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Powell, 1963). 즉 청소년기는 자립을 성취하기 위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중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립기술을 습득하는 일반가정 청소년들과 다르게 가정 밖 청소년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공적인 자립에 이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김지선, 이정애, 김보옥, 정익중, 2018; 조규필,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단기청소년쉼터의 청소년들이 다른 취약·위기상황의 청소년들(학교 밖 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시설보호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시설보호 청소년이 진로성숙도의 능력영역(근무환경, 선호직업관련 지식, 임금)과 태도영역(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김미희, 2008). 또한 최순종 등(2009)은 취약 계층에 속한 범죄 청소년에게 있어 자립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요인이며 범죄청소년의 자립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업 뿐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한 행동수정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조규필, 2013). 그러므로 가정밖 보호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자원이 요구되며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내의 도움을 통한 다면적인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립준비의 개념 및 요인

1) 자립준비도의 개념

자립준비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자립의 개념에 따른 자립준비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자립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자립준비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조규필, 2014).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자립준비도의 개념은 Cook(1986)의 자기관리기술과 자원관리기술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학자들은 자립준비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Paszter(1986)는 자립준비 요소를 행동 및 지식의 기술과 감정의 기술로 제시하였다. 행동 및 지식의 기술은 집, 돈, 직업, 건강, 음식, 외모, 여가, 교통, 지역자원, 지역사회/친구, 가족 요인들을 포함하며 감정의 기술은 자기신뢰감, 자아존중감, 동기유발, 타인과의 협력, 과업수행의 만족감, 주도적 표현, 과제에 대한 가치평가 등을 포함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Maluccio, Krieger와 Pine(1990)는 유형의 구체적 관리기술과 무형의 응용관리기술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 관리기술에는 직업을 구하는 것, 청구서를 지출하는 것, 집을 구하는 것 등으로 보았고, 응용기술로는 문제해결, 자아존중감, 분노조절, 의사소통, 의사결정 등으로 보았다.

한편 자립준비 내용에 따라 하위영역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DHSS(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에서는 자립기술의 하위영역을 돈 관리 기술, 일상생활기술, 주택관리기술, 건강관리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관리기술, 진로기술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U.S.DHHS, 1999), 위탁 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수준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된 ACLSA(Ansell-Casey-Life-Skills-Assessment)에서는 자기관리, 사회적 발달, 돈 관리, 일상생활, 주거, 지역사회자원 활용, 구직 및 직장생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Ansell, Morse & Nollan, 2001).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희성(2002)은 빈곤가정 청소년에게 있어 자립준비란 청소년이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특히, 빈곤이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자기충족적인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하위요인으로 Nollan 등(2000)이 제시한 자립영역 중 자립의지, 사회적 발달, 직업적·교육적 발달, 생활관리 측면과 도덕적 발달을 포함한 총 5가지 측면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손혜옥, 최외선, 이미옥(2008)은 자립준비도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퇴소한 이후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기술훈련을 습득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조규필(2014)은 자립준비도란 청소년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자립적 과업의 성취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1. 자립준비 관련 개념

연구자	용어	자립준비 개념
조규필(2014)	자립준비도	청소년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자립적 과업의 성취 수준 ※ 자립적 과업 : 대인관계 형성, 유용한 신체적 활용, 정서적 독립, 지식과 기술 습득, 사회적 책임성 발휘 등을 말함
Cook(1986) 신혜령(2000)	자립준비	자원을 습득, 이용하고 할당하는 자원관리기술(resource skill)과 계획, 의사결정, 책임감, 대인관계기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기관리기술(basic skill)에 대한 준비

연구자	용어	자립준비 개념
김희성(2002)	자립준비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 특히 빈곤의 세대전승을 방지하고,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자기충족적인(self-sufficient)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하위요인 : 사회적 발달, 교육적·직업적 발달, 도덕적 발달, 돈·주거관리, 자립의지
박은선(2005)	자립생활준비	혼자의 힘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지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상태의 준비 ※하위요인 : 자립의지, 생활과업 수행기술,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취업여부, 학업기술, 직업기술
손혜옥 등(2008)	자립준비도	청소년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퇴소 후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훈련을 인식시켜 독자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하위요인 : 자립의지, 생활관리, 자존감
정경미(2009)	자립준비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기술’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에 대한 준비 ※사회기술 : 책임감, 협동, 주도성, 문제해결능력, 자립의지, 대인관계 / 생활기술 : 일상생활기술, 가사관리, 돈관리, 소비기술, 직업
DHSS	자립기술	자립준비에 필요한 자립기술 준비 ※자립기술영역 : 일상생활기술, 건강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직장문제)기술, 돈관리기술 등

출처 : 조규필(2014: 14-15) 외 선행연구를 추가하여 재구성함.

2) 자립준비 요인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는 자립준비 실태조사(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신혜령, 2000; 이경상, 2011; English, Giles & Plocke, 1994), 자립준비에 필요한 요인탐색 및 진단척도 개발연구(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조규필, 2011; 한복남, 김혜진, 이선영, 2005; Hahn, 1994; Iglehart, 1994; Maluccio, Krieger & Pine, 1990; Ward & Riddle, 2003), 자립지원정책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강영배, 2008; 노 혁, 2004; 배주미 외, 2011; 신혜령, 김보옥, 2011; 원지영, 2008; 이상은, 2004; 이용교, 2006; 이해은, 최재성, 2008; 정익중, 2007; Montgomery, Donkoh, Underhill, 2006; Westat Inc., 1986),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남욱, 2008; 김미연, 2010; 김인아, 조진영, 2008; 김희성, 2002; 박영란, 강철희, 1999; 박은선, 2005; 손혜옥 외, 2008;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정경

미, 2009; Iglehart, 1994) 등이 주로 이루어져왔다(조규필, 2013).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립준비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립준비 요인들을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해외 연구에서는 주로 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자립준비 요인들은 대부분 무형의 기술과 유형 기술, 지식/행동의 기술과 감정기술, 혹은 자립준비 내용별 2~6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주 대상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이지만 소수 연구에서 빈곤아동이나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주로 해외 연구의 분류틀을 차용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자립준비 영역을 2~6개로 분류하거나 일부 연구에서 영역구분 없이 자립준비 요소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자립준비 사정도구의 구성요인 기초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규필(2013)이 기존 국내외 연구자들의 자립준비 요인들을 토대로 유목화시켜 제시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자립준비 요인

연구자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국내	조규필 (2013)	- 자립의지	- 직업가치관 - 직업조사 - 직업선택 - 직장적응	- 소비관리 - 돈관리 - 신용관리
	김정연 등 (2011)	-	- 직업준비정도	- 금전관리기술
	배주미 등 (2010)	- 자립동기 - 목표의식	- 진로탐색/설계 - 직업준비	- 경제관념
	박은선 (2004)	- 자립의지	- 취업여부 - 직업기술준비	-
	김희성 (2002)	- 일에 대한 의지 - 어려움 극복자신감	- 직업준비 - 일에 대한 태도	- 돈 관리
	신혜령 (2000)	-	- 직업 - 계획성	- 금전관리 - 소비기술
해외	Nollan 등 (2002)	-	- 경력계획 - 고용 - 의사결정	- 돈에 대한 신념 - 저축 - 소득세 - 신용 - 소비기술 - 예산/지출계획
	Iglehart (1994)	-	- 목표설정/계획 - 직업기술 - 직업찾고 유지하기	- 개인물품 사기 - 돈관리
	Mech (1994)	-	- 유능감	-
	Maluccio (1990)	-	- 직업훈련	- 예산
	Cook (1986)	- 자존심	- 직업조사 - 계획성	- 소비기술
	Pasztor (1986)	-	- 직업	- 돈

출처 : 조규필(2013: 19)의 연구 외 선행연구를 추가하여 재구성함.

사회적기술	주거·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심리·정서적안정	학업관리
- 주거관리 - 음식준비 - 주방관리 - 안전관리	- 사회적기술	- 성보호 - 건강관리	- 학업관리
- 대인관계 - 자원활용능력	- 위생관리	- 정서자립	-
- 친부모관계 - 대인관계능력 - 예절 - 규범의식	- 주거공간 - 일상생활기술	- 심리정서안정	- 학업정보
- 생활관리기술 - 대인관계기술 - 문제해결기술	-	-	- 학업기술
- 사회성	-	-	-
- 여가선용 - 가족/친구관계 - 책임감	- 개인위생 - 교통 - 용모, 의복관리 - 주변정리 - 음식준비	- 건강유지	-
- 의사소통 - 대인관계 - 문화인식 - 개인적 발달	- 일상생활기술 - 주거 - 교통 - 지역사회 자원	- 개인위생 - 건강 - 술/약물/담배 - 성(sexuality)	- 학습기술
- 책임지기 - 친구선택 - 이웃 사귀기 - 도움 청하기	- 주거지 마련 - 집 돌보기	- 의료처치받기	-
- 친구/친족과의 상호작용 - 지역사회 참여 - 중요한 연계 만들기	- 자녀 양육능력 - 일상생활기술	- 성 책임 - 자아정체감	-
- 책임감 - 대인관계 - 자기결정	- 가사관리 - 주택구하기	- 자아상	-
- 지역자원 찾기 - 의사결정 - 사회적 기술	- 가사관리 - 주택 - 일상생활기술	- 건강관리	- 교육
- 외모 - 오락, 여가 - 지역자원 - 가족연계 - 친구	- 집 - 음식 - 교통	- 건강 - 성(sexuality) - 감정기술	- 교육

다.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요인

취약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자립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요인 중 자립 준비와 관련하여 연구된 변인으로는 먼저, 성별이 있다. 양육 시설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2003)의 연구에서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자립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혜령(2001)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일수록 자기관리기술이 높다고 보육사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미연(2009)의 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자립생활 기술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실업계청소년이 일반계 청소년보다 자립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나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자립생활기술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반면 성별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자립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최경아, 2007)도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자립준비의 관련성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또한 우울성향, 불안, 충동적 특성, 등의 정서적 문제도 취약청소년들의 주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언급되고 있으며(배문조, 전귀연, 2002; Burke & Burkhead, 1989) 특히 가출 경험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 들에 비해 자극추구경향이 높아, 위험한 활동 욕구, 내적경험추구 욕구, 사회적 일탈추구, 침착성 상실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김경희, 김지수, 김미진, 정승교, 2007).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 행동장애,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 분열증의 유병율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Sherman, 1992; Whitbeck, Hoyt & Bao, 2000), 신체화, 분노감, 대인관계민감성, 정신 증 경향 등도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김현수 등, 2005). 이종성과 곽영숙(2001)은 보호시설 청소년들이 청소년용 자기보고 검사에서 114명 중 95명(83%)이 비행, 공격성, 주의집중, 사고의 문제 위축, 불안, 우울 등의 증상 중 하나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Whitbeck, Johnson, Hoyt와 Cauce(2004)의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단적 면접을 한 결과 최소 82.9%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보고검사(YSR)를 사용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의 74%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응을 보였으며(Schweiter & Hier, 1993), 간이정신진단검사(BPRS)를 활용하여 가출청소년을 면담한 결과 19%가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다(Acorn, 1993).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성적경험에 대한 노출이 빠르고(이종

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정혜경, 권혜진, 2001), 정서적 스트레스 대처능력(현은민, 2000), 낮은 자존감(박영호, 김태익, 2002; 현은민, 2000)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취약청소년들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취업·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에 경험하게 된다(강현아·신혜령·박은미, 2009; 김명성, 2012; 조순실 201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 이들은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서 공격성이나 우울 성향을 보이며(양점도, 변미희, 2001;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강현아 외, 2009)으로 나타났다. 취약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힘든 경험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청소년과는 다른 심리적 문제에 노출되거나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 2012). 그러므로 이들의 심리행동문제는 시설 퇴소 전·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현아 외, 2009; 유안진 외, 2002; 정선옥, 2002).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가정밖 청소년들이 자립생활 능력을 높이는데 있어 주변사람들의 지지가 심리적 안정감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최은숙, 이태연, 2015; 황정하, 박수지, 2017).

2) 가족 및 가정환경 요인

가족 및 가정환경 요인이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으며 원가족과의 연계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Collins, Prais, & Ward, 2008).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원가족과의 연계가 자립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박은선, 2004)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시설청소년의 특성이 단순 고아에서 가족기능의 약화 혹은 가족 해체로 인한 기아, 방임, 학대 아동으로 변화함에 따라 원가족과의 연계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없을수록 자립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퇴소 후 생소했던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적응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립생활기술 중 돈 관리 수준은 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돈 관리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 하여 자립정착금과 관련하여 원가족과의 갈등이 예상되었다.

3)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

취약 청소년의 학교 적응 및 친구관계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적응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술정도가 높았으며, 학교 수업에 대한 태도, 학교 친구관계 등의 학교적응능력은 자립준비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였다(신혜령, 2001). 자립에 있어 학교 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 과반수 이상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처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또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대체로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어 자립을 하는데 있어 학교 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업밖청소년도 교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교사의 공정성을 낮게 지각하며, 교사에 대한 적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용, 유제민, 2003; 배영태, 2003). 또한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역기능적 교우관계, 교우관계 단절, 구타·괴롭힘 등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구본용, 유제민, 2003; 배영태, 2003; 구본용, 유제민, 2003).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우관계가 자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상되었다.

2. 자립지원관

가. 자립지원관 역할 및 기능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 등에 관한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배주미 외, 2010).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시설이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생활지원 및 보호, 가정과 사회로의 안정된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립준비단계라 할 수 있으며 유형으로는 일시, 단기, 중장기가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위탁 청소년의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 및 생활을 지원하며,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다르게 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주거대안 모색을 위한 생활관과 지원센터 기능이 복합된 플랫폼으로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및 독립생활을 위한 임대료 지원, 자립생활 체험, 취·창업지원 등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지연 외, 2017).

아동복지법 법령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소시켜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조치를 행하며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자립지원시설에 머물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52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협회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의 부재 및 유기 등의 이유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무의탁 청소년 및 요보호청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사회정착을 도와 재일탈 및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성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소년보호협회, www.kjpa.or.kr). 청소년자립지원생활관을 퇴원하는 보호소년 등이 원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 사후지원을 실시한다. 만 12세에서 22세 이하의 청소년 중 소년보호 관련 기관 추천(의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정된 사회정착을 돕고, 경제·심리·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심리치료, 학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조윤정 외 2018).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모두 자립지원시설로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 및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자립지원의 요소를 모든 시설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서은경 외, 2008).

나.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청소년

1)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부모나 대리 양육자 혹은 제도적인 보호

에서 제외된 가출 청소년이며, 청소년쉼터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자발적인 아닌 타인에 의해 쫓겨난 경우도 포함된다.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라 가출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수치를 보면, 남자청소년은 약 6만여명, 여자청소년은 약 5만여명으로 추정된다(김은영 외, 2018). 청소년이 가출을 하기 되는 주원인은 환경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환경적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이며 개인적인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이러한 이유로 가출을 하게 된 청소년은 가출한 기간이 길어지면 질어질수록 건강상의 문제, 학업중단, 학업기회 상실, 범죄연류, 약물사용, 자살시도 등 부정적인 문제들과 관련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장 기본적인 숙식을 해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행 및 범죄로 유입되어 생활비를 벌기도 한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9). 또한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업기회 상실로 인한 낮은 학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성인이 된 그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Fernandes-Alcantara, 2013).

가출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정의되어 있는 청소년쉼터가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한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고 상담·학업·주거·자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시설이다(김지연, 2014). 청소년쉼터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쉼터의 기능은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인데 이 중에 사회로 복귀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중에 하나인 자립과 관련이 있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은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고 구직활동 등 사회로 복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은 단순히 취업하는 것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심적·사회·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연 외, 2007).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1차적인 책임을 원가정에 두고 가정을 복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으로 먼저 돌려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 쉼터에서 퇴소 후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

가 마련되지 못했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9). 특히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했던 대다수의 청소년은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퇴소 하게 된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은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비자발적이고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다시금 거주불안과 경제·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정운영, 2015, 장주현 외, 2015; 홍예영, 2017). 법률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비자발적이고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다시금 거주불안과 경제·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장주현 외, 2015; 홍예영, 2017). 따라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이나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청소년

소년보호처분은 비행 위험수준과 재범을 고려하여 1호처분에서 10호처분까지 결정이 된다. 청소년보호처분(1호~10호) 중 1호처분의 경우 나이가 어린 소년 중 비행전력이 많지 않고 비행성이 심각하지 않아 가정 및 사회의 유대관계로 보호가 가능하며, 정서적으로 돌봄이 가능한 경우 많이 내려진다. 즉, 1호처분은 보호처분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안윤숙 외, 2016). 특히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안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가정의 돌봄이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시설에 감호 위탁을 하게 되는데, 감호 위탁을 하는 시설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다(이나현 외, 2019).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보호자를 대신해 청소년의 주거·학업·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주거와 학업 외에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상담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 방안을 함께 모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6호 보호처분과 달리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숙식하고 일반 학교에 등하교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보니 유혹을 당하기 쉽고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탈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엄한 감호와 훈육, 패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시설의 초기 운영 취지와 맞지 않고 오히려 보호소년들의 이탈이 많아져 다시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안윤숙 외, 2016).

6개월간 청소년들의 원가정 부모를 대신하여 24시간동안 부모역할을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지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는 전문적인 인력과 보호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게다가 보호소년들은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매일 학교 출석이 어렵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으로부터 멀어져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안운숙, 2015). 보호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한 환경의 변화, 사회적지지 등 적절한 사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제도, 프로그램의 부재 등의 이유로 삶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데 필요한 동기부여에 어려움이 따른다(김지민, 외 2017). 이에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위탁 종료 후에도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감시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사회로 안정된 지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아동복지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원가족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원가족을 대신하여 보호 및 양육, 자립지원하는 기관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과 혼란 등을 경험하며,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자립기술 습득 면에서 취약성을 보인다(정영선, 2015, Nollan, Wolf, Ansell, Burns, Barr, Copel and, &Paddock, 2000).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입소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양육이 어렵고, 이혼 또는 경계적인 사유가 대부분이다. 시설에 성장하는 동안 학교 교육 및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수의 교사가 다수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환경으로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과 비슷한 성장경험을 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정영선, 2015). 또한 아동들은 법적 퇴소연령인 18세가 지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퇴소하여 사회에서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즉, 아동의 자립능력과는 상관없이 시설을 나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대한 적응을 하며 성인으로서의 발달적 과업도 성취해야 한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 시설에 머무는 동안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지만, 시설에서 떠나 모든 공식적인 보호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많은 위기와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게 되며(신혜령, 1997), 시설퇴소 후 유예기간 없이 짧

은 기간 동안 성인기로의 전환과정을 겪게 되면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이처럼 일반가정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자립이 이뤄진다.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은 원가족의 보호 아래 성인으로서의 전환과정에 진입하기 전 실패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경우 안전한 울타리 없이 위험에 바로 노출되게 된다(정익중, 2007).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자립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때문에 이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과 다른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4) 그 밖의 취약청소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약계층 청소년 중 자립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은 46만명에 육박하고 그 중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6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출 및 학업중단, 빈곤, 비행 등의 문제로 저학력과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하며 사회·심리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진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승환, 2010).

선행연구에서 취약계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경제적인 요소,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의미한다(Aday, 1993).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취약청소년의 개념을 부연하면, 취약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구별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있는 일반청소년과는 달리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감, 열등감 등의 심리적 문제, 학교부적응이나 사회적 부족 등의 사회적인 문제, 혹은 저학력·직업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학업·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범주에서 학업중단청소년과 빈곤가정의 청소년을 포함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6~7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윤철경 외, 2017). 또한 재학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이다(남미애 외, 2012).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생태학적 환경의 열악성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빈곤한 가정, 가족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지지에 대한 약화, 가족 간 갈등 심화, 부모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등 가정 내의 문제와 학교에 대한 낮은 만족감,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 등의 문제가 악화되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의 재정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백혜정 외, 2015). 또한 학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패배자라는 낙인 등으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정상적인 발달 과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로 인한 우울, 자살위험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이지혜 외, 2020). 게다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집에서 계속 머물거나 또래들과 거리를 배회하는 등 무질서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김영희 외, 2013). 또한 자립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으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진학 및 진로 등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하기 보다 당장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원한다(박주호, 2014). 그러나 낮은 학력으로 인한 구직활동에 제약이 많고, 지지적인 관계 부족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용하는 경험에 익숙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 경험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성은모 외, 2016).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진로에 대한 부담감 등을 극복하고 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관의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청소년은 일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소년이 해당되지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가정의 청소년으로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지니고 있다(이혜연, 유성렬, 이상균, 정윤경, 황진구, 2010). 빈곤으로 인해 모든 발달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스스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고 있어 성공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많다(허남순, 오정수, 홍순혜, 김혜란, 박은미, 정익중, 2005; McLoyd, 1990; Routh, 1994; 김희성, 2002 재인용). 부모의 낮은 학문적 기대 및 경제력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적절한 교육지원이 어렵고,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부적응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가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좌현숙, 2010). 또한 빈곤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세대를 통해 빈곤이 전승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강명순, 1996; 김지은, 1997; Cohen & Tyree, 1986; Israel&Seeborg, 1998; 김희성, 2002 재인용). 그러나 모든 빈곤 가정의 청소년에게서 부적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이고 빈곤한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청소년이 조사되고 있

다(한경진, 2011, 최혜정, 2013).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조기개입 및 예방을 통해 적절한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성공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자립준비평가도구

가. 사정도구의 개념

1990년대부터 사례관리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등 많은 유럽 복지국가에서 사례관리가 하나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영역으로 발전되어 왔다(김영숙, 2009). 우리나라에서도 사례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확대되어 왔고, 노인 및 장애인분야뿐만 아니라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사례관리가 실천과정의 보편적인 기능으로 자리매김 했다.

사례를 계획하기 전 단계인 사정은 개개인의 잠재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사례관리 담당자는 개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개인의 실질적 욕구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 수준 고찰이 요구된다(김영숙, 2009). 사정과정에서는 개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요구되며, 사정을 통한 사례계획을 세울 때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과정이 사례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된다(Katoni, 2005). 즉 사정은 사례관리 과정 중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이며, 체계적인 사정이 이루어졌을 때 사례관리는 명확해지며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정도구는 이용자의 본질적인 욕구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사정도구는 이용자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내부적·외부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 욕구가 형성되며,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정애, 2017).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자의 전문성과 민감성이 요구되며, 심리·사회·환경적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례관리자는 경험적 민감성과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규필, 2013).

자립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의 자립지원 정책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노충래, 2000; 정익중, 2007). 그러나 대부분이 아동 양육 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로 한정되어, 자립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요인에 대한 탐색 및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취약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립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러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초기사정을 할 수 있는 사정도구가 거의 없어, 필요한 서비스 개입이 초기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정을 위해서는 가족 및 학교,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파악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자립을 돕기 위한 서비스도 조기에 계획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배주미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들에게 핵심적 과정인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을 통해 청소년이 심리·사회·경제적 독립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자립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사정하여 입소대상자를 선별하는 판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존 자립준비 관련 평가도구

국내의 자립준비도 관련 척도들은 주로 국외에서 사용되는 척도들을 변안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 신혜령(2000)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의 개인적 능력과 특성, 시설로 배치되는 상황, 사회적 지원이 자립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자립준비척도를 개발하였고, 자립준비를 자원관리기술과 자기관리기술로 구분하여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혜령(2000)의 연구를 시작으로 시설 청소년들이 퇴소 이전 자립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영역별 자립준비프로그램과 자립기술평가도 개발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 대상 범위가 아동양육시설에서 가정위탁,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 및 종결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자립준비수준 평가도구가 가정외보호 체계 청소년의 자립준비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가정의보호 청소년의 자립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가출·학교밖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자립준비 평가도구도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2011)의 시설 입대 청소년의 자립척도와 조규필(2013)의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이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자립준비 관련 평가도구의 내용은 아래의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김정연 외(2011)의 연구에서 자립이란 경제적·생활적·관계적·정서적 자립이 통합적으로 이룬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4가지 자립영역과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경제적 자립영역에서는 금전관리기술·직업준비정도, 생활자립에서는 위생관리·일상생활기술, 정서적 자립의 주도성·안정성, 관계 자립을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자립을 다차원의 측면에서 포괄적 자립개념을 구축하고 측정하는 것은 용이하였으나, 10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척도임에도 성에 민감한 문항이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김정연 외, 2011).

조규필(2013)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자립의지, 진로, 직업역량 등 7영역, 16요인으로 자립준비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는 시설청소년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청소년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포괄적인 자립준비도구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학업 중단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정외보호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연구를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자립지원업무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의 자립준비척도를 가정위탁과 그룹홈 청소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아동자립지원단, 2013). 하지만 아동자립지원단(2013)의 자립기술평가 척도 또한 청소년이 이해하거나 해석하기에 어려운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표 3. 국내 자립준비 관련 평가도구 비교

구분	대상	척도 구성	척도의 구성요소
신혜령 (2000)	시설보호 청소년	2영역, 13요인 (31문항)	자원관리기술, 자기관리기술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	5영역 (57문항)	사회성, 직업가치관(직업태도), 직업준비, 생활관리, 자립의지
박은선 (2005)	시설퇴소 청소년	7영역 (33문항)	자립의지, 생활과업수행기술,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취업여부, 학업적응여부(대학생인 경우), 직업기술 준비정도
손혜옥 외 (2008)	시설보호 청소년	3영역 (20문항)	자립의지, 생활관리능력, 자아존중감
신혜령, 김보옥 (2011)	시설보호 청소년	7영역 (72문항)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 기술,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직장생활 기술

구분	대상	척도 구성	척도의 구성요소
김정연 외 (2011)	10대 청소년(10대 여성) 지원 시설 및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7영역 (24문항)	금전관리기술, 직업준비정도, 위생관리, 일상생활관리, 관계자립, 정서적 자립:주 도성, 정서적 자립:안정성
조규필 (2013)	취약청소년 (가출, 학업중단, 보호시설, 빈곤)	7영역, 16요인 (54문항)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주 거·일상생활 관리, 사회적기술, 자기보호, 학업관리
아동자립 지원단 (2013)	가정외보호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	8영역 (56문항)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 원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진 로탐색기술, 원가족과의 관계, 정신건강
김지선 외 (2018)	가정의 보호청소년	6영역 (40문항)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 원 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진 로탐색

국외의 자립준비도 관련 평가도구들에 관해서는 조규필(2013)이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의 자립준비도 관련 척도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Ansell-Casey Life Skill Assessment(ACLSA)로서 미국의 국가재단인 Casey Family Program에서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94년부터 개발해 온 사정도구이다. 원래는 위탁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실제로는 가정을 떠나 성인기로의 자립생활 전환과정에 있는 모든 청소년에게 사용 가능하다. ACLSA(version 3.0)는 연령대별로 등급을 나눠 평가할 수 있다. ACLSA-I 은 8-10세용으로 37문항, ACLSA-II 는 11-14세용으로 62문항, ACLSA-III는 15-18세용으로 90문항, ACLSA-IV는 19세 이상용으로 118문항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1~18 세 청소년용으로 20문항의 단축형 척도가 개발되어 있다. 검사방법은 지필검사용과 온라인용의 2가지 방식이 있으며, ACLSA- I ~III는 청소년과 보호자(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ACLSA-IV는 청소년용만 있다. ACLSA의 사정도구는 6가지 영역이 포함되며, 청소년용은 허위응답을 줄이기 위해 기타 항목(Extra Items)에 별도의 객관식 문항(Performance Items)을 추가하여 인지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연구자들이 ACLSA를 번안·수정하여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척도에 대한 국내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인종문제 등 우리나라와 사회적 배경이 다른 부분의 경우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밖의 척도들을 살펴보면 주로 위탁보호 청소년용으로 개발된 척도들이 대부분이며, 원가정 외 시설보호 청소년용이나 취약청소년용이 일부 개발되어 있다. Life-Skills

Inventory는 위탁보호 청소년 대상으로 13가지 영역의 자립준비 수준을 4점척도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반분신뢰도(.881)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규필, 2013 재인용).

The Daniel Memorial Independent Living Assessment for Life Skills(DMILA) Scale는 The Daniel Memorial 연구소에서 14세 이상 위탁보호 청소년의 14가지 자립생활기술(IL Skill) 영역을 사정하기 위해 1980년대에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현재에도 미국 13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도구는 일반형(231문항, 2~3시간 소요)과 단축형(90문항, 45분 소요)이 있으며, 컴퓨터용과 지필검사용의 2가지 버전이 있다(Georgiades, 2005; Naccarato et al., 2008).

CHQFY(Chapin Halfs Questionnaires for Foster Youth)는 미국에서 주로 종단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척도이다. 이 척도는 미국의 위탁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가지 면접방식(기초, 추가, 선별)을 통해 6가지 자립생활준비 영역을 사정하는 도구로서,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Courtney et al., 2005; Courtney, Terao & Bost, 2004).

미국의 North Carolina에서 자립생활프로그램(ILP) 사용을 위해 개발된 평가도구인 Independent Living Program Survey Questionnaire는 고용, 주거, 재정, 교육의 4영역에 대해 60문항(2점척도 2문항, 5점척도 8문항, 복합척도 50문항)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Lindsey & Ahmed, 1999). 그러나 이 평가도구의 경우 신뢰도나 타당도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Naccarato et al., 2008).

미국의 The Learning Clinic Inc.에서 개발한 TILSA(Transition & Independent Living Skill Assessment)는 학부모, 전문가, 준전문가 대상 자립생활 및 전환기술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TILSA는 17개의 광범위한 영역을 사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수집된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치료목표를 세우는데 활용된다(The Learning Clinic, 2006). 이 척도 역시 신뢰도나 타당도에 관해 공식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일리노이즈에서 위탁보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관리자들(Caseworkers)을 대상으로 메일조사를 통해 사용된 사정도구로서 Older Ward Status Report가 있다. 5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내용을 통해 위탁보호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립준비 상태에 대해 사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도구는 기존의 검증된 3가지의 하위 척도인 Serious Behavior Problems(Cronbach's $\alpha=.87$), Educational Deficits(Cronbach's $\alpha=.74$), Job Skill Deficits(Cronbach's $\alpha=.85$)을 조합하여 구성한 사정도구이므로(Leathers & Testa, 2006) 대상자들의 자립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 제한적이다.

SAQ(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는 위탁보호 및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8가지 영역에 대해 31문항으로 사정하도록 되어 있다 (Lemon et al., 2005). 신뢰도나 타당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accarato, et al., 2008).

표 4. 국외 자립준비 관련 평가도구 비교

구분	대상	척도 구성	구성요소
ACLSA-III	위탁보호 청소년	8영역 (90문항)	일상생활과업, 자기보호, 사회적 발달, 직업 및 학업기술, 돈관리, 주거 및 지역사회 자원, 보충문항, 테스트문항
Life-Skills Inventory	위탁보호 청소년	13영역 (50문항)	임대계약, 계좌관리, 재정관리, 쇼핑, 식사 준비, 구직, 직업유지, 영양, 약물/약물사용, 피임, 건강, 소비권, 주거관리
DMILA Scale	위탁보호 청소년	14영역, (일반형 231문항, 단축형 90문항)	돈관리·소비인식, 음식관리, 개인용모, 건강, 가사, 교통, 교육계획, 구직기술, 직업유지, 응급처치/안전, 지역사회 자원정보, 대인관계, 법지식, 주거
CHOFY	위탁보호 청소년	6영역 (70문항)	교육적 지원, 고용/직업 지원, 예산 및 재정 관리 서비스, 주거서비스, 건강교육 서비스, 청소년발달 서비스
ILP Survey Questionnaire	위탁보호 청소년	4영역 (60문항)	주거, 교육, 고용, 재정
TILSA	취약청소년	17영역 (184문항)	주거, 영양, 돈관리, 교통, 레저, 법지식, 건강, 시간관리, 개인안전, 개인적 표현, 지역사회자원, 사회서비스 봉사 기회, 경력계획, 고용, 중등교육과정 이후 교육, 건강한 관계, 치료과정 참여
Older Ward Status Report	위탁보호 청소년	7영역 (50문항)	교육상태, 고용상태, 생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상태, 자립생활기술의 결핍, 정서적·행동적 문제, 개인적 이슈, 기타 욕구 (Case Worker 대상 메일조사 방식)
SAQ	원가정외 시설보호 청소년	8영역 (31문항)	교육경력, 고용경력, 건강상태, 알콜/약물 사용, 사회적 지원, 위탁보호 경력, 기술훈련, 자기조절

다.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인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소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연구들에서 중복되는 영역인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사회적 기술, 자립지원을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사정도구 개발을 통한 자립준비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립준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에 필요한 영역으로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일상생활기술, 문제해결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심리·정서적관리, 학업관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척도들의 구성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국내외 자립준비도 척도들은 성인기로의 자립이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립준비 요인 가운데 일부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으며(조규필, 2013)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사정이나 입소결정을 판단하는 공식적인 척도나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시설퇴소청소년들이 자립지원관에 입소 결정이 된 이후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소사례 판정 기준에 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준비를 사정하고 있다. 이는 시설에 따라 얻는 정보가 다르며, 현장전문가의 실무 경험 등에 따른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존의 자립준비 관련 척도들은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 초기 사정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객관적 기준과 표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기존의 자립준비 관련 척도들이 주로 시설 및 위탁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어 취약청소년 및 시설 퇴소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취약청소년의 범주에는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보호처분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가정에서의 적절한 보호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데 필요한 보호 또는 지원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고,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된 청소년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시설 및 위탁보호 청소년들이 보호체계를 벗어나 준비되어야 하는 자립생활기술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청소년 및 시설 퇴소청소년들이 당장의 주거 마련이나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자립준비 영역에 따라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유사한 성인기 이행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자립준비에 필요한 영역별 요소들을 도출하고 시설 퇴소청소년 및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립준비에 필수적인 영역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선행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평가도구를 통해 자립지원관 입소를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립지원관 입소청소년 대상으로 자립준비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원서비스 등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책입안자들은 자립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자립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추진 절차



그림 1. 청소년 자립준비사정도구 개발

2. 분석방법

가. 문헌 연구

기존의 청소년 자립 및 자립관련척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기사정도구를 수집·비교한 후 직업, 학업, 건강, 사회보장, 주거, 경제 등 정적변인과 자립의지, 사회기술, 일상생활, 자기보호 등 동적 변인 등 사정에 필요한 문항 구성에 반영하였다.

나. 현장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본 연구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소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기사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실무자를 10명을 대상으로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입소판정 절차 및 기준, 초기사정도구,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의 특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입소판정 결과 구성에 필요한 입소판정시 배점기준, 종합판정시 필수 영역, Cut-Off 기준, 척도 기준 등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종료 녹취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기록된 메모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주제가 비슷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도출된 개념을 범주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축어록을 바탕으로 각자 읽은 후 의미에 맞는 주제별로 연관성을 탐색하여 상위범주화 하위범주로 명명화작업을 실시하였고, 개별분석한 내용은 2차 연구진 모임에서 합의를 거쳐 재범주화하였다. 자료들은 청소년상담전공 박사 2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분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문항을 검토하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학계, 현장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과 검토를 받고자 한다. 아동자립지원 관련 실무자 및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통해 자립사정도구문항 및 입소판정 결과지의 적절성, 현장활용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삭제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최종 문항에 반영하고자 한다.

다. 예비 조사

1차 개발한 도구가 조사 대상자의 자립준비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지 검증하고 정교화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잠재적 입소대상자 및 실제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중 잠재적 입소대상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 유형별로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실시하였으며, 조사 후 사정 과정 측면과 결과 측면 각각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1차 개발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사정 과정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인터뷰 과정에서 도구 적용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항별 판단 기준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질문이나 설명 시 인터뷰 요원들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정 결과 측면에서는 사정 결과를 토대로 입소 판정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라.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본조사의 대상 역시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입소 대상자와 실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쉼터 18개소에서 63명, 자립지원관 7개소에서 51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개소에서 25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개소에서 9명씩 총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본 사정도구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여부 판정에 필요한 자립준비 상황을 판단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본 사정도구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아닌 인터뷰 방식으로 자립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평정자의 판단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를 충분히 보완한 사정도구의 개발을 위해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청소년 1인에 대하여 2인의 인터뷰 요원이 각각 평정하도록 하여 평정자 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한 청소년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에 2회 이상 반복하여 응하는 것은 피로도도를 증가시키고 응답 내용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과정을 녹화한 자료를 활용하여 반복적 인터뷰로 인한 측정의 오차를 최소화하였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평정을 위한 인터뷰는 인터뷰 요원과 청소년이 1:1로 진행하였다. 이때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과정을 녹화하였고, 이후 다른 평정자가 이 파일을 보고 동일한 도구로 평정하였다. 청소년 1인에 대한 2인의 평정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문항 별로 평정자 간 평정일치도를 분석하였다.

IV. 사정도구 기초문항 개발

1. 기존 사정도구 분석

가. 청소년 쉼터 초기사정도구

청소년쉼터 초기사정도구는 2019년 청소년쉼터 운영 매뉴얼 개정 시각 쉼터별 초기사정 도구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초기 사정 절차를 살펴보면, 청소년 쉼터 입소시 간단한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 입소동의서를 작성 후, 가족관계, 가출 경험 및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영역 등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통해 위기영역을 평가한다. 이러한 초기면접은 인테이크 후 24시간 이내 이루어지며 입소 후 청소년과의 면담, 행동관찰, 심리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사정한다. 사정도구 및 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청소년쉼터 사정도구 및 내용

사정절차	관련 서식	내 용
초기면접 (Intake)	입소동의서	• 청소년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학력, 입소사유 등
	입소등록기록지 (Intake)	• 기본정보 및 가족사항 등
	위기스크리닝 척도	• 1차 위험요인 영역: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영역 • 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 자살 영역을 평정 후 연계
사정	사례관리 사정기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욕구 : 주호소문제, 청소년의 욕구, 보호자의 욕구 • 청소년의 자원 : 내적자원(강점, 약점), 외적 자원(공식, 비공식) • 청소년의 환경 : 가족력, 학교/직장생활, 지역사회 관계 • 서비스 계획 : 청소년문제, 서비스 목표 등

나. 청소년자립지원관 사정도구

청소년자립지원관 공통 업무매뉴얼(2019)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대상자 선정은 자립준비청소년 사례접수-초기면접-사례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따라 진행 된다. 자립 준비 청소년 사례접수 시 입소신청서,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서, 자기소개서, 자립계획서, 사례관리 초기면접 기록지 등 양식은 자립지원관 운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청소년자립지원관 사정도구 및 내용

기관명	사정절차	관련 서식	내 용
공통운영 매뉴얼	사례접수	입소신청서	기본정보, 자립지원관 입소전 기관정보, 취업 및 진학현황, 주거 및 생활비용, 소득 및 경제상황
		자립지원 서비스신청서	기본정보, 자립생활기준(주거/근로), 학력, 자격증, 가족사항, 보장구분, 장애유무, 질병 등
		자립계획서	과거 자립관련 경험, 현재 상황 및 자립목표, 앞으로의 계획 등
	초기면접	초기면접기록지 (Intake)	생활환경(가계도, 가족력, 경제,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망), 욕구 및 문제점, 자원활용, 대상자태도, 개입방안, 상담자의견 등
	사례심의 위원회	사례심의 결과보고서	(생활관) 입소여부 심의, 서비스 제공여부 심의
A자립지원관	사례접수	입소신청서 (운영매뉴얼과 동일)	기본정보, 자립지원관 입소전 기관정보, 취업 및 진학현황, 주거 및 생활비용, 소득 및 경제상황
		자기소개서	자립계획(학업, 취업 등), 성격과 강점, 일상생활 (학교 및 직장)
	사례심의 위원회	사례심의 결과보고서	자립의지(40), 자립계획(40), 개인의 인성(30) 등 서류 및 면접심사
B자립지원관	사례접수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서 및 현장 확인서 (운영매뉴얼과 동일)	기본정보, 자립생활기준(주거/근로), 학력, 자격증, 가족사항, 보장구분, 장애유무, 질병 생활환경(가계도, 가족력, 경제,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망), 욕구 및 문제점, 자원활용, 대상자태도, 개입방안, 상담자의견 등
	사례심의 위원회	사례심의 결과보고서	서비스 제공여부 심의

기관명	사정절차	관련 서식	내 용
C자립지원관	사례접수	입소신청서	기본정보, 자립지원관 입소전 기관정보, 취업 및 진학현황, 주거 및 생활비용, 소득 및 경제상황 등
	사례심의 위원회	자립역량사정평가	대상자 본인 의지, 경제유지능력, 시간활용능력, 대상자보유능력 및 활용능력, 지원종료 후 자립실현능력, 독립생활유지능력 5점척도로 평가 (각 항목 합계 평균 점수 3 이상 지원 확정, 3점 미만 협의 후 선정, 1점 이하 지원 불가)
D자립지원관	사례접수	입소신청서	기본정보, 자립지원관 입소전 기관정보, 취업 및 진학현황, 주거 및 생활비용, 소득 및 경제상황 등
	사례심의 위원회	사례심의 결과보고서	자립의지(8), 진로·직업역량(5), 지원시급성(10), 지원필요성(7), 총평(10) 심의결과 40점 만점 중 평균 26점 이상 높은 점수 우선 선정

자립지원관들은 사례접수 시 입소 신청서 및 자립지원서비스신청서는 공통운영매뉴얼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B 자립지원관의 경우 자립지원서비스신청서 작성내용을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례심의위원회는 공통적으로 개최하여 대상자선정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평가척도와 기준은 자립지원관마다 개별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도구는 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 입장에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어 동일청소년에 대한 사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초기 사정시 실무자의 전문역량에 따라 대상자의 자립 수준 파악에 영향일 미칠 수 있으므로, 실무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초기사정을 위해 표준화된 사정도구 및 매뉴얼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현장전문가 FGI

가. 조사 목적

본 인터뷰의 목적은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입소대상청소년의 특징 및 입소판정절차, 입소기준, 입소대상 선별시 고려할 점, 사정도구 영역 및 입소판정결과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다.

나. 인터뷰 참여자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립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실무자 르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이 중 인터뷰에 동의한 1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5월에 실시하였고, 실무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구분	대상자	성별	연령	소속기관	관련경력
1	실무자A	여	50대 이상	여자단기청소년쉼터	5년 이상
2	실무자B	남	40대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5년 이상
3	실무자C	남	30대	청소년자립지원관	5년 이상
4	실무자D	여	40대	청소년자립지원관	5년 이상
5	실무자E	남	50대 이상	청소년자립지원관	5년 이상
6	실무자F	여	40대	남자단기청소년쉼터	5년 이상
7	실무자G	남	30대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5년 이상
8	실무자H	남	40대	청소년자립지원관	5년 이상
9	실무자I	여	30대	청소년자립지원관	5년 이상
10	실무자J	남	30대	청소년자립지원관	5년 이상

다. 면접 질문지 구성

면접 질문지는 청소년상담 및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교육학박사 1인, 사회복지학 박사 2인에 의해 ‘질문지 아이디어 수집 → 질문초안 작성 → 질문 초안 검토 → 질문지 작성’의 절차(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7)에 따라 구성·최종 수정되었다. 면접질문지 조사 영역은 먼저 자립지원관 입소대상 청소년의 특성 및 각 기관의 입소판정 절차, 입소자격 판단 기준, 입소대상 선별 과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립준비 사정도구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자립준비영역을 종합하여 구성하였고, 청소년자립지원 담당 실무자 및 연구진의 검토의견을 통해 문항을 추가·삭제 하였다. 최종 확정된 질문 문항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현장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구성

구 분	내 용
도입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커스그룹 참가자 기본사항
소개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대상 청소년 특성 • 각 기관의 입소 판정 절차 • 입소자격 판단 기준(입소판정 서식, 사정도구 등) • 입소대상 선별시 문제점 • 향후 입소 판정기준과 입소절차 등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 입소사례 판정 시 자립지원요원 자격기준
전환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 사정도구 질문시 기본 인적사항 • 추가로 확인할 사항
주요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 사정도구 정적변인/동적변인 중 추가할 영역 • 자립준비 사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영역 • 적절한 사정 소요 시간 • 입소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 • 입소판정 결과에서 각 영역의 적정 배점 기준 • 종합 판정 시 Cut-Off 기준 • 종합 판정 시 자립준비영역 중 필수 영역/ 고려해야할 영역 • 판정 결과시, 각 척도 기준 • 전체 입소판정 결과지에 대한 수정 의견
마무리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에 대한 제안점

라. 진행절차 및 분석방법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20년 5월 연구진 3명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을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질문지를 미리 발송하여 인터뷰 문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실무자들이 입소판정 및 사정도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출된 의견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질문 등을 상황에 맞게 질의하였다. 인터뷰에 대한 녹음 동의는 인터뷰 시작 전 모든 참여자에게 동의를 받았으며, 인터뷰 종료 후 녹취록을 작성하고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박성희 외, 2004; 김영천, 2012)에 따라 주제가 비슷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도출된 개념을 범주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축어록을 바탕으로 각자 읽은 후 의미에 맞는 주제별로 연관성을 탐색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명명화작업을 실시하였고, 개별 분석한 내용은 2차 연구진 모임에서 합의를

거쳐 재범주화하였다. 자료들은 교육학 박사 및 사회복지학 박사 2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분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마. 분석 결과

1) 자립지원관 입소대상 청소년 특징

가) 입소대상

자립지원관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쉼터(퇴소)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관련 연계기관, 지역사회 추천 또는 지자체 추천, 학교교사, 병원 등을 통해 의뢰되며, 이들중에는 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 3급 청소년, 나이가 들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청소년, 청소년쉼터 사례관리 대상자 중 3개월 이상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다.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준 지침에 의하면 쉼터 퇴소 청소년이라는 네임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조항도 있어요 그 외의 조항이 지역 사회 추천이나 아니면 지자체 추천을 통해서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실무자E)

“일단은 이제 기관에서 연계된 친구들을 일단은 조금 우선적으로 제가 대상을 하고 있고 쉼터라든지 또 이제 청소년 관련기관들 또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밖청소년센터라든지 그 쪽에서 연결돼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청소년 쪽에서 연결돼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종합병원에서 사회복지 원무과라든지 병원에서 관리하는 체계화가 있더라고요 병원 쪽에서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 부장선생님이 자기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도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실무자C)

나) 입소대상 청소년 특징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능이 낮은 청소년일 경우 업무이해도가 떨어져 자주 힘듦을 호소하고, 중도퇴사를 하고 싶어 한다. 학업지원이나 직업 연계시 중도탈락 경험이 있고, 자립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편이다.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성실하고 지구력이 있으며, 자기관리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목표 설정이 높은 청소년들도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하다. 타인과의 소통 부족으로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특성이 보이기도 한다. 반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립한 친구가 있거나 사례 담당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낮고, 무기력, 우울증, 낮은 성공경험, 분노 조절을 잘 못하며, 성추행, 성폭행 또는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거나, 외부활동에 전혀 준비가 안되어 집에서 단순한 일만 하려는 경우도 있다.

가정적 요인으로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기능이 상실되어 부모와 연락이 전혀 안되며, 부모가 사망했거나 전반적 사정 상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모의 우울증과 무기력, 아버지의 교도소 수감, 일용직 근무, 알콜문제, 무직 등 가족체계가 무너진 경우도 있다.

그 외, 자립지원금 소진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고등학교의 경우 일찍 자립을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직장에 가서도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 감정을 읽는 공감능력도 좀 떨어지는 편이구요 ... 아이들이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어릴 때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한다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참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를 계속 돌봐줄 가족체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어머님들도 계셔도 무기력하고 우울감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아버지들은 안계시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교도소에 계시는 경우도 몇 명이 있고 또 일용직 근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예 일을 안 하시고 알코올 술 드시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연계할 때 문제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제일 필요한 게 자립척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무자 B)

“우울증, 가정 기능이 상실했고 사회적 지지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언가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학업지원이라던지 직업을 연계하려고 할 때 중도탈락하거나 시작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친구한테서 성폭력이라던 지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자 친구들 경우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취업연계를 해준다고 했는데 집에서 박스 접고 싶다고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외부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나이가 쉽터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D)

2) 각 기관의 입소판정 절차

입소판정시 기관의 자체 추천서 및 의뢰서를 통해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청소년을 2-3회 면접을 본다. 이때 청소년의 자립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 실무자간 논의 및 적합성을 평가하기고 하고,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입소 판정을 결정한다.

기관 특성에 따라 입소를 판정하는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입소판정시 청소년 면접을 통해 자립동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고, 추천서만으로는 입소청소년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현장인테이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입소판정시 청소년의 가계도, 가족상황, 경제상황,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혼합형의 경우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합격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의 가입소 생활을 하게 한 후 7가지 영역의 입소평가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정식입소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기관 추천서를 일단 먼저 받고 기관 추천서를 받게 되면 추천서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 인테이크를 갑니다. 그래서 현장 인테이크에 가서 추천한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가 자립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현장 인테이크된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가 확인 문건하나 더 만들어서 아이에게 자립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그걸 첨부해서 사례심의위원회에 올려주고 사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걸 추천기관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나서 사례 지원이 스타트 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무자E)

“생활관으로 들어오는데 적응훈련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실제로 살아보는 체험을 해요. 입소할 때 필요할 때의 저희만의 기준을 뽑았어요. 7개 영역에서 입소를 평가하는 척도를 가지고 있고 이 영역들에 대해 사전-사후 검사를 해서 들어올 때 사전검사와 한 달 동안의 자립지원요원이 결과를 지켜보고 사전-사후 결과를 영역별로 평가해서 60점 이상, 각 영역별로 과락으로 40점 이상이 되어야 정식입소가 됩니다.” (실무자J)

3) 각 기관의 입소자격 판단 기준(입소서식, 사정도구 등)

가) 입소대상자 연령

입소대상자는 19세 이상으로 주거 계약을 위해서는 만 19세가 되어야 신청가능하지만, 월세지원은 19세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생활관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만 19세 이상으로 하여 세대주가 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는 곳도 있고,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의뢰되는 친구들 가운데도 계약을 하려면 만 19세가 되어야겠지만 고시원은 19세 전이라도 독립해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의뢰가 들어와요. 김정고시를 하는 아이들도 나이 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아예 막혀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원을 조건부라도 필요한 친구들은 김정고시로 17세 고졸을 했는데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면 곤란하겠죠. 주포커스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친구들도 분명 있어요. LH는 19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자J)

나) 서비스 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쉼터에서 퇴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전반적인 사정상 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 두절되는 등 가정복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가능하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하고 있어 자립의지가 있고, 고시원이나 원룸 등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거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독가구로 신청이 되어 있거나 LH등과 연결이 된 이후 자립지원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립지원관에 입소 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19세 이상이 되면 기준으로 잡고 두 번째는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고 세 번째는 전반적인 사정을 통해서 가정복귀가 불가하겠다 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네 번째는 부모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기능이 안 되는 가정들이나 부모의 연락이 안 되거나 돌아가신 아이들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다.” (실무자A)

다) 입소판정 서식 및 사정도구

가족관계, 주변환경, 건강상태, 경제 자립도, 비행, 범죄가능성, 공동체생활, 적응능력, 자립의지 등 자립준비척도 평가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체 기준을 만들어 자립영역별로 사전-사후 검사 후 입소가능을 판정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 현재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선별시 문제점

현재 자립지원관 입소대상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첫째, 선별과정에서 객관성 평가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부모의 경제상황이 좋으나 갈등관계로 인한 일시적 일탈에 의한

가출인지, 가정폭력이 심각한 청소년인지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소대상자의 제한사항이라든지 명확한 지침에 근거한 선별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입소대상자의 정시과적 문제, 개인 부채 등에 대한 정보파악의 어려움이 있었다. 입소대상자의 나이, 근로여부, 근로의지 등 기본적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초기사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개입부채가 입소후 발견되기도 하였다. 연계기관의 정보 전달의 미비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관 추천서에 자해, 자살 등 정신과적 병력이 반영되지 않아 고위험의 경우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지역사회로 연계하여 진행해야하는등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심리검사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사례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추천사유를 기재함으로써 입소판정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셋째, 기관추천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립지원관에서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등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을 연계하는 문제가 있었다.

넷째, 입소대상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인터뷰기술, 상담기술,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 자립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자립지원요원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20-24세 후기청소년 중 주거공간이나 숙식을 원하지만 경제적 자립은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입소대상 판정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지역에서 아는 오빠, 아는 누나, 아는 언니한테 개인 간의 거래의 부채들이 드러나고 그러고 나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드러나진 않거든요 초기사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고 뭐 추천서를 받고 통화도 다 했는데 아이가 의지는 굉장히 있다 선생님이 그런데 아이는 나타나지 않고 네, 그런데 추천서만으로는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는 아 네 올게요 하고 또 잠적하고 이렇게 하고 잠적하고 근데 이거를 의지를 보기가 어려워서 또 저희가 안 된다고 사회의 선정 인원에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판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기관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 D)

“어떤 데는 아이가 지금 자살사고가 몇 번씩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관으로 연계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실무자E)

“상담원 역량하고 이 아이를 감당 할 수 있겠는지 저는 그걸 추가로 보고 있거든요... 가계도, 생태도 그리고 뭐 가족상황 또는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걸 다 점검한 다음에 회의 할 때 내가 이 아이를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실무자B)

5) 향후 입소판정기준과 입소절차 등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첫째, 입소판정 시 기관 추천서, 현장 인테이크을 통한 면접, 자립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쉼터 퇴소 청소년 또는 쉼터에서 연계되는 청소년을 먼저 고려하여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에서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 부채, 범죄, 지능, 장애여부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입소 대상 사례판정에 개입하는 종사자의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사례심의위원회 구성시 입소대상청소년, 추천기관 담당자, 사례관리자를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다섯째, 입소대상자 선별시 내적인 부분으로는 대상자의 심리상태, 자기관리기술, 대인관계 등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외적인 부분에서는 직장, 주거환경, 월세 등 일정 수집 및 주거마련 준비가 되어있는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관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며, 입소에 대한 판단기준과 자립준비도를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소판정 기준 및 입소절차에 대한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판정기준이 높을 경우 자립의지 및 가능성이 있는 쉼터 청소년의 준비도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아 쉼터퇴소청소년이 오히려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판정기준이 낮을 경우 너무 많은 지원자가 발생하여 자립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보가 기관내에서 입소자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외적인 차원은 본인이 본인의 집을 가지고 본인의 직장을 가지고 월세를 본인이 스스로 낼 수 있으면서 어떠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게 이제 외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다 차야 저희가 종결이 되는 거고요 내적인 기준은 본인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고 본인의 심리상태라든지 본인 개인 자기의 자기관리 기술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좀 내적인 기준이거든요.”

(실무자C)

“진입장벽이 자꾸 높아지면 사실 이 평가자립척도도구가 잘 세팅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진입장벽이 자꾸 높아지면 저는 점점 아이들이 갈 곳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니깐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은 좀 낮추되 더 나아가서는...세팅할 때에 잘 어세스먼트하고 그 양심적으로 아이들을 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자A)

6) 입소사례 판정 시, 사례관리자 자격기준

사례관리자 요건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이상이면서 학부이상 자격을 갖추거나, 최소 3-5년 이상의 경력과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례관리자의 전문 역량이 중요하므로 자립준비사정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례관리자의 요건은 학부이상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으로 기준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세우기는 애매한데, 경력은 중요할 것 같아요 3년, 5년차 이상 이렇게 아이들을 몇 년 동안 봤던 선생님들의 경력과 숙련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실무자)

7) 자립준비 사정도구 질문 시 기본 인적사항

개인인적사항으로는 성명, 생년, 성별, 거주지(시·도), 연락처 정도로 간단히 작성하고 입소신청서와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중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이전 시설명, 입소기간, 지원받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보가 필요하고, 지출규모, 소득상태, 부채현황 등을 한 항목으로 묶어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자립지원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존 서비스 중 만족했던 것,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가족사항이나 대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아이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입소 전에 하는 거고 입소 이후에 신청서하고 자립 지원서비스 신청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글자를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뺄 수 있다면 주민등록 여부를 빼고요 거주지는 시도정도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친, 인천, 서울 간단하게 적고 연락처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다면 카톡 아이디를 적는다면지 융통성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무자B)

8) 자립준비 사정도구 정적변인/ 동적변인 중 추가/삭제할 영역

자립준비 사정을 위해 정적변인과 동적 변인 중 추가 삭제해야할 영역은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적절한 사정 소요시간은 30-50분/ 60분 이내/ 2시간 이상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9) 입소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

최근 6개월 이내 자해 및 자살시도 등 고위험인 경우 병원이나 상담센터로 연계하고, 중독(게임, 알콜, 도박 등)의 경우에도 타 기관 연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자살, 중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범죄경력 중 살인, 강도, 폭력, 절도, 사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으나, 청소년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 있었다. 또한 현재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경우 입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지적장애 3급 청소년의 경우 사회성 영역이 높아 대인관계를 잘하는 경우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위험에 있는 친구들은 자살이나 중독이 고위험인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자들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고위험정도에도 아이가 동의하에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인지 연구진이 기준선을 잡아주시면 그 기준선에 맞추어 개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H)

표 9. 자립준비 사정도구 정적변인/ 동적변인

정적변인	
영역	조사항목
직업	자격증보유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자격증 종류 등)
	직업훈련 참여 여부(종류 등)
	인턴십 참여 여부(종류)
	취업 경험(직종, 취업기간 등) - 주당 20시간 이상 또는 주 5일 이상의 일자리를 기재 - 직종은 상관없으나 취업기간은 적어도 1개월 이상 - 자립가능성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단시간 아르바이트 경험(횟수) - 주당 20시간 미만 또는 주 5일 미만의 일자리를 기재 ※ 장시간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조사 항목임.
학업	학력
건강	건강상태(병력, 치료여부 등) - 특히 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중요 -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필요
	장애 여부(종류, 등급) 정신장애 - 반사회성 성격장애, 정신분열 배제 - 우울, 불안 높을 경우 치료후 입소
사회보장	사회보장수급 여부(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 청소년 등) 이중지원되는 항목 체크
주거	현재 주거상태(시설, 전월세 등)
경제	저축 여부(저축액, 만기기간)
	월 소득액
	부채 유부(부채금액, 만기기간) - 개인부채, 기관부채, 소액결제 등
	핸드폰 명의확인(대포폰 유무)
자원	비공식적 자원(가족, 친구, 친척, 직장동료, 종교단체 등 물질적·비물질적 자원)
	공식적 자원(정부, 공공기관, 복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사법	법적 처분 여부(수배중, 집행여부, 보호관찰 등) 확인
	비행친구 유무(법적처분 종류 등)

동적변인	
영역	조사항목
자립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렷한 동기, 실천 의지, 꿈 등 • 자립 노력정도 • 성공 또는 실패의 이유 기재 • 중장기 인생계획 여부(결혼, 구체적 성취목표 등)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가치관(직업이 나에게 갖는 의미) • 직업조사 여부 • 직업선택 여부 • 구직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 직장적응기술(대인관계, 출퇴근시간 준수 등) • 자격증 취득 시험준비(필기, 실기 등)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적금, 수시 입출금식 등) • 소비(통신비, 음식 구입비 등) • 세금관리(주민세, 자동차세, 보험료, 공과금 등) • 신용관리(신용카드, 신용등급, 체크카드, 금전 대여) • 소득관리(급여명세서, 연말정산, 보험, 청약 등)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취득 의지 • 구체적인 학업 계획 • 현재 학습 유지 여부(1일 평균 학습시간, 어떤 유형의 학습 등) • 학습기술(암기법, 필기법, 독서법 등)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정보(LH임대주택 등) • 주거마련 계획 • 집구하기(전세계약, 월세계약, 확정일자받기, 신고) • 집관리(집수리, 집 꾸미기, 정리정도, 청소 등)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준비(요리, 식단체획, 시장보기, 레시피활용, 식품보관, 유통기한 확인 등) • 주방관리(설거지, 음식물처리, 청결위생) • 안전관리(전기, 가스, 화재) • 세탁 관리(세탁 주기, 햇빛 건조 등) • 청소 관리(정리정돈) • 법 준수(교통신호, 음주운전 등)
사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기술(감정표현, 감정조절 등) • 기본예절(인사, 표정, 눈마주침 등) • 이미지 관리(드레스 코드, 헤어, 문신제거 등) • 갈등대처 기술 • 대인관계 형성 • 신뢰형성(시간관리, 약속 준수, 성실한 업무 수행)
자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보호(피임, 임신, 성병) • 신체건강(건강검진, 운동, 음주·흡연, 예방접종, 응급처치, 전염병 예방) •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게임중독, 상담 및 치료, 분노조절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방법 • 공공시설 이용 정보(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 온라인 민원서류 처리절차 • 법률정보 이용

10) 입소판정 결과에서 각 영역의 적정 배점기준

입소판정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자립의지가 중요한 영역이므로 전체 점수 중 배점 비율을 높게 하는 것이 좋거나, 자립준비영역을 상중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입소판정에서 자립준비 영역 중 자립의지를 가장 많이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경제, 직업관련활동, 주거에 대한 비중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높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들은 혼자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자립해서 가야하는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걸 전제로 해서 본다면 주관적인 것은 그래도 자립의지 하나 만큼은 높아야 해요 의지가 미흡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이상은 돼야 하고 시작단계에서는 탁월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무자E)

“상담하는 상담자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고려해라고 하는 부분은 자립의지예요 저도 자립의지가 3분의 2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자B)

“자립의지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나 직업관련 활동, 주거에 대한 비중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점수대를 올려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무자H)

11) 종합 판정 시, Cut-off 기준

종합 판정 시 Cut-Off 기준은 일반 영역의 자립의지 30점, 나머지 영역 5점, 전문영역은 30점, 전체 100점으로 하고 종합점수의 하한 기준은 50-60점 정도로 제안하였다.

“가점은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100점 만점에 컷오프 기준으로 60점 만점으로 한다면 전문가 영역에서 해석을 해서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요.” (실무자 J)

12) 종합 판정 시, 자립준비영역 중 필수영역 또는 고려해야할 영역

고위험 영역은 필수영역으로 지정하여, 이 영역에서 체크가 될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 타 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계선 지능 대상자나 3급 장애등급을 받은 청소년의 경

우에는 자립지원관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장애인 등급여부를 확인한 후 사례 별로 사례관정회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또한 폭력,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위험관련 질문 먼저 질문 드리면 자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문항이라 병원을 설득해서 입원하는 게 중요하고 중독 쪽에서 생각해보면 단기쉼터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계를 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자해도 있었어요 자해는 뭐 자살로 봐야할 수도 있고 습관적인 것일 수도 있죠” (실무자B)

“장애등급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경계선은 가능하지만 등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대상은 아니고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의 책무성이지만 판정이 된 내담자라면 저희의 대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E)

“3급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에서는 수당을 받아야하니까 떼우고 보내요 약간 경계선이어도 받지 못할 수는 없거든요. 받아서 치료시켜서 정상인 등급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일자리를 훨씬 쉽게 연계 받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실무자B)

“자립의지 배점을 높이고 전문가 의견에 사례관정자 소견에 장애등급은 있지만 쉼터에서 퇴소했고 보호 종료 대상자도 아니고 자립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적으면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실무자D)

13) 판정 결과 시, 각 척도 기준

각 자립 준비 영역에 대한 척도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판정을 돕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자립의지 영역의 경우 0점: 자립의지가 없으며, 실행하지 않음/ 1점: 자립의지가 있으나, 실행하지 않음/ 2점: 자립의지를 가지고 실행했으나, 결과가 없음/ 3점: 자립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여 결과를 가지고 있음 등으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4) 전체 입소판정 결과지에 대한 수정의견

입소판정 결과지는 현재 자립지원관이나 중장기쉼터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추천서를 쓸 때 담당사례관리자의 의견이 상세히 기술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천서 쓰실 때 담당사례관리자의 의견을 서류에 담아서 주시면 검토하고 소통하면서 충실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G)

3. 전문가 자문

기존 사정도구 분석 및 현장전문가 FGI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에 대해 9월 4일 - 9일까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구성은 사회복지전공 교수 2명, 청소년정책연구원 1명,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중간관리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은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 개발을 위한 구성요인, 입소판정결과지, 영역별 자립준비 내용의 적절성, 추가 또는 제외가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자립준비 사정도구 구성요인

자립사정도구 구성요인 중 위기/취약청소년이 자립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은 취업, 경제관리, 주거관리 영역이므로 이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입소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주거관리 항목의 중요성보다는 직업역량, 경제관리 역량이 자립지원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주거관리 중요성을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고, 직업역량 및 경제관리 영역을 중에서 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적변인 중 주거상태를 알아보는 영역에서 주거취약계층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소년의 현재 주거상태를 조사할 때 전세, 월세, 고시원, 보호시설을 제외한 기타영역에서 친구집 등 임시거처 및 기간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 정적변인과 동적변인 조사시 좀 더 면밀하게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법 영역에서 본인의 보호처분 경험과 비행친구여부를 묻는 정적변인과 일상생활관리 영역에서 준법여부를 묻는 동적변인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동적변인의 준법여부를 이 자기보호 또는 일상생활기술, 또는 사회적 기술 영역 중 하나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자립준비 사정도구 입소판정결과지

입소판정 결과지는 동적변인을 중요도에 따라 판정하고 고위험 영역과 전문가 소견을 취합하여 입소판정하는 결과지로서 중요도의 비중, 고위험 영역, 전문가 소견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중요도의 비중에서 주거관리 중요도를 5점에서 2점으로 하향하고, 직업역량 및 경제관리 영역을 2점에서 3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공통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위험 영역에서는 자살문제, 중독 문제와 함께, 성매매, 폭력성 등 컴퓨터의 기록을 참고하면 더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소견 부분에서는 컴퓨터퇴소 등의 자립지원 필요성, 약속이행 여부 등 자립지원관의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고, ‘자립준비를 위한 관심과 의지정도를 판단하여 기술’하는 것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판정기준은 전문가 소견을 고려하여 상(14점) 이상인 경우 60점 미만인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60점 이상인 경우 입소 적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 영역별 자립준비내용

각 자립준비 영역별 자립준비 내용 및 평가기준이 잘 부합되는지, 추가/수정되어야 할 의견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립의지 영역 중 자립동기는 ①자립 무동기 ②외적 자립동기 ③내사된 자립동기 ④ 확인된 자립동기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쉽고 이해 가능한 용어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직업 역량 중 구직준비상태는 직장을 얻기 위해 구직 준비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등 구체적인 구직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장적응기술에서는 시간 관리나 부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여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보호 영역 중 신체건강 관리 의지나 실천여부를 평가할 때 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성문제와 관련된 성지식과 성인식 수준을 평가할 때 기초적인 성

지식을 포함하여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자원활용 영역에서는 긍정적·부정적 지지체계를 발견하고 관계형성 및 단절을 통한 자기보호, 지역사회 인식 등에 대한 자립준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자원활용 영역 중 공식자원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활용가능한 자원(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대해 추가의견이 있었고, 비공식자원에서는 심리정서적 지지기반 중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일상생활관리 영역 중 식품의 유통기한, 냉장/냉동보관 등 음식관리를 적절히 잘 할 수 있는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준법여부는 사회적 기술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적 기술 영역 중 이미지관리 노력이 자립준비 항목으로 보기에 피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구체적인 용어로 수정되어야함을 제안하였다.

4. 종합분석

가. 자립준비 사정도구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

자립준비 사정도구의 구성틀과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문헌조사, 기존의 사정도구 분석, 현장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FGI),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표 10>과 같이 자립준비요인 도출과 자립준비영역별 가중치의 배점 조정, 입소판정 범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자립준비 사정도구 구성안에 대한 분석요약

분석 단위	분석 요약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 영역(7가지)을 도출함 ※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관리, 사회적기술, 주거·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및 심리·정서적 안정, 학업관리
기존 사정도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 수준 평가시 여러 개의 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조사자료 : 자립준비도척도(자기보고식), 입소신청서,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서, 자립계획서, 초기면접기록지 ※ 자립준비 관련 확인사항 : 자립목표, 주거, 취업, 학력, 자격증, 경제상황, 사회적관계망, 건강, 자원활용, 시간관리, 사회보장, 장애, 질병, 대상자 태도 등 • 개인별 자립준비 수준을 파악하는 목적은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입소 대상 판정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거나 사례관리시 개별 자립지원에 활용하기 위함

분석 단위	분석 요약																														
<p>현장전문가 F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대상 연령 : 주거 계약을 위해 19세 이상이 적절함. (단, 월세지원인 경우나 지자체와 협의시 19세 이전 연령도 가능) • 입소판정 서식에 포함된 사항 : 가족관계, 주변환경, 건강상태, 경제자립도, 비행가능성, 공동체생활, 적응능력, 자립의지 등 • 개관적인 조사자료 활용 : 자립준비 사정시 기존 서식(입소신청서,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정도구에서 제외시켜야 함 • 자립준비사정 소요시간 : 1~2시간 • 고위험 영역 : 자살 혹은 중독 등의 치료가 필요한 영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매매나 폭력성 관련 범죄 경력도 확인되어야 함 • 배점기준 : 자립의지가 중요하므로 배점 비율을 가장 높아야 하며, 경제, 직업, 주거영역의 비중도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아야 함. 면접자의 전문적 소견도 입소 여부에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 배점이 필요함 <p>※ 영역별 가중치 의견 정리</p> <table border="1" data-bbox="386 731 1225 1172"> <thead> <tr> <th>자립준비영역</th> <th>가중치 조정 의견</th> <th>가중치 부여 (1~5배)</th> </tr> </thead> <tbody> <tr> <td>자립의지</td> <td>자립에 가장 중요한 영역임</td> <td>5배</td> </tr> <tr> <td>주거관리</td> <td>중요한 영역이지만, 대부분 주거상태가 불안정하고, 입소 후 향상 가능함</td> <td>2~3배</td> </tr> <tr> <td>직업역량</td> <td>자립을 위해 필수적임</td> <td>3~4배</td> </tr> <tr> <td>경제관리</td> <td>저축, 부채 등의 경제관리가 중요함</td> <td>3~4배</td> </tr> <tr> <td>자기보호</td> <td>신체건강이 자립생활에 중요하며, 특히 정신건강이 취약함</td> <td>1~2배</td> </tr> <tr> <td>학업관리</td> <td>검정고시, 자격증 공부 등이 자립의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td> <td>1배</td> </tr> <tr> <td>자원활용</td> <td>기본 배점 부여</td> <td>1배</td> </tr> <tr> <td>일상생활관리</td> <td>안전이 중요하며, 사례관리시 많은 훈련이 요구됨</td> <td>2~3배</td> </tr> <tr> <td>사회적기술</td> <td>자립생활 유지에 중요함</td> <td>1~2배</td> </tr> </tbody> </table>	자립준비영역	가중치 조정 의견	가중치 부여 (1~5배)	자립의지	자립에 가장 중요한 영역임	5배	주거관리	중요한 영역이지만, 대부분 주거상태가 불안정하고, 입소 후 향상 가능함	2~3배	직업역량	자립을 위해 필수적임	3~4배	경제관리	저축, 부채 등의 경제관리가 중요함	3~4배	자기보호	신체건강이 자립생활에 중요하며, 특히 정신건강이 취약함	1~2배	학업관리	검정고시, 자격증 공부 등이 자립의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배	자원활용	기본 배점 부여	1배	일상생활관리	안전이 중요하며, 사례관리시 많은 훈련이 요구됨	2~3배	사회적기술	자립생활 유지에 중요함	1~2배
자립준비영역	가중치 조정 의견	가중치 부여 (1~5배)																													
자립의지	자립에 가장 중요한 영역임	5배																													
주거관리	중요한 영역이지만, 대부분 주거상태가 불안정하고, 입소 후 향상 가능함	2~3배																													
직업역량	자립을 위해 필수적임	3~4배																													
경제관리	저축, 부채 등의 경제관리가 중요함	3~4배																													
자기보호	신체건강이 자립생활에 중요하며, 특히 정신건강이 취약함	1~2배																													
학업관리	검정고시, 자격증 공부 등이 자립의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배																													
자원활용	기본 배점 부여	1배																													
일상생활관리	안전이 중요하며, 사례관리시 많은 훈련이 요구됨	2~3배																													
사회적기술	자립생활 유지에 중요함	1~2배																													
<p>외부전문가 자문</p>	<p><자립준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관리 영역 내의 ‘준법여부’는 사회적기술 영역으로 이동 • 사회적기술 영역 내의 ‘이미지관리’는 다소 피상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듯함 • 자원활용 영역 내의 비공식자원 내용에 가족 및 친지, 자립멘토와의 관계형성 포함 <p><배점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역량, 경제관리 역량이 자립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하므로 가중치를 중상 수준으로 높게 부여 • 주거관리는 중상 수준 가중치 부여 • 학업관리는 중하 수준 가중치 부여 • 사례판정 종합점수 : 60점 이상시 “입소 적합”이 적절함 <p><기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소견 : 자립지원의 필요성, 약속이행 여부, 자립의지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제시 • 고위험 영역 : 자살, 중독, 성매매, 폭력성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종합분석결과 및 연구진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안 개정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립준비영역은 자립의지,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기술(9가지)로 구분한다.

둘째, 사정도구 기초안의 자립준비 요소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상생활관리 영역 내에 있던 ‘준법여부’는 사회적기술 영역에 포함시키며, 직업역량 영역 내의 ‘구직준비상태’는 다른 요소들의 상위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구직기술’로 수정하고, 사회적기술 영역 내의 ‘이미지관리’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범위가 넓을 수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용모관리’로 수정한다.

셋째, 고위험영역에 자살문제와 중독문제를 포함하여 하나라도 심각할 경우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위험영역 평가시에는 별도의 검증된 검사도구를 활용한다.

넷째, 영역별 가중치 부여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립의지 > 직업역량·경제관리 > 일상생활관리·주거관리 > 사회적기술·자기보호 > 학업관리·자원활용의 순으로 한다.

다섯째, 입소대상의 사례판정시 본 사정도구 외에도 사전에 수집된 객관적인 조사자료(입소신청서, 서비스신청서, 초기면접기록지 등)를 사례심의위원회의 판정자료로 함께 활용한다.

나. 자립준비 사정도구 구성안

1) 자립준비요소 도출

종합분석결과를 토대로 9개의 자립준비영역에 30개의 자립준비요소를 다음의 <표 11>와 같이 도출하였다. 자립의지영역에는 중장기목표, 자립동기, 자립실천노력에 관한 3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주거관리영역에는 주거지원정보, 주거마련계획, 집구하기, 집관리에 관한 4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직업역량영역에는 직업가치관, 직업조사, 직업선택, 구직기술, 직장적응기술에 관한 5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경제관리영역에는 소비, 저축, 신용관리에 관한 3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자기보호영역에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성보호에 관한 3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학업관리영역에는 학업의지, 학습기술에 관한 2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자원활용영역에는 공식, 비공식 자원에 관한 2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일상생활관리영역에는 음식, 청소/세탁, 안전관리에 관한 3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사회적기술영역에는 용모, 관계형성, 에티켓, 시간관리, 준법여부에 관한 5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표 11. 자립준비 사정도구 구성요인 및 가중치

영역	자립준비 요소		가중치	
	초기안	수정안	초기안	수정안
자립의지	• 중장기 인생계획 여부 : 결혼, 구체적 성취목표	인생목표	5배	5배
	• 자립동기 : 뚜렷한 자립동기, 실천의지, 꿈	자립동기		
	• 자립노력정도 : 성공/실패 이유	자립실천노력		
주거관리	• 주거지원정보 : LH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정보	5배	2배
	• 주거마련계획	주거마련계획		
	• 집구하기 : 전·월세계약, 계약 후 신고사항	집구하기		
	• 집관리 : 집수리, 집꾸미기, 정리정돈, 청소	집관리		
직업역량	•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	2배	3배
	• 직업조사 여부	직업조사		
	• 직업선택 여부	직업선택		
	• 구직준비상태, 자격증 취득시험준비	구직기술		
	• 직장적응기술 : 대인관계, 출퇴근시간 준수	직장적응기술		
경제관리	• 소비 : 통신비, 음식구입비	소비관리	2배	3배
	• 저축 : 적금, 수시 입출금식 등	저축관리		
	• 신용 : 신용카드, 신용등급, 체크카드, 금전 대출	신용관리		
자기보호	• 신체건강 : 건강검진, 운동, 음주·흡연, 예방접종, 응급처치	신체건강	2배	1배
	• 정신건강 : 스트레스 관리, 게임중독, 상담 및 치료, 분노조절	정신건강		
	• 성보호 : 피임, 임신, 성병	성보호		
학업관리	• 학력취득 의지, 구체적인 학업기술, 현재 학습유지 여부	학업의지	1배	1배
	• 학업기술 : 암기법, 필기법, 독서법	학업기술		
자원활용	• 공식자원 : 교통, 민원, 법률정보	공식자원	1배	1배
	• 비공식자원 : 친구, 지역단체	비공식자원 : 가족, 친지, 자립멘토(추가)		
일상생활 관리	• 음식준비 : 조리, 식단계획, 시장보기, 레시피활용, 식품보관	음식관리	1배	2배
	• 주방관리 : 설거지, 음식물 처리			
	• 청소관리 : 정리정돈	청소/세탁		
	• 세탁관리 : 세탁주기, 햇빛건조			
	• 안전관리 : 전기·가스·화재	• 안전관리		
	• 법준수 : 교통신호, 음주운전 등	-		

영역	자립준비 요소		가중치	
	초기안	수정안	초기안	수정안
사회적 기술	• 이미지관리 : 드레스코드, 헤어, 문신제거	• 용모관리	1배	2배
	• 의사소통/갈등대처 : 감정표현, 감정조절 등	• 관계형성		
	• 신뢰형성 : 시간관리, 약속준수, 성실한 업무수행	• 에티켓		
	• 기본예절 : 인사, 표정, 눈맞춤	• 시간관리		
	-	• 준법여부		
	-			

2) 입소판정 기준

입소판정시 고려할 부분은 일반범주, 전문가범주, 고위험범주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일반범주는 자립준비 사정도구로 평정하는 9개 영역의 자립준비수준 전체 점수를 80%의 비중(80점 만점)을 둔다.

둘째, 전문가범주는 자립지원의 시급성이나 약속이행 여부, 기관의 서비스 목적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한 면접자의 전문적 소견 항목으로서 20%의 비중(20점 만점)을 둔다. 일반범주와 전문가범주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100%(100점 만점)로 계산한다.

셋째, 고위험범주는 자살문제나 중독문제를 지닌 대상은 전문적 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 고위험영역에서 1가지라도 위험수준이 높을 경우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넷째, 자립준비영역 점수(A)와 전문가 점수(B)의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영역의 위험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입소판정이 가능하다. 단, 미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할 때까지 조건부 유예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입소판정 기준(안)

범주	자립준비영역	가중치	비중(점수)
일반 (80%)	자립의지	×5	5~20
	주거관리	×2	2~8
	직업역량	×3	3~12
	경제관리	×3	3~12
	자기보호	×1	1~4
	학업관리	×1	1~4
	자원활용	×1	1~4

범주	자립준비영역	가중치	비중(점수)
	일상생활관리	×2	1~8
	사회적기술	×2	1~8
	전체 (A)	-	20~80
고위험 (Y/N)	고위험영역 (B)		적합성
	자살문제		Yes / No
	중독문제		Yes / No
전문가 (20%)	전문가 소견		비중(점수)
	자립지원의 필요성, 서비스 부합성을 판단하여 기술		1~20
종합판정	판정기준 1	종합점수 60점 이상일 때 : 입소 적합	
	판정기준 2	고위험 수준이 1개 이상일 때 : 입소 부적합	
	판정기준 3	미확인 사항이 있을 때 : 조건부 입소	

5. 사정도구 기초문항 개발

가. 자립준비 사정도구 구성요인

문헌조사와 기존 사정도구의 분석, 현장전문가 FGI, 외부전문가 자문, 종합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의 <표 13>과 같이 9영역 30요인의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을 개발하였다.

표 13.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

영역	요인		자립준비 내용
1. 자립 의지	1-1	증장기목표	인생의 목표나 증장기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며 현실성이 있는가?
	1-2	자립동기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는 얼마나 뚜렷한가?
	1-3	자립실천노력	자립하기 위한 실천 노력은 어느 정도이며,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생산적인 교훈을 얻은 적이 있는가?
2. 주거 관리	2-1	주거지원정보	주거지원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나?
	2-2	주거마련계획	주거지 마련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2-3	집구하기	주거지 선택 전/후에 필요한 지식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
	2-4	집 관리	간단한 보수나 집꾸미기 등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영역	요인		자립준비 내용
3. 직업 역량	3-1	직업 가치관	직업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얼마나 분명한가?
	3-2	직업조사	관심 있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
	3-3	직업선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적절히 선택했는가?
	3-4	구직기술	직업(직장)을 얻기 위한 구직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3-5	직장적응기술	직장에 들어갈 경우 직면하는 대인관계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 직장적응에 필요한 기술은 어떠한가?
4. 경제 관리	4-1	소비관리	자기 소득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소득 대비 지출비율을 얼마나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가?
	4-2	저축관리	자기 소득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3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신용관리하고 있는가?
5. 자기 보호	5-1	신체건강	신체건강 관리를 위한 의지나 실천 여부는 어떠한가?
	5-2	정신건강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의지나 실천 여부는 어떠한가?
	5-3	성보호	성(性)문제와 관련된 기초 성지식과 성인식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6. 학업 관리	6-1	학업의지	고졸학력 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있는가?
	6-2	학습기술	공부하는 방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으며, 학습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7. 자원 활용	7-1	공식자원	대중교통이나 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등의 공공서비스 이용방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7-2	비공식자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
8. 일상 생활 관리	8-1	음식관리	기본적인 식생활을 위해 식자재를 준비하고, 조리할 줄 알며, 음식물 뒤풀리와 보관을 적절히 할 수 있는가?
	8-2	청소/세탁	생활공간의 청소 및 정리정돈, 의복 세탁 및 보관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8-3	안전관리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을 얼마나 잘 챙기며, 소화기 사용법 등의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9. 사회적 기술	9-1	용모관리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9-2	관계형성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있고 오래도록 인간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는가?
	9-3	에티켓	인사/전화 예절, 공공장소의 에티켓을 얼마나 알고, 잘 지키는가?
	9-4	시간관리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 일과 학업, 여가와 휴식 등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9-5	준법여부	기본적인 생활법률 상식과 준법정신은 어떠한가, 실제로 법과 질서를 어느정도 지키는가?

V. 사정도구 최종문항 개발

1. 내용타당도 검증

가. 검증 절차

문헌연구와 현장FGI연구, 자립지원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문항을 검토하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9월 22일-24일까지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현장전문가는 자립지원관 관장 6명, 청소년쉼터 소장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를 통해 자립사정도구 문항이 목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재고 있는지 내용타당도를 알아보고,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한 기타 의견을 청취한 후 추가·수정 되어야 할 내용을 최종 문항에 반영하였다.

나. 통계분석 및 문항 선택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Fehring(1987)의 기법에 따라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각 점수별 가중치(1점=0, 2점=.25, 3점=.50, 4점=.75, 5점=1.00)를 두고, 각 문항마다 전문가 10인들이 할당된 점수들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CVI)의 절단점(cut-off score)을 결정하는 기준은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Sparks & Lien-Gieschen(1994)이 제시한 CVI 절단점인 .60이상인 문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정·보완 하였다.

다. 분석 결과

자립준비 사정도구의 9가지 영역별 평가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결과는 <표 14>와 같다. 현장전문가 10인을 통한 CVI를 살펴본 결과, 문항들의 CVI는 .60이상으로 자립준비

사정도구로서 모든 평가문항들이 타당하였으며, 제외시켜야 할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립사정도구 문항 및 각 문항의 내용 타당도 지수

영역	요소	평가 문항	CVI
자립 의지	중장기목표	인생의 목표나 중장기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며 현실성이 있는가?	0.88*
	자립동기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는 얼마나 뚜렷한가?	0.95*
	자립 실천노력	자립하기 위한 실천 노력은 어느 정도이며,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생산적인 교훈을 얻은 적이 있는가?	0.90*
주거 관리	주거지원 정보	주거지원에 관한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나?	0.83*
	주거마련 계획	주거지 마련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0.90*
	집구하기	주거지 선택 전/후에 필요한 지식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	0.85*
	집 관리	간단한 보수나 집꾸미기 등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0.68*
직업 역량	직업 가치관	직업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얼마나 분명한가?	0.85*
	직업조사	관심 있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	0.88*
	직업선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적절히 선택했는가?	0.75*
	구직기술	직업(직장)을 얻기 위한 구직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0.85*
	직장적응 기술	직장에 들어갈 경우 직면하는 대인관계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 직장적응에 필요한 기술은 어떠한가?	0.85*
경제 관리	소비관리	자기 소득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얼마나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가?	0.88*
	저축관리	자기 소득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0.95*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신용관리하고 있는가?	0.85*
자기 보호	신체건강	신체건강 관리를 위한 의지나 실천 여부는 어떠한가?	0.78*
	정신건강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의지나 실천 여부는 어떠한가?	0.80*
	성보호	성(性)문제와 관련된 기초 성지식과 성인식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0.80*
학업 관리	학업의지	고졸학력 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있는가?	0.73*
	학습기술	공부하는 방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으며, 학습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0.60*
자원 활용	공식자원	대중교통이나 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등의 공공서비스 이용방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0.85*
	비공식자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	0.90*

영역	요소	평가 문항	CVI
일상 생활 관리	음식관리	기본적인 식생활을 위해 식자재를 준비하고, 조리할 줄 알며, 음식물 뒤처리와 보관을 적절히 잘 할 수 있는가?	0.78*
	청소/세탁	생활공간의 청소 및 정리정돈, 의복 세탁 및 보관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0.80*
	안전관리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을 얼마나 잘 챙기며, 소화기 사용법 등의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0.80*
사회적 기술	용모관리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0.75*
	관계형성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있고 오래도록 인간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는가?	0.88*
	에티켓	인사/전화 예절, 공공장소의 에티켓을 얼마나 알고, 잘 지키는가?	0.80*
	시간관리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 일과 학업, 여가와 휴식 등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0.78*
	준법여부	기본적인 생활법률 상식과 준법정신은 어떠하며, 실제로 법과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는가?	0.80*

* CVI>.60인 항목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함께 현장 전문가들이 문항의 중요도 범위, 명료성 등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문항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구성요인의 중요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면, 주거관리 영역에서 중요도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청소년이 입소과정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로 입소하게 되며,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거관련 정보는 학습할 수 있으므로 중요도 수준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기보호 영역에서 신체 정서적 건강은 자립생활유지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특히 독립가구로 전환했을 때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소년은 지속적인 일상생활관리가 어렵고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보호 영역의 중요도를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일상생활관리 영역에서 음식, 청소,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은 주거, 취업과 더불어 독립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이고 사례관리시 중점적으로 훈련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중요도를 상향하면 좋겠다는 추가 의견이 많았다.

두번째, 정적변인 구성요소 및 자립준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경제상태 영역에서 부채의 발생경위, 액수, 변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수입과 함

게 지출규모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법영역에서 수배중이라는 용어보다는 사법절차 진행중이라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며, 친구의 법적 처분 경험과 함께 친구가 몇 명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업관리 영역에서는 대학(전공)을 추가하고, 자원활용영역에서는 사회보장상황을 확인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여부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도움 부분에서는 쉼터나 꿈드림센터 등 공공서비스와 종교시설, 기업단체 등 민간지원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의견을 주었다.

세 번째, 자립준비수준 문항 및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자립의지 영역 중에서 청소년의 특성상 중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자립을 위한 실천노력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여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거관리 영역 중 주거마련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나 자금마련 방법 등 경제적인 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집관리를 위한 간단한 보수·유지 등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씽크대 보수, 가전제품수리, 벽면 곰팡이나 누수 등 집관리를 위한 일정 수준의 능력을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다.

직업역량 중 직업가치관을 평가할 때 직업의 의미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속성을 보충설명하여 평가시 반영하도록 하였고, 목표의식이 ‘매우 강렬한 상태’ 보다는 ‘확고한 상태’ 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조사할 때 청소년 전문기관이나 고용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구직 등록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학업관리 영역 중 고졸학력 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같은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예비조사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예비조사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잠재적 입소대상자 및 실제 입소자 총 12명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이용 기관 유형별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쉼터 4명(33.3%), 자립지원관 4명(33.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명(16.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명(16.7%)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여자청소년은 25%, 남자청소년은 75%였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 41.7%, 20~24세 58.3%로 확인되었다. 예비조사를 위한 인터뷰는 연구진이 직접 실시하였다. 모두 온라인 화상 인터뷰 방식을 통해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표 15. 예비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사례 수	%
유형	청소년쉼터	4	33.3
	자립지원관	4	33.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16.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16.7
성별	여	3	25.0
	남	9	75.0
연령	15~19세	5	41.7
	20~24세	7	58.3
총계		12	100.0

나. 조사 결과

연구진이 1차 사정도구로 청소년 인터뷰를 직접 실시하면서 평정 과정 측면과 결과 측면 각각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평정 과정 측면에 관해서는 첫째, 평정 시 사정도구의 문항별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질문을 변형해야 한다는 점, 둘째, 문항에 따라 예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평정 결과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점수(20점 배점)가 평정 결과(80점 배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논

의하였다. 요인별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표 16과>같다. 이와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들의 표현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시를 보완하였다.

표 16. 예비조사 결과

자립준비영역	검토 내용
자립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증이나 최근의 우울성향인 경우 응답하기 어려움 '자립'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큼(주거, 쉼터 이용 가능 여부 등)
주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전세임대(LH 등)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이미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마련계획 등을 질문하기가 모호함 쉼터 입소청소년의 경우 지금 당장 주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직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직업이 있는 경우와 지금은 직업이 없지만 향후 하고 싶은 일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직업선택 문항 표현 수정 필요 학생(검정고시, 대입준비)의 경우 구직기술, 직장적응기술은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시 필요
경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하지 못하는 상태(예. 기초생활수급비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음 신용등급 자체가 평정기준이 될 가능성 있음. 학생의 경우 신용관리 방법을 잘 모르나 등급 자체가 높을 수 있음 학생(검정고시, 대입준비)의 경우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수 문항에서 낮게 평정됨
자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문항 중 정신병력,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에게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있음 성보호 관련 평정기준 재검토 필요
학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의지 기준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진학 의지가 없는 경우 둘 다 포괄하지 못함 학습기술 평정기준 필요 여부 및 내용 재검토 필요
자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자원 관련하여 법률정보 단어 삭제 필요 평정 기준 범주 재검토 필요
일상생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관리는 시설 입소 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기준 완화 필요 안전관리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쉬워 4개 범주로 측정하기가 어려움
사회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모관리 문항 예시 필요(예. 면접 시, 결혼식 참여 시, 장례식 참여 시 등) 관계형성 질문 의도 정리 필요(소수 vs. 다수가 중요한지, 신뢰감 형성이 중요한지, 오래가는 것이 중요한지) 에티켓을 알고 모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가 어려움(바람직하게 응답할 가능성 높음)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자립지원관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가 시급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쉼터 퇴소 청소년이 아닌 입소 중인 청소년, 이미 자립지원관 이용 중인 청소년 등) 질문이 모호하거나 답변을 평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적절한 질문으로 바꾸어 평정할 필요 있음

3. 본조사

가. 조사대상 및 방법 (글자 확인)

본조사는 총 148명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이용 기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청소년쉼터 63명(42.6%), 자립지원관 51명(34.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5명(16.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명(6.1%)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여자청소년은 71명(48.0%), 남자청소년은 77명(52.0%)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 57명(38.5%), 20~24세 91명(61.5%)으로 확인되었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 1인에 대하여 2인의 인터뷰 요원이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사정도구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아닌 인터뷰 방식의 평가도구이기 때문에 평정자 간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보완하기 위함이다.

먼저 1차 평정을 위한 인터뷰는 평정자와 청소년이 일대일로 대면 인터뷰 또는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때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과정을 녹화(또는 녹음)하였고, 이후 다른 평정자가 이 파일을 보고 동일한 도구로 평정하였다. 본조사의 각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내외로 확인되었다.

표 17. 본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사례 수	%
유형	청소년쉼터	63	42.6
	자립지원관	51	34.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5	16.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6.1
성별	여	71	48.0
	남	77	52.0
연령	15~19세	57	38.5
	20~24세	91	61.5
총계		148	100.0

나. 분석 방법

분석은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문항별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개별항목의 측정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평정자 간 평정일치도를 나타내는 카파계수(coefficient of kappa)를 구하였다. 카파계수는 평정자 간의 일치도가 과대추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연에 의해 일치된 부분을 통제하고 순수하게 평정이 일치한 두 평정자 간의 일치도를 계산한 통계량으로, 0 이상 1.0 이하의 값을 가진다.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K = \frac{P_A - P_c}{1 - P_c}$$

P_A = 관찰자 간 일치도

P_c = 우연히 두 평정자에 의해 일치된 평정을 받은 피험자의 비율

다음으로 사정도구의 개별항목과 총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1평정자의 평가지를 이용하여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도출하였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비모수적 통계방법으로, 측정치 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때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또한 30항목의 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α)와 함께 사정도구 총점의 신뢰도를 급간내상관계수(Intra Class Coefficient, ICC)로 살펴보았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다. 분석 결과

1) 영역별 평정 경향

두 평정자의 영역별 평정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영역의 문항별 평정값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누어 대푯값을 구하고 각 영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값과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하였다. 자립의지와 자기보호 영역에서는 세 가지 통계량이 동일하게 확인되어 두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 경향을 보였다(최빈값=3.00, 최소값=1.00, 최대값=4.00). 주거관리(최빈값=2.75), 일상생활관리(최빈값=3.67)는 가장 많이 관찰되는 대푯값이 같은 반면

최소값에서 평정자간 차이를 보였고, 직업역량(최빈값=3.40, 3.00), 경제관리(최빈값=2.67, 3.00), 학업관리(최빈값=3.00, 2.50), 자원활용(최빈값=2.50, 3.00), 사회적 기술(최빈값=3.00, 3.20)에서는 평정자별로 가장 많이 관찰되는 대푯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18. 요인별 평정 결과

요인	제1평정자		제2평정자	
	최빈값	최소값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		
자립의지	3.00	1.00	3.00	1.00
		4.00		4.00
주거관리	2.75	1.00	2.75	1.25
		4.00		4.00
직업역량	3.40	1.00	3.00	1.00
		4.00		4.00
경제관리	2.67	1.33	3.00	1.00
		4.00		4.00
자기보호	3.33	1.33	3.33	1.33
		4.00		4.00
학업관리	3.00	1.00	2.50 ¹⁾	1.00
		4.00		4.00
자원활용	2.50 ¹⁾	1.50	3.00	1.00
		4.00		4.00
일상생활관리	3.67	1.33	3.67	1.67
		4.00		4.00
사회적 기술	3.00	1.80	3.20	2.00
		4.00		4.00

1) 여러 최빈값 중 가장 작은 값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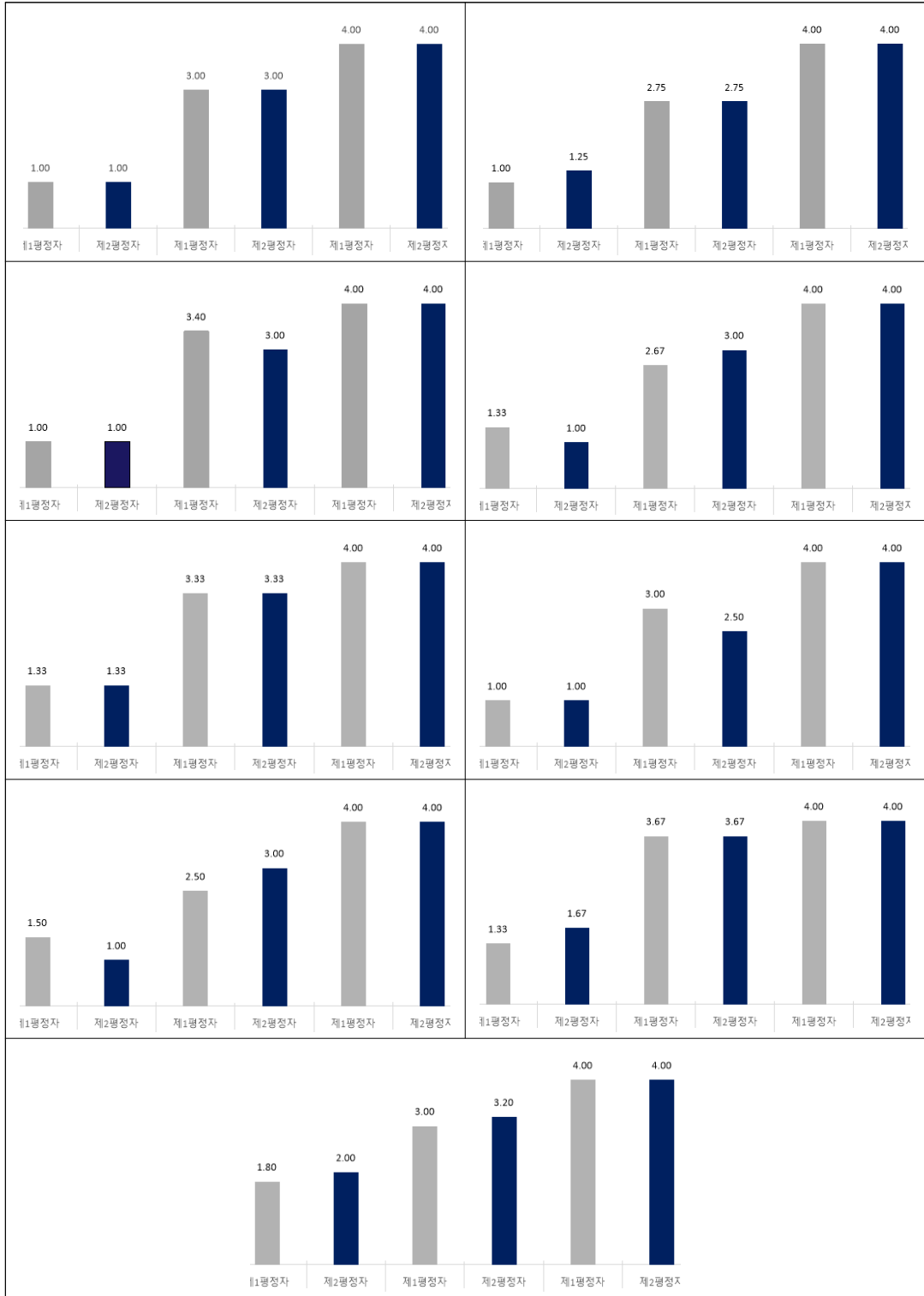


그림 2. 요인별 평정 결과

2) 개별문항별 평정자 간 일치도

자립준비 사정도구의 개별문항별 평정자 간 일치도를 카파계수로 확인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카파계수는 주거관리의 주거지원정보(k=.672, p<.001), 자기보호의 신체건강(k=.756, p<.001), 학업관리의 학습기술(k=.602, p<.001), 일상생활관리의 음식관리(k=.628, p<.001), 청소/세탁(k=.650, p<.001), 사회적 기술의 관계형성(k=.713, p<.001), 시간관리(k=.664, p<.001) 항목에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그 외 모든 항목이 .40~.60 사이의 양호한 일치도를 보였다. 단지, 직업조사항목의 일치도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다소 낮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k=.391, p<.001).

표 19. 개별문항별 평정자 간 일치도

영역	항목	kappa 계수	일치도
자립의지	증장기목표	0.467***	양호
	자립동기	0.539***	양호
	자립실천노력	0.510***	양호
주거관리	주거지원정보	0.672***	높음
	주거마련계획	0.498***	양호
	집구하기	0.591***	양호
	집 관리	0.600***	양호
직업역량	직업가치관	0.488***	양호
	직업조사	0.391***	보통
	직업선택	0.487***	양호
	구직기술	0.470***	양호
	직장적응기술	0.551***	양호
경제관리	소비관리	0.539***	양호
	저축관리	0.475***	양호
	신용관리	0.506***	양호
자기보호	신체건강	0.756***	높음
	정신건강	0.578***	양호
	성보호	0.626***	높음
학업관리	학업의지	0.558***	양호
	학습기술	0.602***	높음
자원활용	공식자원	0.479***	양호
	비공식자원	0.592***	양호

영역	항목	kappa 계수	일치도
일상생활관리	음식관리	0.628***	높음
	청소/세탁	0.650***	높음
	안전관리	0.563***	양호
사회적 기술	용모관리	0.551***	양호
	관계형성	0.713***	높음
	에티켓	0.525***	양호
	시간관리	0.664***	높음
	준법여부	0.524***	양호

*** p<.001

3) 개별문항과 총점 간 상관정도

자립준비 사정도구의 개별문항 평정값과 총점 간 관련성은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으로 확인하였다. 영역별 상관계수(r)를 살펴보면 자립의지는 .609~.668, 주거관리는 .392~.668, 직업역량은 .473~.628, 경제관리는 .303~.662, 자기보호는 .343~.404, 학업관리는 .334~.561, 자원활용은 .291~.454, 일상생활관리는 .407~.501, 사회적 기술은 .185~.482의 범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은 자립의지 중 중장기목표(r=.668, p<.01), 주거관리 중 주거마련계획(r=.668, p<.01)으로 확인되었고, 이어 자립의지 중 자립실천노력(r=.665, p<.01), 경제관리 중 저축관리(r=.662, p<.01), 주거관리 중 집구하기(r=.661, p<.01), 직업역량 중 직업가치관(r=.628, p<.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기술 중 에티켓(r=.185, p<.05)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같은 영역 중 준법여부(r=.271, p<.01), 자원활용 중 비공식자원(r=.291, p<.01), 경제관리 중 신용관리(r=.303, p<.01), 학업관리 중 학업의지(r=.334, p<.01) 순으로 총점과의 상관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0. 개별문항과 총점 간 상관정도(Spearman correlation)

영역	항목	r
자립의지	중장기목표	.668**
	자립동기	.609**
	자립실천노력	.665**
주거관리	주거지원정보	.533**
	주거마련계획	.668**

영역	항목	r
	집구하기	.661**
	집 관리	.392**
직업역량	직업가치관	.628**
	직업조사	.485**
	직업선택	.473**
	구직기술	.578**
	직장적응기술	.594**
경제 관리	소비 관리	.533**
	저축 관리	.662**
	신용 관리	.303**
자기보호	신체건강	.343**
	정신건강	.356**
	성보호	.404**
학업 관리	학업의지	.334**
	학습기술	.561**
자원 활용	공식자원	.454**
	비공식자원	.291**
일상생활관리	음식 관리	.432**
	청소/세탁	.501**
	안전 관리	.407**
사회적 기술	용모 관리	.438**
	관계형성	.352**
	에티켓	.185*
	시간 관리	.482**
	준법여부	.271**

* p<.05, ** p<.01

4) 문항내적일치도 및 총점의 평정자 간 신뢰도

자립준비 사정도구의 문항내적일치도를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로 확인한 결과 .90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영역별 중요도를 반영한 총점의 측정자 간 신뢰도인 ICC는 .890(.847~.921)으로, 이는 2명의 평정자가 시행한 결과가 89.0% 일치함을 의미한다(p<.001).

표 21. 문항내적일치도 및 총점의 평정자 간 신뢰도

구분	통계량
Cronbach's α	.904
ICC(CI)	.890(.847~.921)

4. 최종문항개발

가. 최종문항 개발 개요

현장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모든 평가문항들이 타당하였고(CVI>.60),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에서도 대부분의 문항들의 평정자간 일치도가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수집된 약간의 어휘 및 문맥수정 외에 모든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립준비도 사정도구의 최종문항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각 문항별 평가기준(1점~4점)에 대해 수준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나. 최종문항 및 문항별 평가기준

1) 자립의지 영역

(1-1) 인생목표 : 인생의 목표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며 현실성이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구체성/현실성 거의 없음	인생의 목표나 단기/중기/장기계획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음
2점	구체성/현실성 희박함	단기적인 자립계획을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중기/장기계획에 대한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희박하고 막연한 상태 ※ 단기계획: 3개월 내외로 실천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 단기 아르바이트, 건강관리 계획 등
3점	구체성/현실성이 어느정도 있음	단기/중기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인생목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지만, 실천계획이 충분치 않은 상태 ※ 중기계획: 1~2년 사이 주거마련, 취업, 자격증 취득 계획 등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4점	구체성/현실성 모두 충분함	인생의 목표나 단기/중기/장기계획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왔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고,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장기계획: 3~10년 사이 이루고 싶은 목표달성 계획, 인생목표의 성취계획

(1-2) 자립동기 :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는 얼마나 뚜렷한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자립동기 없고, 실천도 없음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도 없고, 자립을 위한 실천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자립무동기)
2점	외압으로 자립노력, 자발적 동기 없음	주변의 압박 때문에 자립 노력을 할뿐, 스스로 자립하려는 동기가 없는 상태 (외적 자립동기)
3점	자립동기 있지만, 외부도움으로 실천	자립동기는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주변의 압박이나 도움을 받아야만 실천행동을 보이는 상태 (내사된 자립동기)
4점	자발적 자립노력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자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 (확인된 자립동기) 예)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자립계획을 세워보거나, 자격증 공부 하기

(1-3) 자립실천노력 : 자립하기 위한 실천 노력은 어느 정도이며,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생산적인 교훈을 얻은 적이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실천노력 없고, 자신감도 없음	자립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
2점	몇차례 실천했지만, 자신감 상실	자립하기 위해 몇 차례 실천해봤지만, 실패경험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
3점	몇차례 실천으로, 자신감을 가짐	자립하기 위해 몇 차례 실천을 통해, 실패나 성공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된 상태
4점	여러차례 실천으로, 자신감이 강함	자립하기 위한 여러 차례 계속해서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패/성공경험을 통해 생산적인 교훈을 얻어 자신감이 강한 상태

2) 주거관리 영역

(2-1) 주거지원 정보 : 주거지원에 관한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

(정부나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관심이 없고, 정보 부재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이 없고, 알고 있는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
2점	관심은 있지만, 정보 부재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 알아보거나 아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
3점	관심이 많지만, 정보 부정확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이 많고, 직접 알아 본 적도 있지만, 알고 있는 정보가 다소 부정확한 상태
4점	관심이 많고, 정보 구체적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이 많고, 직접 알아 본 적도 많으며, 실제로 알고 있는 정보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태

(2-2) 주거마련 계획 : 주거지 마련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주거지역, 주거형태, 주거비, 관리비 등)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계획이 전혀 없음	주거지 마련 계획이 전혀 없으며, 필요성도 못 느끼는 상태
2점	계획이 막연하고, 실현가능성 낮음	주거지 마련 계획이 막연하며,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태 (주거 지역, 전/월세 형태는 생각해봤지만, 비용 마련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음)
3점	계획이 구체적, 실현가능성 보통	주거지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다소 있음 (주거 지역, 전/월세 형태를 결정하고, 비용 마련 계획이 있음)
4점	계획이 구체적, 실현가능성 높음	주거지 마련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 (주거지역, 전/월세 형태를 결정하고, 주거지와 관리비 마련방법까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2-3) 집 구하기 : 주거지 선택 전/후에 필요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주변환경 요건, 집 내부 점검, 전/월세 계약, 계약 후 신고사항)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전혀 지식 없음	주거지 선택에 필요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약간의 지식 있음	주거지 선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는 상태
3점	구체적 지식 있음	주거지 선택시 집 내부 점검사항과 계약 후 전입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 확인 등 구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
4점	구체적 지식과 경험 있음	주거지 주변환경 요건, 주거지 선택시 집 내부 점검사항, 계약 후 전입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 확인 등 구체적인 지식이 충분하고, 직접 임대 경험에 있는 상태

(2-4) 집 관리 : 간단한 보수·유지나 집꾸미기 등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보수와 환경미화 전혀 못함	주거시설의 보수·유지나 시설환경을 꾸미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상태
2점	간단한 보수만 가능함	주거시설이나 가전제품 등이 고장났을 때, 간단한 교체 정도만 가능한 상태 (예: 형광등 교체, 건전지 교환 등)
3점	웬만한 보수를 혼자서 해결함	주거시설이나 가전제품 등이 고장났을 때, 웬만한 보수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 (예: 번기/하수구 막힘 뚫기, 블라인드 설치 등)
4점	어려운 보수도 도움 요청 해결	주거시설 결함이나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능숙하게 보수하고, 관련 업체나 집주인에게 설득력 있게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뛰어난 상태 (예: 싱크대 보수, 가전제품 수리, 벽면 곰팡이나 누수 등)

3) 직업역량 영역

(3-1) 직업가치관 : 직업의 속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얼마나 뚜렷한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직업이해 및 목표의식 없음	직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
2점	직업이해 및 목표의식 약함	직업의 속성을 조금 이해하고 있지만,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다소 희박한 상태
3점	직업이해 및 목표의식 분명함	직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상태
4점	직업이해 및 목표의식 확고함	직업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과 자기성장에 대한 도전의식이 매우 확고한 상태

(3-2) 직업조사 : 관심 있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전혀 알아보지 않음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거의 알아본 적이 없는 상태
2점	인터넷 등을 통한 간단한 조사	주변의 조언이나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관심 직업을 간단히 알아 본 상태
3점	전문가 도움으로 객관적 조사	청소년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직업상담이나 직업적성검사, 한국직업사전 등을 통해 관심 직업분야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해 본 상태 (※ 청소년 전문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4점	현장체험 등 적극적 조사	고용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워크넷 구직등록, 관심분야의 직업인 만남, 직업현장 체험 등을 통해 관심 직업분야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본 상태 (※ 고용 전문기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3-3) 희망직업선택 :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희망직업을 적절히 선택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흥미와 적성을 전혀 모름	자신의 직업흥미(좋아하는 직업)와 직업적성(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잘 모르는 상태
2점	흥미와 적성과 무관한 선택	자신의 직업흥미와 직업적성을 알지만 이와 무관한 직업을 정한 상태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3점	흥미나 적성 중 하나에 맞는 선택	자신의 직업흥미나 직업적성 중 한 가지를 고려하여 직업을 정한 상태 (예: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재능은 없는 사람이 요리사 직업을 희망함)
4점	흥미와 적성 모두 맞는 선택	자신의 직업흥미와 직업적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히 직업을 정한 상태 (예: 음식 만들기 취미가 있으면서 재능도 있는 사람이 요리사 직업을 희망함)

(3-4) 구직기술 : 직업(직장)을 얻기 위한 구직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구직기술 전혀 없음	구직기술을 갖추거나 기초적인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2점	구직기술 기초 수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 기본적인 구직기술이 있는 상태
3점	구직기술 높은 수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등의 구직기술이 적절히 갖추어진 상태
4점	구직기술 탁월한 수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습득 외 자격증 취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구직기술을 갖추고 있어 구직준비가 충분한 상태

(3-5) 직장적응기술 : 직업(직장)을 얻기 위한 구직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적응력 매우 취약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어 직장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
2점	적응력 낮은 수준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에 부담이 없지만, 시간관리(출근시간 준수 등)와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하여 직장에서의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
3점	적응력 높은 수준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부담이 없고, 시간관리(출근시간 준수 등)와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있지만, 부정적 상황(부당한 대우, 퇴직시 대처 등)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
4점	적응력 탁월한 수준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자신감이 있고, 시간관리(출근시간 준수 등)와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있으며, 부정적 상황(부당한 대우, 퇴직시 대처 등)에서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한 상태

4) 경제관리 영역

(4-1) 소비관리 : 자기 소득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소득 대비 지출비용을 얼마나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소비관리 전혀 안됨	자기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총동구매 등의 무분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보다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2점	소비관리 비효율적임	자기 소득 내에서 소비하는 편이지만, 가격비교나 할인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다소 비효율적으로 지출하는 상태
3점	소비관리 효율적임	자기 소득 내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비교, 할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적절한 상태
4점	소비관리 탁월함	근검절약하며, 자기 소득 내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비교, 할인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효율적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

(4-2) 저축관리 : 자기 소득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저축관리 전혀 안됨	저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금융상품 정보도 없어, 전혀 저축을 하지 않는 상태
2점	저축관리 필요성 인식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금융상품 정보를 알아보기는 하지만,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
3점	저축관리 조금씩 유지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상품 정보를 알아보며, 조금씩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4점	저축관리 탁월함	저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금융상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열심히 저축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

(4-3) 신용관리 :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신용관리하고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신용등급 위험수준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 (※ 신용 9~10등급 : '위험' 수준)
2점	신용등급 주의수준	주로 저신용업체와의 거래가 많고, 비교적 단기연체의 경험이 많아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태 (※ 신용 7~8등급 : '주의' 수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3점	신용등급 일반수준	주로 저신용업체와의 거래가 있고, 단기연체의 경험이 있는 상태 (※ 신용 5~6등급 : '일반' 수준)
4점	신용등급 우량수준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지만, 꾸준하고 우량한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 위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신용 3~4등급 이상 : '우량' 수준 이상)

5) 자기보호 영역

(5-1) 신체건강 : 신체건강 관리를 위한 의지나 실천 여부는 어떠한가?

(운동, 금주/금연, 음식조절, 수면조절 등)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관리의지/실천 전혀 없음	신체건강 관리의지와 실천*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관리의지 있고, 실천노력 없음	신체건강 관리의지는 있지만, 실천*노력이 없는 상태
3점	관리의지 있고, 불규칙 실천	신체건강 관리의지가 있고, 불규칙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
4점	관리의지 강하고, 규칙적 실천	신체건강 관리의지가 매우 강하고,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규칙적인 건강 관리 실천*에 힘쓰고 있는 상태

(5-2) 정신건강 :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의지나 실천 여부는 어떠한가?

(스트레스 관리, 분노조절, 게임중독 예방, 상담이용 등)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관리의지/실천 전혀 없음	정신건강 관리의지와 실천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관리의지 있고, 실천노력 없음	정신건강 관리의지는 있지만, 실천노력이 없는 상태
3점	관리의지 있고, 불규칙 실천	정신건강 관리의지가 있고, 불규칙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
4점	관리의지 강하고, 규칙적 실천	정신건강 관리의지가 매우 강하고,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규칙적인 건 강관리 실천에 힘쓰고 있는 상태

(5-3) 성보호 : 성(性)문제와 관련된 기초 성지식과 성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성지식/성인식 매우 낮은 수준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이 거의 없는 상태
2점	성지식/성인식 낮은 수준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이 약간 있는 상태
3점	성지식/성인식 높은 수준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 외에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등(긴급전화 이용)을 알고 있는 상태
4점	성지식/성인식 매우 높은 수준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 외에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등(긴급전화 이용)을 충분히 알고 적극 대응할 의지가 있는 상태

6) 학업관리 영역

(6-1) 학업의지 : 고졸학력 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있는가?

(검정고시, 대학진학, 평생교육, 독학 등)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학업계획/실천 거의 없음	고졸 이상의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 등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이 없고, 공부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
2점	학업계획 막연, 실천 부족	고졸 이상의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 등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이 막연하고, 공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
3점	구체적 학업계획, 불규칙한 실천	고졸 이상의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 등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다소 불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상태
4점	구체적 학업계획, 규칙적인 실천	고졸 이상의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 등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학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태

(6-2) 학습기술 : 공부하는 방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으며, 학습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가? (공부방법 : 독서법, 필기법, 암기법, 시험전략 등)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공부방법 모르고, 적용도 없음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공부할 생각도 없는 상태
2점	공부방법 모르고, 적용 비효율적임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무턱대고 책을 보면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상태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3점	공부방법 알고, 적용 소극적임	독서법이나 필기법 등 공부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학습에 조금씩 적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상태
4점	공부방법 잘 알고, 적용 적극적임	독서법이나 필기법, 암기법, 시험전략 등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학습에 적용하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상태

7) 자원활용 영역

(7-1) 공식자원 : 대중교통이나 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등의 공공서비스 이용방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자원활용이 제한적임	대중교통 같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자원 외에는 대부분 스스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
2점	자원활용 가능하지만, 자신감 부족	공공서비스(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도서관 등)를 이용할 때 스스로 이용방법을 찾는데 자신감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태
3점	자원활용 가능하며, 자신감 있음	공공서비스(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도서관 등) 이용시 인터넷 등을 통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상태
4점	자원활용 능력이 뛰어남	공공서비스(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도서관 등) 이용 경험과 지식이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상태

(7-2) 비공식 자원 :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자원/활용 모두 제한적임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가 거의 없어 상당히 고립된 상태
2점	자원이 빈약하지만, 활용 가능함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소수의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3점	자원이 많고, 잘 활용함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비교적 많은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4점	자원을 늘려가며 적극 활용함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기존의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의 도움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 추가로 새로운 자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

8) 일상생활관리 영역

(8-1) 음식관리 : 기본적인 식생활을 위해 식자재를 준비하고, 조리할 줄 알며, 음식물 뒤처리와 보관을 적절히 잘 할 수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음식관리 전혀 못함	밥이나 밑반찬 등의 기본적인 음식을 준비하고 보관할 줄 전혀 모르는 상태
2점	음식관리 초보수준	밥이나 밑반찬 외에, 좀 더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 식자재를 준비하여 조리해 본 경험이 적고, 위생적인 음식물 뒤처리와 음식물 보관(냉장/냉동보관 등)이 서투른 상태
3점	음식관리 잘 하는 편	레시피 등을 활용하여, 식자재를 준비하고 간단한 음식을 조리할 줄 알며, 설거지와 음식물 뒤처리에 익숙하고, 음식물 보관(냉장/냉동보관 등)을 적절히 하는 상태
4점	음식관리 능숙함	레시피 없이도 다양한 음식들을 능숙하게 조리할 줄 알며, 설거지와 음식물 뒤처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있으며, 유통기한과 음식물 특성에 맞게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보관(냉장/냉동보관 등)할 줄 아는 상태

(8-2) 청소/세탁 : 생활공간의 청소 및 정리정돈, 의복 세탁 및 보관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관리방법 모르고, 방치하는 편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집안일을 거의 방치하는 편임
2점	관리방법 알지만, 서투르게 함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은 알지만, 집안일을 하는데 서투른 상태
3점	관리방법 알고, 몰아서 함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집안일을 곧잘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음.
4점	관리방법 알고, 규칙적으로 함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집안일을 꼼꼼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음

(8-3) 안전관리 :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을 얼마나 잘 챙기며, 소화기 사용법 등의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안전관리 거의 무관심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의 안전을 챙기거나, 화재 예방 수칙에 거의 무관심한 상태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2점	안전관리 소홀한 편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소화기 사용법 등의 화재예방 수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3점	안전관리방법 알고, 주의를 기울임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을 잘 챙기며, 소화기 사용법 등의 기본적인 화재예방 수칙을 알고 있는 상태
4점	안전관리방법 알고, 주의가 철저함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에 대한 안전의식이 철저하며, 화재예방 수칙을 확실히 알고, 습관적으로 점검하며 챙기는 상태

9) 사회적기술 영역

(9-1) 용모관리 :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용모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용모관리 전혀 무관심	복장이나 표정 관리에 전혀 무관심하여 용모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
2점	용모관리 소극적	복장이나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용모관리 방법을 잘 몰라 호감이 가는 용모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3점	용모관리 적극적	표정이나 시선 처리가 다소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상황에 맞는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을 착용할 줄 알고, 호감이 가는 용모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상태
4점	용모관리 탁월함	항상 표정이 밝고 시선 처리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상황과 개성에 맞는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을 착용할 줄 알고, 항상 호감이 가는 용모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상태

(9-2) 관계형성 :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있고 오래도록 인간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관계형성 매우 어려움	원래 알던 사람들 외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아주 어려운 상태
2점	관계형성 좁고, 오래가지 못함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깊이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는 상태
3점	관계형성 좁지만, 오래감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여 오래가는 상태
4점	관계형성 넓고, 오래감	친구들이나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람들과 폭넓게 어울리며,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며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는 상태

(9-3) 예절 : 인사/전화 예절, 공공장소의 에티켓을 얼마나 알고, 잘 지키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에티켓 모르고, 전혀 안 지키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모르고, 전혀 지키지도 않는 상태
2점	에티켓 알지만, 잘 안 지키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지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익숙하지 않아 잘 지키지 않는 상태
3점	에티켓 잘 알고, 잘 지키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잘 알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상태
4점	에티켓 잘 알고, 훌륭히 지키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여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잘 갖춰진 상태

(9-4) 시간관리 :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 일과 학업, 여가와 휴식 등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시간계획 없고, 실천도 안함	시간계획도 없고, 실천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하며 생활하는 상태
2점	시간계획 있지만, 실천은 안함	시간계획을 세워기는 하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아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상태
3점	시간계획 있고, 실천노력 함	시간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가끔씩 일을 미루는 상태
4점	시간계획 있고, 철저히 실천함	시간계획을 세우고, 자신 및 타인과의 약속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편으로, 시간관념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상태

(9-5) 준법여부 : 기본적인 생활법률 상식과 준법정신은 어떠한가, 실제로 법과 질서를 어느정도 지키는가?

점수	보기	평가기준 설명
1점	준법정신 희박, 대부분 안 지키	굳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처벌이 없다면 대부분 안 지키는 상태
2점	준법정신 약하고, 상황에 따라 지키	법은 할 수 없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손해(돈/시간 낭비) 여부에 따라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는 상태
3점	준법정신 보통, 항상 지키려고 노력함	법은 사회질서를 위해 웬만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지키려고 애쓰는 편이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종종 있는 상태
4점	준법정신 철저, 반드시 지키	법은 사회질서와 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남이 모든 안 모든 철저히 지키는 상태

다. 최종 문항 요약표

표 22. 자립준비 사정도구 최종문항 요약표

영역	요소		자립준비 내용	자립준비수준				총점 (평균)
				1	2	3	4	
1. 자립 의지	1-1	인생목표	인생의 목표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며 현실성이 있는가?					
	1-2	자립동기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는 얼마나 뚜렷한가?					
	1-3	자립 실천노력	자립하기 위한 실천 노력은 어느 정도이며,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생산적인 교훈을 얻은 적이 있는가?					
2. 주거 관리	2-1	주거지원 정보	주거지원에 관한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 (정부나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2-2	주거마련 계획	주거지 마련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주거지역, 주거형태, 주거비, 관리비 등)					
	2-3	집구하기	주거지 선택 전/후에 필요한 지식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 (주변환경 요건, 집 내부 점검, 전/월세 계약, 계약 후 신고사항)					
	2-4	집 관리	간단한 보수·유지나 집꾸미기 등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3. 직업 역량	3-1	직업 가치관	직업의 속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얼마나 뚜렷한가?					
	3-2	직업조사	관심 있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					
	3-3	희망 직업선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희망직업을 적절히 선택했는가?					
	3-4	구직기술	직업(직장)을 얻기 위한 구직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3-5	직장적응 기술	직장에 들어갈 경우 직면하는 대인관계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 직장적응에 필요한 기술은 어떠한가?					
4. 경제 관리	4-1	소비관리	자기 소득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소득 대비 지출비율을 얼마나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가?					
	4-2	저축관리	자기 소득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3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신용관리하고 있는가?					

영역	요소		자립준비 내용	자립준비수준				총점 (평균)
				1	2	3	4	
5. 자기 보호	5-1	신체건강	신체건강 관리를 위한 의지나 실천 여부는 어떠한가? (운동, 금주/금연, 음식조절, 수면조절 등)					
	5-2	정신건강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의지나 실천 여부는 어떠한가? (스트레스 관리, 분노조절, 게임중독 예방, 상담이용 등)					
	5-3	성보호	성(性)문제와 관련된 기초 성지식과 성인식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6. 학업 관리	6-1	학업의지	고졸학력 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있는가? (검정고시, 대학진학, 평생교육, 독학 등)					
	6-2	학습기술	공부하는 방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으며, 학습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공부방법 : 독서법, 필기법, 암기법, 시험전략)					
7. 자원 활용	7-1	공식자원	대중교통이나 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등의 공공서비스 이용방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7-2	비공식 자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					
8. 일상 생활 관리	8-1	음식관리	기본적인 식생활을 위해 식자재를 준비하고, 조리할 줄 알며, 음식물 뒷처리와 보관을 적절히 잘 할 수 있는가?					
	8-2	청소/세탁	생활공간의 청소 및 정리정돈, 의복 세탁 및 보관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8-3	안전관리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을 얼마나 잘 챙기며, 소화기 사용법 등의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9. 사회적 기술	9-1	용모관리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용모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9-2	관계형성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있고 오래도록 인간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는가?					
	9-3	예절	인사/전화 예절, 공공장소의 에티켓을 얼마나 알고, 잘 지키는가?					
	9-4	시간관리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 일과 학업, 여가와 휴식 등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9-5	준법여부	기본적인 생활법률 상식과 준법정신은 어떠한가, 실제로 법과 질서를 어느정도 지키는가?					
전체 (평균)	30요소		-					

라. 사례판정 결과지 (예시)

구분	자립준비영역 (요인 수)	가중치		평균치				가중치 환산점수	검토의견		
		배점	만점	1	2	3	4				
일반 (80)	자립의지(3)	×5	20				4.0	20.0	자립의지 매우 강함		
	주거관리(4)	×2	8			3.0		12.0	주거지원 정보가 많고, 주거마련계획이 구체적임		
	직업역량(5)	×3	12		2.0			6.0	직업역량이 저조한편		
	경제관리(3)	×3	12	1.7				5.1	경제관리능력 매우 취약함		
	자기보호(3)	×1	4		2.3			2.3	성보호 수준은 높지만, 신체/정신건강 관리 부족함		
	학업관리(2)	×1	4			3.0		3.0	고졸검정고시 의지 강하며, 공부방법이 효율적임		
	자원활용(2)	×1	4		2.0			2.0	공식/비공식 자원이 취약함		
	일상생활관리(3)	×2	8	1.3				1.3	음식, 세탁/청소 관리 취약하며, 안전의식과 준법정신도 약한편임		
	사회적기술(5)	×2	8		2.4			2.4	인사, 공공예절이 서투르며, 시간관리, 준법을 잘 안지킴		
	전체(30)	×20	80	평균: 2.4				54.1	중간수준의 자립준비상태		
고위험 (Y/N)	고위험영역	위험수준				적합성 (Y/N)	검토의견				
		저		고							
	자살문제	√				Y					
	중독문제	도박	√					Y			
약물		√				Y					
전문가 (20)	적합성			점수 부여	소견내용						
	하(1~7)	중(8~13)	상(14~20)								
		√							10	※ 심터퇴소 등의 자립지원 필요성, 약속이행 여부 등 자립지원관의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고, 자립준비를 위한 관심과 의지정도를 판단하여 기술	
종합판정	종합점수	64.1점									
	판정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입소									
	판정의견										
위원1 _____ (서명)		위원4 _____ (서명)		위원2 _____ (서명)		위원5 _____ (서명)		위원3 _____ (서명)		위원6 _____ (서명)	
20 년 월 일											
○○○청소년자립지원관											

[판정기준1] 종합점수 : “60점 이상”인 경우 입소 적합

[판정기준2] 고위험 영역 : “1개 이상” 고위험 수준일 경우 입소 부적합

[판정기준3] 조건부 입소 : 미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입소’ 판정

VII. 요약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실무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소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부록에 이 사정도구의 활용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퇴소청소년과 기타 취약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자립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차별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과정과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청소년 자립관련 척도 및 사정도구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기 사정도구를 비교·분석하여 직업, 학업, 건강, 주거, 경제, 자립의지, 사회기술, 일상생활, 자기보호 등의 자립준비 관련 변인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실증자료 수집을 위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종사하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의 특성, 초기사정도구, 종합판정시 필수 영역, 사정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 입소판정 절차 및 입소판정 결과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립준비 사정도구의 기초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기초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가진 학계·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초문항 개발 구성요인, 입소판정 결과지, 영역별 자립준비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문항들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자립준비영역으로 자립의지,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기술 9가지 영역에 30개의 자립준비 요소가 도출되었다. 각 자립준비영역별로 보면, 주거관리영역에는 주거지원정보, 주거마련계획, 집구하기, 집관리에 관한 4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직업역량영역에는 직업가치관, 직업조사, 직업선택, 구직기술, 직장적응기술에 관한 5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경제관리영역에는 소비, 저축, 신용관리에 관한 3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자기보호영역에는 신체건강, 정

신건강, 성보호에 관한 3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학업관리영역에는 학업의지, 학습기술에 관한 2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자원활용영역에는 공식, 비공식 자원에 관한 2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일상생활관리영역에는 음식, 청소/세탁, 안전관리에 관한 3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사회적기술영역에는 용모, 관계형성, 에티켓, 시간관리, 준범여부에 관한 5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자립준비 사정결과를 입소판정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장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소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입소판정시 고려할 범주는 일반범주, 고위험범주, 전문가범주 3가지이다. 일반범주는 자립준비 사정도구로 평정하는 9개 영역의 자립준비수준으로서 80%의 비중(80점 만점)을 두며, 전문가범주는 자립지원의 시급성이나 약속이행 여부, 기관의 서비스 목적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한 면접자의 전문적 소견 항목으로서 20%의 비중(20점 만점)을 둔다. 이 두 개 범주(일반영역, 전문가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100%(100점 만점)로 계산한다. 고위험범주는 자살문제와 중독문제(도박, 약물) 가운데 하나라도 고위험 수준일 경우 입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고위험범주의 평가는 별도의 검증된 검사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립준비수준 평정점수(A)와 전문가 점수(B)의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영역의 위험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 2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소판정이 가능하다.

보완된 기초문항에 대해서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개 문항 모두 CVI가 .60 이상으로 문항들의 구성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의 중요도 범위, 명료성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서는 평정과정과 결과측면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는데, 평정과정 측면에서는 인터뷰시 사정도구 문항별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질문을 적절히 변형하고, 문항에 따른 예시를 추가하였으며, 평정결과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점수가 평정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 논의 후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고 예시를 보완하였다.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청소년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조사에서는 평정자 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서로 다른 평정자가 1명의 청소년에 대해 자립준비수준을 평정하였다. 그 결과, 개별문항별 평정자 간 일치도를 알 수 있는 카파계수(k)가 .60~.70대 사이로 높거나, .40~.50대 사이로 양호한

일치도를 보였으며, 영역별 중요도를 반영한 총점이 평정자 간 신뢰도인 ICC는 .890(.847~.921)으로, 2명의 서로 다른 평정자가 89.0% 일치할 확률을 보였다. 또한 개별 문항과 총점 간 상관정도를 스피어만 상관계수(r)로 확인한 결과, 에티켓($r=.185^*$)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들이 $r=.30\sim.60$ 대의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문항내적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는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현장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모든 문항들의 타당하였고(CVI>.60),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에서도 문항들의 평정자간 일치도가 대부분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수집된 약간의 어휘 및 문맥수정 외에 모든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최종 자립준비도 사정도구 30문항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각 문항별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수준별(1점~4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2.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립준비 사정도구는 아래와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된 사정도구를 활용할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희망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실천현장 실무자의 개인변인에 따른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와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소판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기존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할 경우 평정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심층면접 방식으로 심도있게 사정할 수 있는 본 사정도구는 다른 사정도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맞춤형 개입을 통해 단기적인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층면접을 통해 청소년의 표면화된 자립준비 문제 외에도 심리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자원 연계 및 심리적 지원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정도구는 사전에 자립지원 실천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영역들을 단기간에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용성과 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 적절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취약청소년 스스로도 현재의 자립준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자립준비 요소들을 인식하고, 어떤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지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층면접 과정에서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본 사정도구 활용을 통해 다양한 영역별 청소년의 자립준비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 수립시 자립지원 유형별 분석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적 측면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대상자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 데이터가 축적되면 입소대상 청소년의 유형분류를 통해 유형별 표준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개입효과 측정을 위한 자립준비도 척도 및 자립준비영역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과 함께 본 연구의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자립준비 사정도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면접지는 현장실무자가 면담을 통해 청소년의 응답반응을 살피며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점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입소판정결과지 작성시 자립준비영역에 대한 배점과 함께 전문가의 주관적 평정이 입소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무자 변인을 최소화하여 체계적 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사정도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장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입소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화된 교육이 운영됨으로써 실무자의 전문 자립지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급 실무자도 심층면접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자립준비에 대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별사례에 대한 입소사례판정결과를 입력하여 전국적 자료를 구축하는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누적자료는 추후 연구 활용 및 자립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구대상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할 대상, 즉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등의 취약청소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자립문제를 안고 있는 복지부의 시설보호 종료아동, 법무부의 청소년자립생활관 퇴소자, 기타 자립지원 관련 청소년시설의 모든 대상자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배 (2008). 일본의 청소년자립지원정책에 관한 분석-노동복지와 시민권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6(3), 29-38.
-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 (2012).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93-222.
-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시설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9.
- 구분용, 유제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구현영 (2013).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사정을 위한 부모용 도구 개발. **한국아동간호학회**, 19(1), 29-38.
- 김경희, 김지수, 김미진, 정승교 (2007). 청소년의 자아개념, 자극추구특성 및 가출 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6(4), 348-356.
- 김남욱 (2008).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장기 청소년 쉼터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명성 (2012).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연 (2010). 그룹홈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24, 8-38.
- 김미희 (2008). **양육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비교**.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2009). 아동사례관리의 욕구사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정도구 개발과 욕구추출 알고리즘 과정 연구 : 데이터 마이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36(2), 167-189.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 김은녕, 서보람 (2018). 가출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 일시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8(12), 197-207.
- 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113-144
- 김인아, 조진영 (2008).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원**, 14(3), 189-210.
-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시설 십대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십대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 김지민, 손진희 (2017). 청소년상담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 : 비행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0(1), 33-58
- 김지선, 이정애, 김보옥, 정익중 (2018). 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기술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0(2), 45-65.
- 김지연, 백혜정, 최수정 (2017).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향희, 김정완, 허지희, 김덕용, 성수진 (2008). 실어증 선별검사 개발을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 **언어청각장애연구**, 13(3), 353-380
-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가정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 혁 (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 생활 및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1), 95-117.
- 노충래 (2009).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사정도구 개발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 문성호, 박지원 (2018).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2), 257-279.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영란, 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 91-116.
- 박영호, 김태익 (2002). 가출 예측 척도에 의한 여중생들의 가출 요인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0(2), 81-99.
- 박은선 (2005). **이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창남 (2015). 비진학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 분석: 영국의 PM Training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215-237.
- 배문조, 전귀연 (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개인, 가족, 학교환경.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배영태 (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22(3), 69-96.
- 배주미, 이은경, 허지은 (2009). 가출 청소년을 위한 단기쉼터 초기사정 매뉴얼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49.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청소년상담 연구**, 157.
- 서은경, 윤옥경 (2008). 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1)**. 118-141
- 손혜옥, 최외선, 이미옥 (2008). 시설청소년의 자립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3(4), 185-203.
- 신혜령 (2000).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1), 90-124.
- 신혜령, 김보옥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1), 29-49.
-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167-193.
- 안윤숙, 김홍주 (2016).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보호소년의 사회복지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정연구**, 26(4), 233-255.
- 안윤숙, 천중호 (2016).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센터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7(4),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양점도, 변미희 (2001). 아동복지시설의 양육환경이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3(2), 13-23.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수생, 변상해 (2012).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변인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95-205.
- 원지영 (2008). 아동복지시스템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 현황과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7), 79-107.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 이경상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실태. **청소년학연구**, 18(10), 341-362.
- 이나현, 조운오 (2019). 범죄 유형별 범죄 욕구 차이 연구 :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춘계학술대회**
- 이상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2), 71-91.
- 이용교. (2006). 새터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8(1), 51-67.
- 이정애 (2017). **가정의보호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혼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정익중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위험요인이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 영향 :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3), 95-126.
- 이종성, 박영숙 (2001). 보호시설 가출청소년의 정신병리에 대한 평가와 분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192-215.
-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여자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3(3), 161-179.
- 이혜연, 서정아, 조홍식, 정익중, 김귀랑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28
- 이혜은, 최재성 (2008).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2), 209-233.
- 장정은, 전종철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 장주현, 김정애(2015). 퇴소를 앞둔 중장기 쉼터입소 가출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24.
- 전민정, 신용연 (2018).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정책보고서**, 2018-16.
- 정경미 (2009). 시설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 및 자립준비도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2, 33-50.
- 정문진, 김수정 (2016). 쉼터 청소년 자립준비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42(1), 177-207.
- 정선옥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68.
- 정영선 (2015).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금융교육과 금융행위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시민교육연구**, 47(3), 235-267.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혜경, 권혜진 (2001). 청소년 가출에 관한 예측모형. **정신간호학회지**, 10(1), 76-86.
- 조규필 (2011). 취약청소년 자립준비요인 탐색 및 시사점. **청소년복지연구**, 13(2), 97-120.
- 조규필 (2013).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규필 (2014).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6(2), 273-310.
- 조규필, 김기현, 김수진, 윤제현 (2018).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1), 413-438.
- 조규필, 정경은 (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3), 267-292.
- 조순실 (2011). **그룹홈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향한 삶의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아미, 임정아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 총서 18-58-02.

- 조운정, 주경필 (2018).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들의 자립과정에서의 저항과 자유갈망. **청소년문화포럼** 54.
- 최경아 (2007).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 김수정 (2018). 그룹홈 퇴소 청소년의 자립 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44(3), 211-245.
- 최은숙, 이태연 (2015).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445-468.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2017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한복남, 김혜진, 이선영 (2005).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자립요인 탐색에 대한 현장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회 학술 대회 자료**, 385-392.
- 현은민 (2000). 청소년의 가출: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2), 41-55.
- 황순길, 조규필, 박현진, 김범구, 황수진, 신정란, 윤재희 (2013).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 연구보고** 2013-26.
- 황정하, 박수지 (201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4(9), 119-143.
- Acorn, S. (1993).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homeless persons who use emergency shelters in Vancouver. *Psychiatric Services*, 44(9), 854-857.
- Ansell, D., Morse, J., & Nollan, K. (2001). Description of ACLSA and Life Skills Guidebook. *Casey Family Programs*. NY: Sage publications.
- Aday, L. A. (1993). Indicators and Predictors of Health Services Utilization. In Willams SJand Torrens PR(Eds), *Introduction to health services(4thed.)*, 46-70. Albany, NY: Delmer.
- Ben-Ami, N., & Baker, A. J. (2012) The Long-Term Correlates of Childhood Exposure to Parental Alienation on Adult Self-Sufficiency and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 169-183
- Bulat, L. R.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veness in children in public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4), 412-423.
- Cook, R. D. (1986). Assessment of local influenc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48(2), 133-155.
- Cook, R. J., & Ansell, D. I. (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s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Prepared for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D: Westat.

- Courtney, M. E., Dworsky, A., Ruth, G., Keller, T., Havlicek, J., & Bost, N. (2005). *Midwest evaluation of the adult functioning of former foster youth: Outcomes at age 19*.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 Courtney, M. E., Terao, S., & Bost, N. (2004). *Midwest evaluation of the adult functioning of former foster youth: Conditions of youth preparing to leave state care in Illinoi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 David, L. M.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김성재.오상은.은영.손행미.이명선 역), 서울: 군자출판사. (1996년 원저 발간).
- Daniel Memorial Institute (2004). Daniel Memorial Independent Living Assessment for Life Skills. Retrieved December 01, 2012 from www.danielkids.org.
- Dixon, J., & Stein, M. (2005). *Leaving care: Throughcare and aftercare in Scotlan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English, D. J., Kouidou-Giles, S., & Plocke, M. (1994). Readiness for independence: A study of youth in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3-4), 147-158.
- Fehring, R. J. (1987). Methods to Validate Nursing Diagnosis. *Heart & Lung, 16*, 625-629
- Freundlich, M. & Avery, R. J. (2006). Transitioning from congregate care: Preparation and outcomes. *J Child Fam Stud, 15*, 507-518.
- Hahn, D. (1994). Unternehmungsziele im Wandel. In *Unternehmerischer Wandel* 59-83.
- Lemon, K., Hines, A. M., & Merdinger, J. (2005). From foster care to young adulthood: The role of independent living programs in supporting successful transition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 251-270.
- Iglehart, A. P. (1994). Kinship foster care: Placement, service, and outcome issu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1-2), 107-122.
- Nollan, K. A., Wolf, M., Ansell, D., Bums, J., Barr, L., Copeland, W., & Paddock, G. (2000). Ready or not: assessing youths'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 Welfare, 79*(2).
- Mallon, G. P. (1994). *Life skills for living in the real world*. New York: Green Chimneys Children's Services, Inc.
- Mallon, G. P. (1998). After care, then where? Out comes of an independent living program. *Child welfare, 77*(1), 61-78.
- Malucci, R. D. (1990). Multispot model of contacts based on surface features. In *Thirty-Sixth IEEE Conference on Electrical Contacts, and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Contacts, 625-634.

- Maluccio, A. N., Krieger, R., & Pine, B. A. (1990). Adolescents and their preparation for Life after Foster family care: An overview. In A. Maluccio, R. Krieger, B. pine(Eds.), *Preparing adolescents foe life after foster care*, 5-17.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Montgomery P., Donkoh C., & Underhill, K. (2006). Independent living programs for young people leaving the care system: The state of the evid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 1435-1448.
- Mouw, T. (2004). "The effect of timing and choice on the future of young adulthood." *Policy Brief, 8*, 1-3.
- Nacarato, T., DeLorenzo, E., Park, A. L. (2008). A Rapid Instrument Review (RIR) of Independent Living Program (ILP) Evaluation Tools. *Journal of Public Child Welfare, 2*(2), 253-267.
- Nho, C. R., Park, E. H., & McCarthy, M. L. (2017). "Case studies of successful transition from out-of-home placement to young adulthood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9*, 315-324.
- Pinkerton, J., & McCrea, R. (2018). *Meeting the Challenge: Young People Leaving Care in Northern Ireland*. Routledge.
- Powell, M (1963).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The BobbsMerill Co., Inc.
- S. Georgiades. (2005). Initial internal consistency evidence on the Daniel Memorial Independent Living Assessment: A research not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8)-921-930.
- Sherman, L. W. (1992). Attacking crime: Police and crime control. *Crime and justice, 15*, 159-230.
- Sparks, S. M., & Lien-Gieschen, T. (1994). Modification of the diagnostic content validity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Knowledge, 5*(1), 31-35.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1999). *Title IV-E Independent Living Programs: A Decade in Review*.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rd, V. G., & Riddle, D. I. (2003). *Measuring Employment Readiness*. NATCON Papers 2003 Lesactes du CONAT.
- Westat, Inc. (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s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Contract # OHDS 105-84-1814. Prepared for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D: Westat, Inc.
- Whitbeck, L. B., Hoyt, D. R., & Bao, W. N. (2000). Depressive symptoms and co

occurring depressive symptoms, substance abuse, and conduct problems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1(3), 721-732.

Whitbeck, L. B., Johnson, K. D., Hoyt, D. R., & Cauce, A. M. (2004). Mental disorder and comorbidity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5(2), 132-140.

<기타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0년 10월 26일 인출.

<법령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0년 10월 26일 인출.

자립준비 사정도구(AILR) 매뉴얼

1. 사정도구 소개	101
2. 사정도구의 활용	104
3. 자립준비 사정도구(AILR) 질문지	108
4. 고위험영역 위기수준 평가지(자살, 도박, 약물).....	125
(1)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125
(2)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128
(3) 약물 선별 설문조사 (DAST—Korean).....	130
5. 자립준비 사정을 위한 사전점검 리스트*.....	132
6. 사례 판정 결과지	133
7. 자립준비 사정 가이드라인	134

1. 사정도구 소개

가. 사정도구의 검사목적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희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립준비 수준을 사정함으로써 적합한 대상인지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특히, 입소판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때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할 경우 평정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심층면접 방식으로 심도있게 사정할 수 있는 본 사정도구가 더욱 필요함
- 적절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의 자립준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자립준비 요소들을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맞춤형 개입을 통해 단기적인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함에 있음
- 심층면접을 통해 청소년의 표면화된 자립준비 문제 외에도 심리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자원 연계 및 심리적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음

나. 사정도구의 특징

- 심층면접을 통해 자립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사정도구
 - 자기보고식 척도에 비해 평정결과의 왜곡이 적고, 내담자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자립준비의 문제를 둘러싼 심리사회적 특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음
 - 심층면접 과정에서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어 내담자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짐
 - 인터뷰를 통해 평정이 이루어지는 사정도구의 특성상 평정자에 따라 평정결과가 상이할 우려가 있지만, 본 사정도구는 평정자간 신뢰도가 높아 평정지침을 준수할 경우 평정자가 달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다른 수집된 정보와 함께 활용하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 본 사정도구는 내담자의 인지적, 정의적 자립준비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평정하므로,

사전에 수집된 사실적인 정보를 함께 활용할 경우 좀 더 평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부록1의 6번 ‘자립준비 사정을 위한 사전점검 리스트’ 참고)

다. 사정도구의 구성 및 타당성

○ 사정도구의 구성

- 사정도구는 자립준비 관련 9개 영역, 30개 요인(30문항)으로 구성됨

○ 사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 전문가의 내용타당도가 양호함 (CVI>.60)

- 평정자 간 일치도가 모두 양호함 (Kappa 계수>.40)

※ 2명의 평정자가 시행한 경우 평정결과 일치 확률 : 89% (ICC=.89)

- 전체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높은 신뢰도를 보임 (Cronbach' s α =.904)

영역	요소(문항)	CVI	kappa 계수	r
자립 의지	1. 인생목표	0.88*	0.467***	.668**
	2. 자립동기	0.95*	0.539***	.609**
	3. 자립실천노력	0.90*	0.510***	.665**
주거 관리	4. 주거지원정보	0.83*	0.672***	.533**
	5. 주거마련계획	0.90*	0.498***	.668**
	6. 집구하기	0.85*	0.591***	.661**
	7. 집 관리	0.68*	0.600***	.392**
직업 역량	8. 직업가치관	0.85*	0.488***	.628**
	9. 직업조사	0.88*	0.391***	.485**
	10. 직업선택	0.75*	0.487***	.473**
	11. 구직기술	0.85*	0.470***	.578**
	12. 직장적응기술	0.85*	0.551***	.594**
경제 관리	13. 소비관리	0.88*	0.539***	.533**
	14. 저축관리	0.95*	0.475***	.662**
	15. 신용관리	0.85*	0.506***	.303**
자기 보호	16. 신체건강	0.78*	0.756***	.343**
	17. 정신건강	0.80*	0.578***	.356**
	18. 성보호	0.80*	0.626***	.404**
학업 관리	19. 학업의지	0.73*	0.558***	.334**
	20. 학습기술	0.60*	0.602***	.561**
자원 활용	21. 공식자원	0.85*	0.479***	.454**
	22. 비공식자원	0.90*	0.592***	.291**
일상 생활 관리	23. 음식관리	0.78*	0.628***	.432**
	24. 청소/세탁	0.80*	0.650***	.501**
	25. 안전관리	0.80*	0.563***	.407**
사회적 기술	26. 용모관리	0.75*	0.551***	.438**
	27. 관계형성	0.88*	0.713***	.352**
	28. 예절	0.80*	0.525***	.185*
	29. 시간관리	0.78*	0.664***	.482**
	30. 준법여부	0.80*	0.524***	.271**

2. 사정도구의 활용

가. 검사대상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퇴소 청소년으로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서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
- 우선지원 대상 연령 : 19~24세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법적 정의 참고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 2호)

나. 검사방법

- 입소판정을 위한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① 『자립준비 사정을 위한 사전점검 리스트』 활용하여 자립준비 관련 팩트 체크
- ② 『자립준비 사정도구(AILR)』를 사용하여 자립준비 수준 평정
- ③ 위기수준 평가지(SSI, CAGI, DAST-Korean)를 사용하여 고위험 수준 파악
- ④ 전문가 소견 점수 부여
- ⑤ 종합점수 산출 및 종합판정

- 사전점검 리스트는 사전에 수집한 자립준비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여 작성하며,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사정할 때 객관성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 수집자료 : 입소신청서,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서, 초기면접 사정기록지, 자립지원 대상자 추천서 등

- 위기수준 평가는 자살문제 및 중독문제(도박, 약물)의 위험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만약 고위험 수준일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자살생각 척도(SSI),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약물 선별 설문조사 (DAST-Korean)

- 전문가 소견 점수 부여시 확인된 정보 외에도 자립지원서비스 시급성, 입소 후 약속이행 의지, 자립지원관의 서비스 목적에 부합되는지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1~20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 전문가 점수 범위 : 하(1~7점), 중(8~13점), 상(14~20점)
- 종합점수는 자립준비영역 점수와 전문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검사결과의 산출

- 자립준비영역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체 30개의 문항은 각각 1~4점씩 부여
- ② 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균점수 계산
 - ※ 가중치 점수 : 1~4점(1배) / 2~8점(2배) / 3~12점(3배) / 5~20점(5배)
- ③ 자립준비 영역 전체의 총점 계산 : 20~80점 범위
- ④ 전체 평균 점수 산출 : 총점을 가중치 합계(20)로 나눔
 - ※ 전체 자립준비수준 평균 : 전체 총점 ÷ 20

- 고위험영역의 적합성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다.

- ① 3개의 고위험영역 평가도구(자살, 도박, 약물) 검사결과에 각 위험수준을 “저”, “고” 로 판단하여 표시
- ② 위험수준이 “고” 인 경우 부적합(No)으로 표시
- ③ 고위험영역(3개) 중 1개라도 부적합이 있을 경우 입소 부적합 판단

- 전문가 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문가 소견 내용 작성
 - ※ 자립지원의 시급성(쉼터 퇴소 등의 이유), 약속이행 의지(상담약속, 자립계획 실천 등), 서비스목적의 부합성(자립지원관의 운영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여부 기록
- ② 입소 적합성을 상, 중, 하로 표시
- ③ 점수부여는 주관적 판단 점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상, 중, 하 구간별 점수범위 내에서 부여
 - ※ 점수 구간 : 1~7점(하 구간), 8~13점(중 구간), 14~20점(상 구간)

<자립준비 사정도구 평정 기준표>

범주	자립준비영역	요인 (문항수)	결과점수 산출		
			평균점수범위	가중치(배점)	가중 평균점수범위
일반 (80)	자립의지	3개	1~4점	×5	5~20
	주거관리	4개	1~4점	×2	2~8
	직업역량	5개	1~4점	×3	3~12
	경제관리	3개	1~4점	×3	3~12
	자기보호	3개	1~4점	×1	1~4
	학업관리	2개	1~4점	×1	1~4
	자원활용	2개	1~4점	×1	1~4
	일상생활관리	3개	1~4점	×2	1~8
	사회적기술	5개	1~4점	×2	1~8
	전체	30개	1~4점	×20	20~80
고위험 (Y/N)	고위험영역		위험수준		적합성
			저	고	
	자살문제				Yes / No
	중독문제	도박문제			Yes / No
약물문제				Yes / No	
전문가 (20)	적합성				점수부여
	하(1~7)	중(8~13)	상(14~20)		
		√			10
종합판정	판정기준 1	종합점수 60점 이상일 때 : 입소 적합			
	판정기준 2	고위험 수준이 1개 이상일 때 : 입소 부적합			
	판정기준 3	미확인 사항이 있을 때 : 조건부 입소			

라. 입소판정 방법

- 입소판정시 일반범주, 전문가범주, 고위험범주 3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함
 - 일반범주 : 자립준비수준의 전체점수를 80%의 비중(80점 만점)으로 함
 - 전문가범주 : 자립지원의 시급성이나 약속이행 여부, 기관의 서비스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며, 전문적 소견 점수를 20%의 비중(20점 만점) 함
 - 고위험범주 : 자살문제나 중독문제를 지닌 대상은 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고위험영역에서 1가지라도 위험수준이 높을 경우 입소대상에서 제외함

- 입소판정 기준
 - 판정기준 1 : 자립준비영역 점수(A)와 전문가 점수(B)의 합계점수(C)가 60점 이상이어야 입소 적합
 - 판정기준 2 : 고위험영역의 위험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 입소 적합
 - 판정기준 3 : 입소 적합 대상이더라도 미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입소 판정을 내릴 수 있음

<적합판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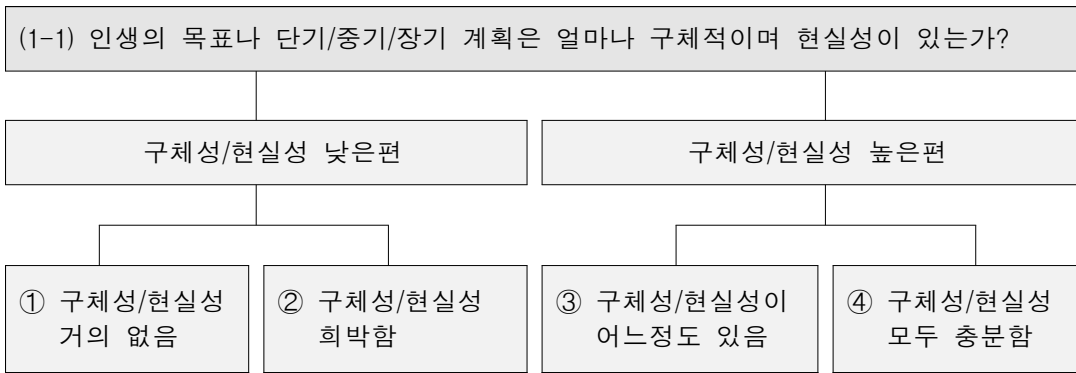
- ① 자립준비영역(A) + 전문가 소견(B) = 전체(C) : 60점 이상
- ② 고위험영역(D) : 2개(자살문제, 중독문제) 모두 위험수준이 낮음
- ③ 적합판정 : ①과 ② 모두 동시에 충족할 경우

3. 자립준비 사정도구(AILR) 질문지

자립준비 사정도구

(Assessment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 AIL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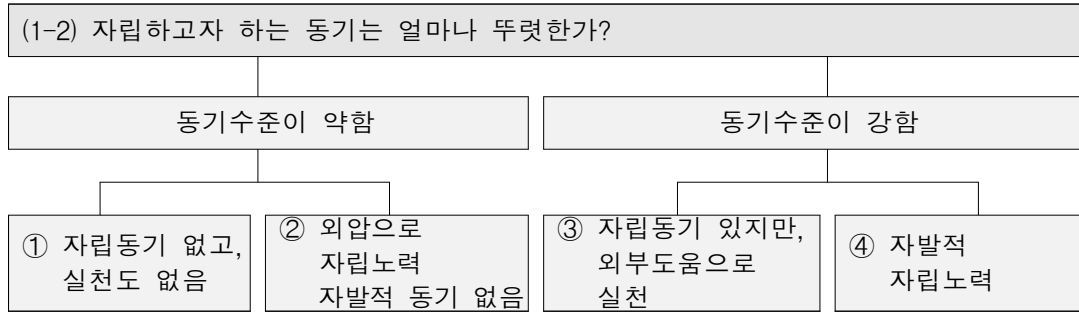
1. [영역1] 자립의지 / (1-1) 인생목표



【 자립준비수준 평가 기준 】

1점	인생의 목표나 단기/중기/장기계획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음
2점	단기적인 자립계획을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중기/장기계획에 대한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희박하고 막연한 상태 ※ 단기계획 : 3개월 내외로 실천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 단기 아르바이트, 건강관리 계획 등
3점	단기/중기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인생목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지만, 실천계획이 충분치 않은 상태 ※ 중기계획 : 1~2년 사이 주거마련, 취업, 자격증 취득 계획 등
4점	인생의 목표나 단기/중기/장기계획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봤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장기계획 : 3~10년 사이 이루고 싶은 목표달성 계획, 인생목표의 성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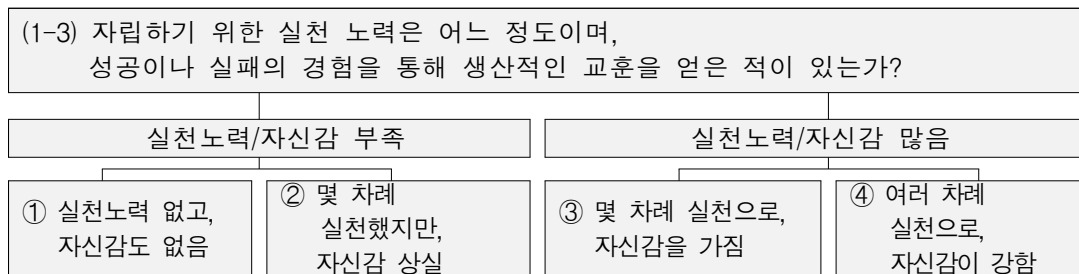
2. [영역1] 자립의지 / (1-2) 자립동기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도 없고, 자립을 위한 실천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자립무동기)
2점	주변의 압박 때문에 자립 노력을 할뿐, 스스로 자립하려는 동기가 없는 상태 (외적 자립동기)
3점	자립동기는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주변의 압박이나 도움을 받아야만 실천행동을 보이는 상태(내사된 자립동기)
4점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자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확인된 자립동기) ※ 예)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자립계획을 세워보거나, 자격증 공부 하기

3. [영역1] 자립의지 / (1-3) 자립실천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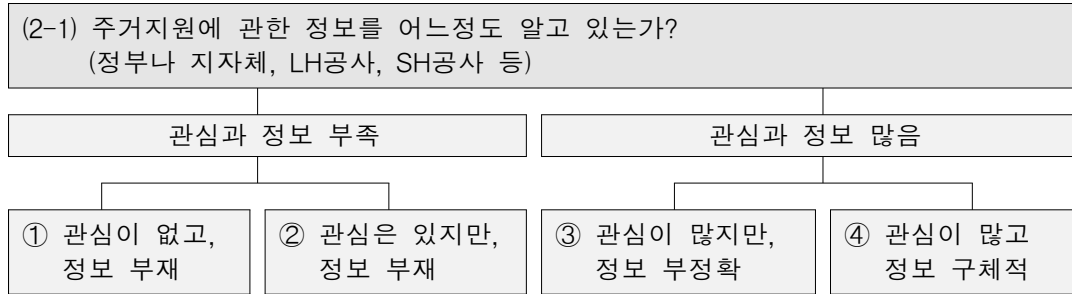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자립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
2점	자립하기 위해 몇 차례 실천해봤지만, 실패경험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
3점	자립하기 위해 몇 차례 실천을 통해, 실패나 성공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된 상태
4점	자립하기 위한 여러 차례 계속해서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패나 성공경험을 통해 생산적인 교훈을 얻어 자신감이 강한 상태

※ 주) 자립실천 노력 예시 : 취업 면접, 자격증 시험, 직업훈련학원 등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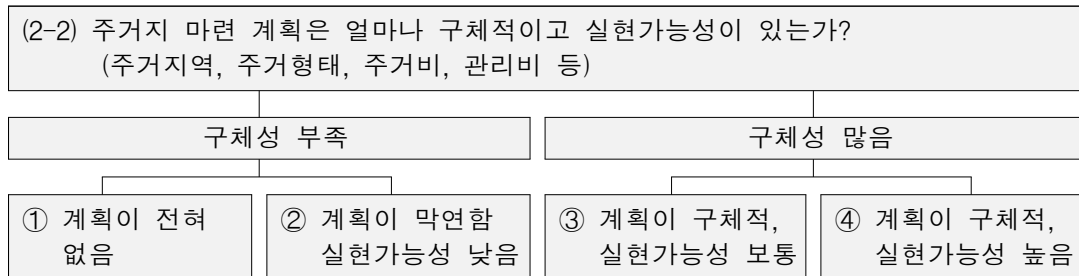
4. [영역2] 주거관리 / (2-1) 주거지원 정보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이 없고, 알고 있는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
2점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 알아보거나 아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
3점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이 많고, 직접 알아 본 적도 있지만, 알고 있는 정보가 다소 부정확한 상태
4점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이 많고, 직접 알아 본 적도 많으며, 실제로 알고 있는 정보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태

5. [영역2] 주거관리 / (2-2) 주거마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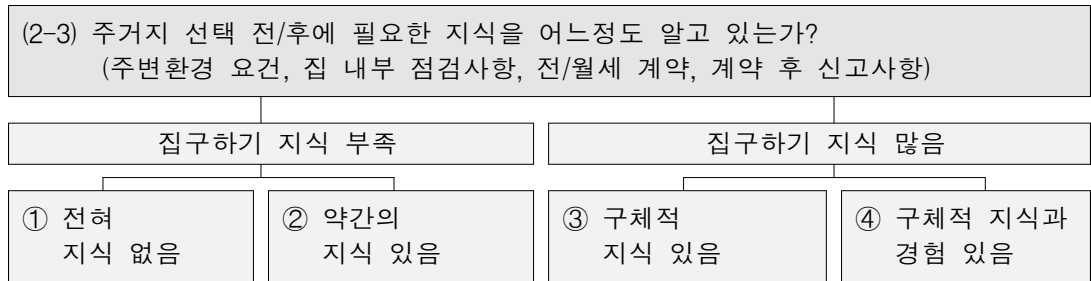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주거지 마련 계획이 전혀 없으며, 필요성도 못 느끼는 상태
2점	주거지 마련 계획이 막연하며,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태 (주거 지역, 전/월세 형태는 생각해봤지만, 비용 마련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음)
3점	주거지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다소 있음 (주거 지역, 전/월세 형태를 결정하고, 비용 마련 계획이 있음)
4점	주거지 마련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 (주거지역, 전/월세 형태를 결정하고, 주거지와 관리비 마련방법까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 주) 주거마련 계획은 대부분 경제적인 면에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능력이나 자금마련방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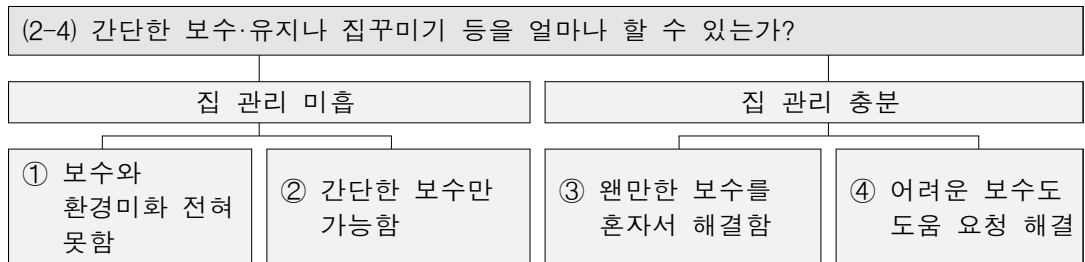
6. [영역2] 주거관리 / (2-3) 집구하기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주거지 선택에 필요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주거지 선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는 상태
3점	주거지 선택시 집 내부 점검사항과 계약 후 전입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 확인 등 구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
4점	주거지 주변환경 요건, 주거지 선택시 집 내부 점검사항, 계약 후 전입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 확인 등 구체적인 지식이 충분하고, 직접 임대 경험이 있는 상태

7. [영역2] 주거관리 / (2-4) 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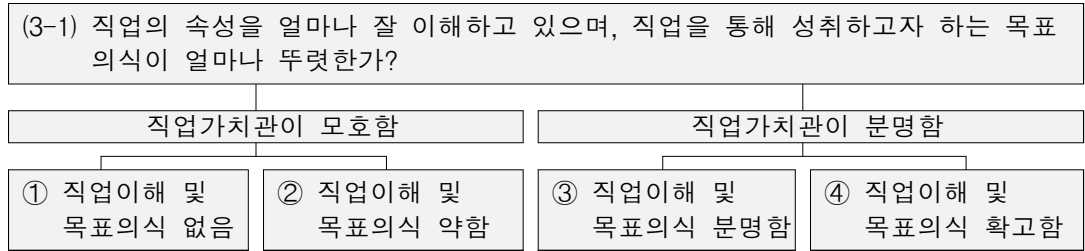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주거시설의 보수·유지나 시설환경을 꾸미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상태
2점	주거시설이나 가전제품 등이 고장났을 때, 간단한 교체 정도만 가능한 상태 (예: 형광등 교체, 건전지 교환 등)
3점	주거시설이나 가전제품 등이 고장났을 때, 웬만한 보수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 (예: 변기/하수구 막힘 뚫기, 블라인드 설치 등)
4점	주거시설 결함이나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능숙하게 보수하고, 관련 업체나 집주인에게 설득력 있게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뛰어난 상태 (예: 싱크대 보수, 가전제품 수리, 벽면 곰팡이나 누수 등)

【 2-3. 집구하기 Tip 】

구분	항목	확인 내용
주거지 주변환경 여건	교통	- 직장(또는 학교, 직업훈련기관)과의 거리가 적절한가? -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편 이용이 편리한가(거리, 노선 수)?
	편의시설	-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집 주변에 있는가? - 병/의원, 약국이 집 주변에 있는가? - 도서관, 파출소,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시설이 집 주변에 있는가?
	주변환경	- 공원이나 산책로 등이 집 주변에 있는가? - 유흥가나 혐오시설(소음, 악취, 매연 등)은 없는가? - 지나치게 외진 곳이거나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은 아닌가?(귀가 시 안전) - 집주변 사각지대에 CCTV는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주거지 시설점검 사항	화장실	- 수도꼭지 물 새지 않는가? - 변기 및 욕조 배수구 물은 잘 내려가는가? - 수도, 샤워기 수압은 적절한가?
	벽면	- 벽에 금이 가지는 않았나? - 벽면이나 천정에 곰팡이나 누수 흔적은 없는가? - 도배상태는 깨끗한가?
	창문/도어	- 창문이 충분하고 환풍기 설치 등 환기는 잘 되는가? - 창문 방충망에 뜯어진 부분은 없는가? - 창문/도어의 잠금장치는 튼튼한가?
	냉난방/조명/ 설비	- 보일러 작동은 잘 되는가? -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가? - 전등 조명이 고장난 것은 없는가? - 가스밸브 잠금 여부는 안전한가?
	비품, 가구	- 쌓크대 수납공간은 넉넉한가? - 냉장고, 침대, 책상, 소파 등의 큰 비품 사용이 가능한가?
	소음	- 낮/밤에 외부 소음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상가건물 등) - 층간소음이 취약한 건물은 아닌가? (윗집/아랫집 세대구성 확인)
	관리비	-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등 월평균 관리비는 얼마나 되나?
집 계약하기	소유주 확인	- 계약당사자의 얼굴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 집의 실제 소유주와 계약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에 적힌 권리등재내용(가압류/근저당/임차권) 확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야 함 - 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함
	계약후 신고사항	-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임대차 확정일자 확인 :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함

8. [영역3] 직업역량 / (3-1) 직업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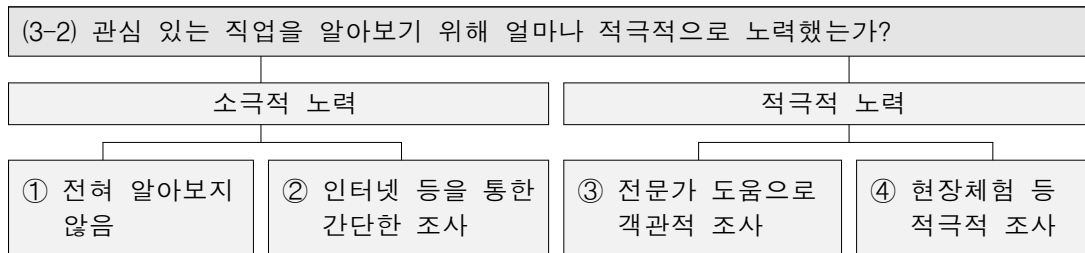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직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
2점	직업의 속성을 조금 이해하고 있지만,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다소 희박한 상태
3점	직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상태
4점	직업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과 자기성장에 대한 도전의식이 매우 확고한 상태

※ 주) 직업의 속성 : 경제성(생계유지 수단), 사회성(사회발전에 기여), 합법성(사기, 도박, 매춘, 조폭 등 위법적인 행위가 아님), 지속성(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자발성(타인이나 법적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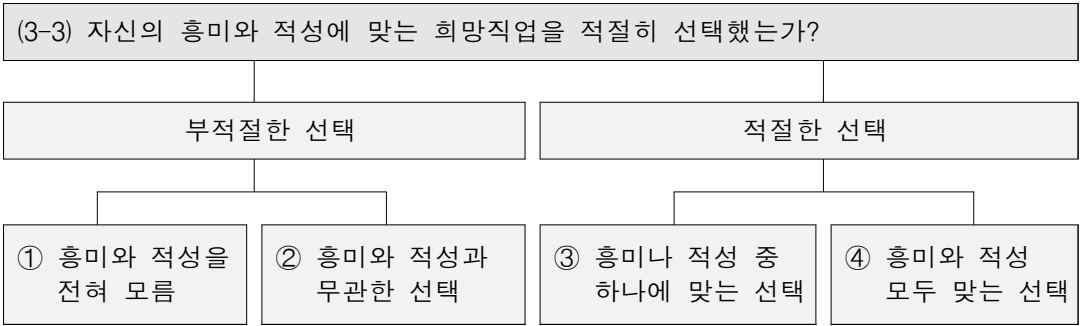
9. [영역3] 직업역량 / (3-2) 직업조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거의 알아본 적이 없는 상태
2점	주변의 조언이나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관심 직업을 간단히 알아 본 상태
3점	청소년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직업상담이나 직업적성검사, 한국직업사전 등을 통해 관심 직업분야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해 본 상태 (※ 청소년 전문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4점	고용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워크넷 구직등록, 관심분야의 직업인 만남, 직업현장 체험 등을 통해 관심 직업분야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본 상태 (※ 고용 전문기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10. [영역3] 직업역량 / (3-3) 희망직업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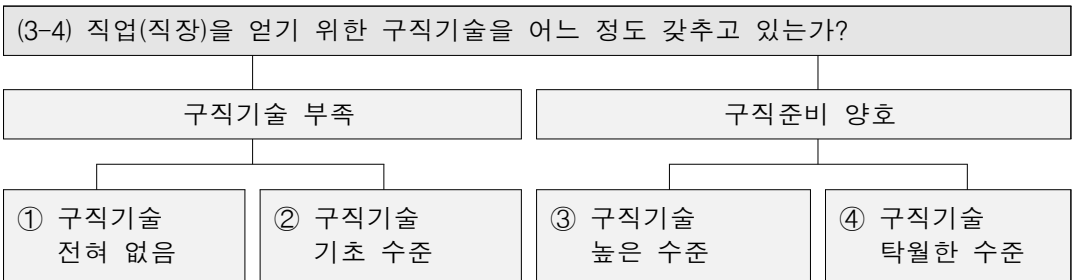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자신의 직업흥미(좋아하는 직업)와 직업적성(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잘 모르는 상태
2점	자신의 직업흥미와 직업적성을 알지만 이와 무관한 직업을 정한 상태
3점	자신의 직업흥미나 직업적성 중 한 가지를 고려하여 직업을 정한 상태 (예: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재능은 없는 사람이 요리사 직업을 희망함)
4점	자신의 직업흥미와 직업적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히 직업을 정한 상태 (예: 음식 만들기 취미가 있으면서 재능도 있는 사람이 요리사 직업을 희망함)

※ 주의) 직업선택은 직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직업을 마음에 결정했는지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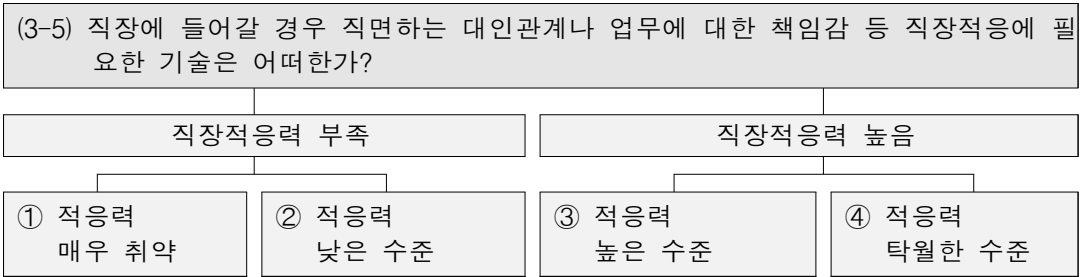
11. [영역3] 직업역량 / (3-4) 구직기술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구직기술을 갖추거나 기초적인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2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 기본적인 구직기술이 있는 상태
3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등의 구직기술이 적절히 갖추어진 상태
4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습득 외 자격증 취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구직기술을 갖추고 있어 구직준비가 충분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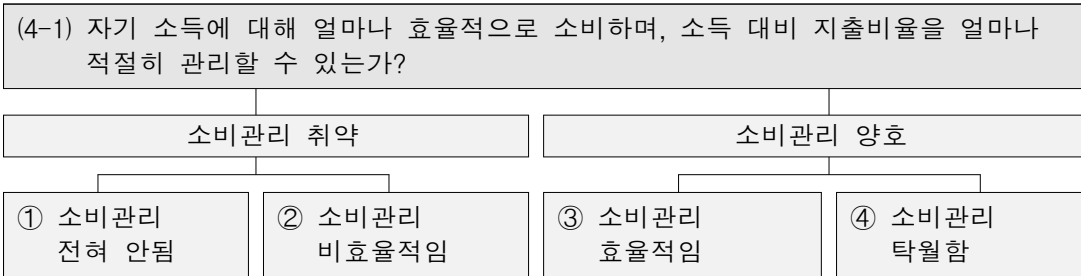
12. [영역3] 직업역량 / (3-5) 직장적응기술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어 직장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
2점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에 부담이 없지만, 시간관리(출근시간 준수 등)와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여 직장에서의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
3점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부담이 없고, 시간관리(출근시간 준수 등)와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만, 부정적 상황(부당한 대우, 퇴직시 대처 등)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
4점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자신감이 있고, 시간관리(출근시간 준수 등)와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며, 부정적 상황(부당한 대우, 퇴직시 대처 등)에서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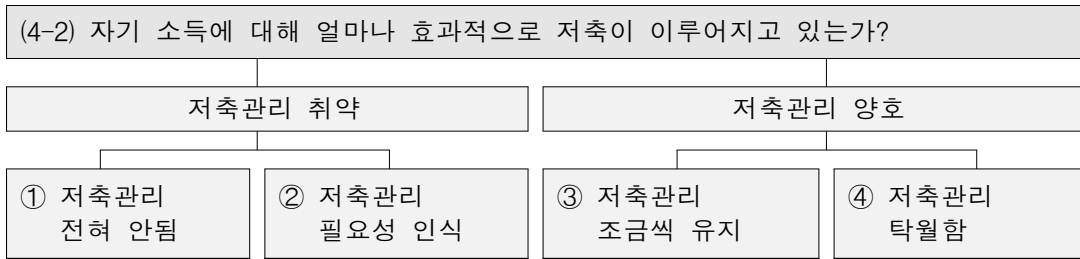
13. [영역4] 경제관리 / (4-1) 소비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자기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총동구매 등의 무분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보다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2점	자기 소득 내에서 소비하는 편이지만, 가격비교나 할인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다소 비효율적으로 지출하는 상태
3점	자기 소득 내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비교, 할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적절한 상태
4점	근검절약하며, 자기 소득 내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비교, 할인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효율적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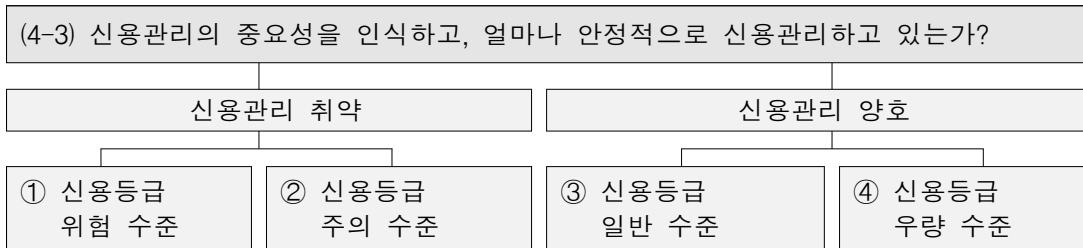
14. [영역4] 경제관리 / (4-2) 저축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저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금융상품 정보도 없어, 전혀 저축을 하지 않는 상태
2점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금융상품 정보를 알아보기는 하지만,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
3점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상품 정보를 알아보며, 조금씩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4점	저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금융상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열심히 저축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

15. [영역4] 경제관리 / (4-3) 신용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 (※ 신용 9~10등급 : '위험' 수준)
2점	주로 저신용업체와의 거래가 많고, 비교적 단기연체의 경험이 많아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태 (※ 신용 7~8등급 : '주의' 수준)
3점	주로 저신용업체와의 거래가 있고, 단기연체의 경험이 있는 상태 (※ 신용 5~6등급 : '일반' 수준)
4점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지만, 꾸준하고 우량한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신용 3~4등급 이상 : '우량' 수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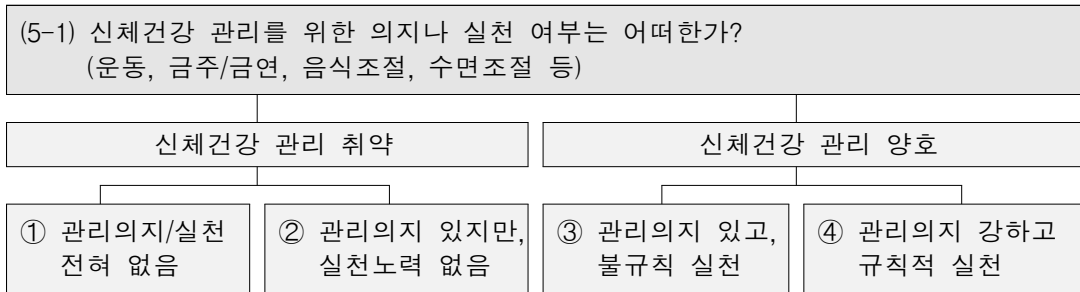
※ 주) 저신용업체 : 은행권이나 지자체의 저신용자 대출상품 이외의 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체

<Tip 1> 신용관리의 용도 : 대출의 가능성, 대출금액의 크기,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

<Tip 2> 신용관리 10계명

- 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 ②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 꾸준히 쌓아가기
- ③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채무규모 설정하기
- ④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기
- ⑤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 ⑥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 이용하기
- ⑦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금융회사에 통보하기
- ⑧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 ⑨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 ⑩ 자신의 신용저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기

16. [영역5] 자기보호 / (5-1) 신체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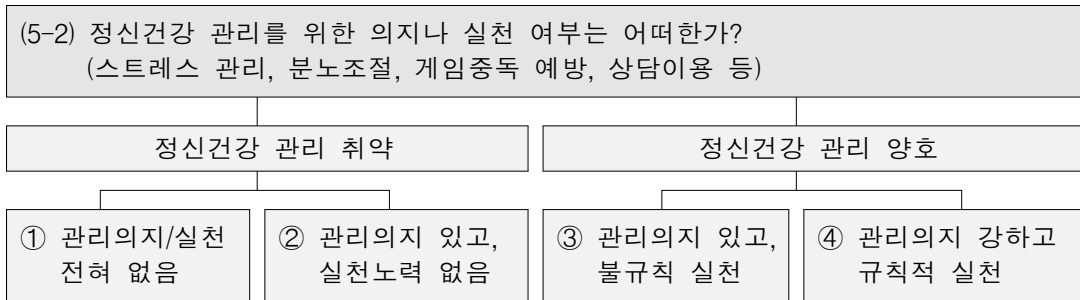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신체건강 관리의지와 실천*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신체건강 관리의지는 있지만, 실천*노력이 없는 상태
3점	신체건강 관리의지가 높고, 불규칙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
4점	신체건강 관리의지가 매우 강하고,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규칙적인 건강관리 실천*에 힘쓰고 있는 상태

※ 주) 건강관리 실천 : 경제적 이유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 제외

17. [영역5] 자기보호 / (5-2)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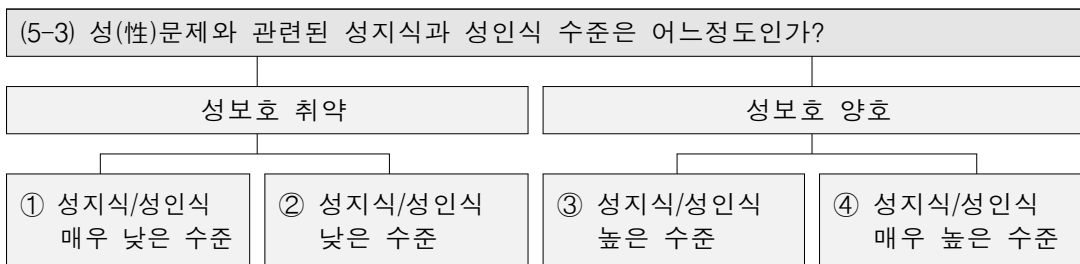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정신건강 관리의지와 실천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정신건강 관리의지는 있지만, 실천노력이 없는 상태
3점	정신건강 관리의지가 있고, 불규칙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
4점	정신건강 관리의지가 매우 강하고,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규칙적인 건강관리 실천에 힘쓰고 있는 상태

※ 주) 정신건강 영역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장애에 관한 증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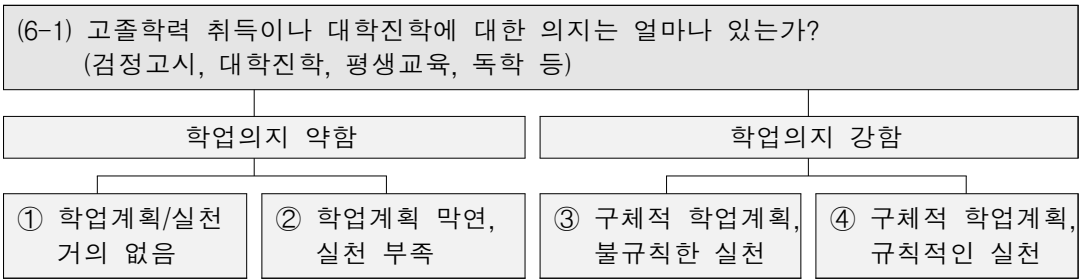
18. [영역5] 자기보호 / (5-3) 성보호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이 거의 없는 상태
2점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이 약간 있는 상태
3점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 외에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등(긴급전화 이용)을 알고 있는 상태
4점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 외에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등(긴급전화 이용)을 충분히 알고 적극 대응할 의지가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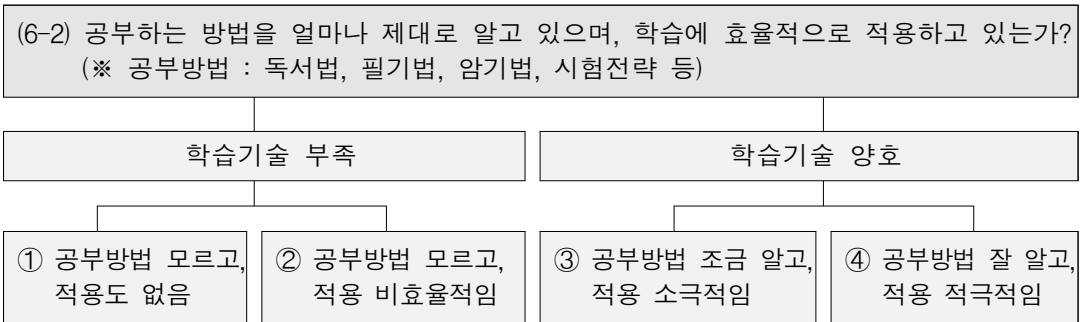
19. [영역6] 학업관리 / (6-1) 학업의지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고졸 이상의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 등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이 없고, 공부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
2점	고졸 이상의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 등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이 막연하고, 공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
3점	고졸 이상의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 등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다소 불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상태
4점	고졸 이상의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 등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학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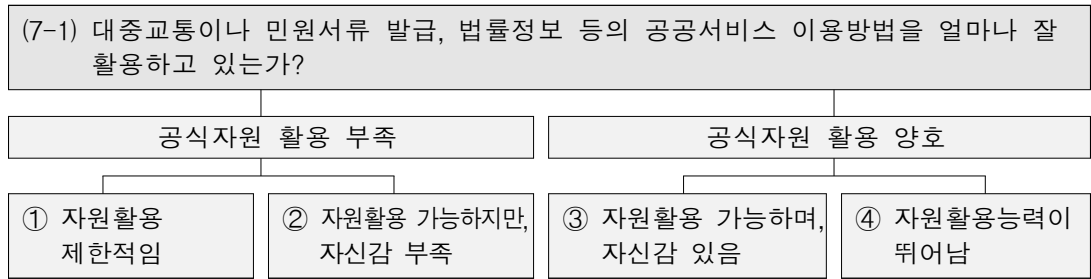
20. [영역6] 학업관리 / (6-2) 학습기술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공부할 생각도 없는 상태
2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무턱대고 책을 보면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상태
3점	독서법이나 필기법 등 공부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학습에 조금씩 적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상태
4점	독서법이나 필기법, 암기법, 시험전략 등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학습에 적용하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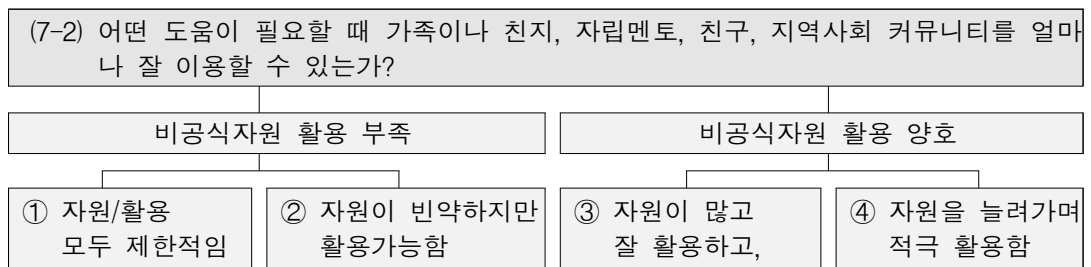
21. [영역7] 자원활용 / (7-1) 공식자원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대중교통 같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자원 외에는 대부분 스스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
2점	공공서비스(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도서관 등)를 이용할 때 스스로 이용방법을 찾는데 자신감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태
3점	공공서비스(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도서관 등) 이용시 인터넷 등을 통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상태
4점	공공서비스(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도서관 등) 이용 경험과 지식이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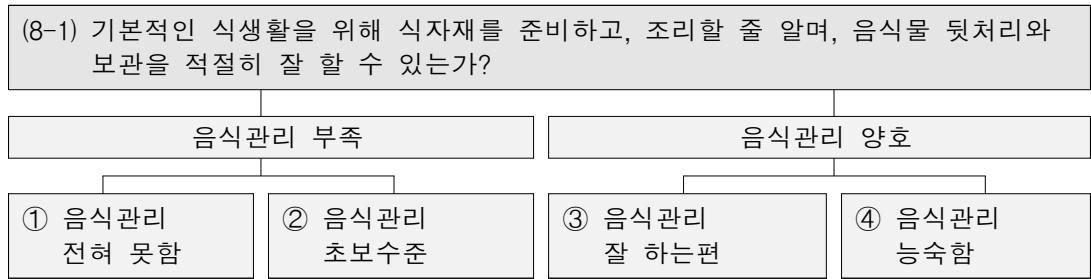
22. [영역7] 자원활용 / (7-2) 비공식자원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가 거의 없어 상당히 고립된 상태
2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소수의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3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비교적 많은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4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기존의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의 도움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 추가로 새로운 자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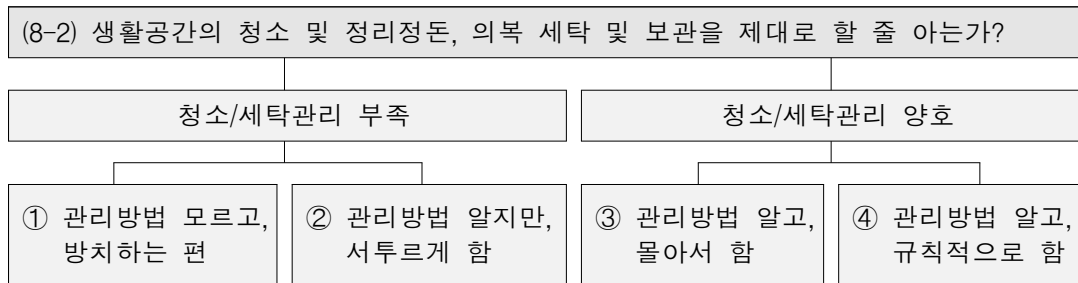
23. [영역8] 일상생활관리 / (8-1) 음식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밥이나 밑반찬 등의 기본적인 음식을 준비하고 보관할 줄 전혀 모르는 상태
2점	밥이나 밑반찬 외에, 좀 더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 식자재를 준비하여 조리해 본 경험이 적고, 위생적인 음식물 뒤처리와 음식물 보관(냉장/냉동보관 등)이 서투른 상태
3점	레시피 등을 활용하여, 식자재를 준비하고 간단한 음식을 조리할 줄 알며, 설거지와 음식물 뒤처리에 익숙하고, 음식물 보관(냉장/냉동보관 등)을 적절히 하는 상태
4점	레시피 없이도 다양한 음식들을 능숙하게 조리할 줄 알며, 설거지와 음식물 뒤처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있으며, 유통기한과 음식물 특성에 맞게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보관(냉장/냉동보관 등)할 줄 아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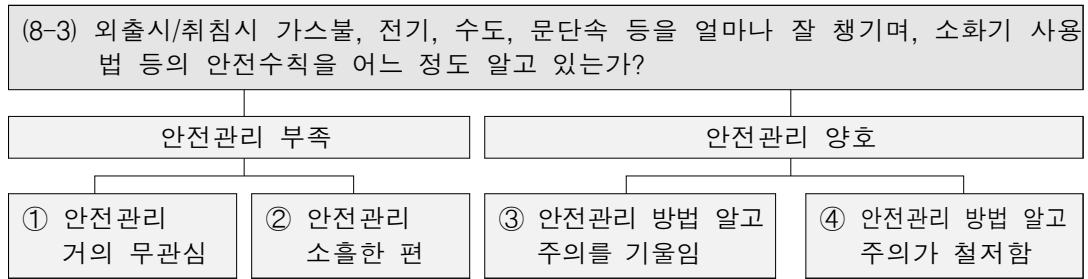
24. [영역8] 일상생활관리 / (8-2) 청소/세탁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집안일을 거의 방치하는 편임
2점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은 알지만, 집안일을 하는데 서투른 상태
3점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집안일을 곧잘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음.
4점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집안일을 꼼꼼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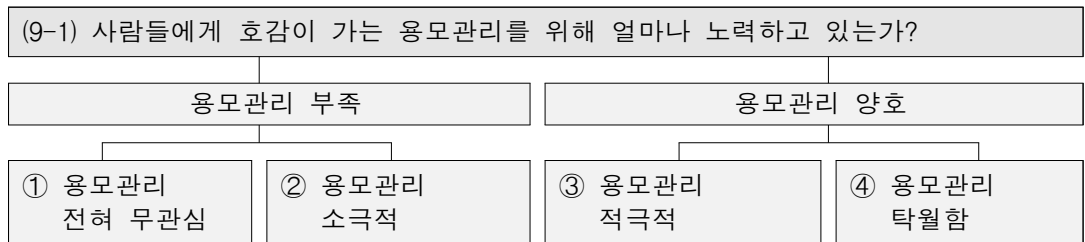
25. [영역8] 일상생활관리 / (8-3) 안전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의 안전을 챙기거나, 화재예방 수칙에 거의 무관심한 상태
2점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소화기 사용법 등의 화재 예방 수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3점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을 잘 챙기며, 소화기 사용법 등의 기본적인 화재예방 수칙을 알고 있는 상태
4점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에 대한 안전의식이 철저하며, 화재예방 수칙을 확실히 알고, 습관적으로 점검하며 챙기는 상태

26. [영역9] 사회적 기술 / (9-1) 용모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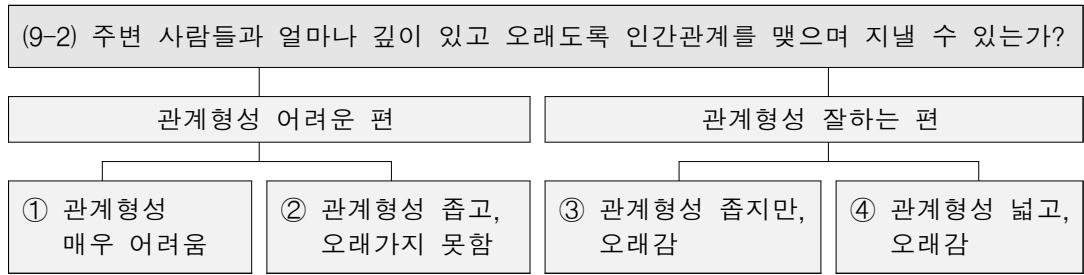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복장이나 표정 관리에 전혀 무관심하여 용모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
2점	복장이나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용모관리 방법을 잘 몰라 호감이 가는 용모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3점	표정이나 시선 처리가 다소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상황에 맞는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을 착용할 줄 알고, 호감이 가는 용모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상태
4점	항상 표정이 밝고 시선 처리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상황과 개성에 맞는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을 착용할 줄 알고, 항상 호감이 가는 용모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상태

※ 주) 용모관리 주요 상황 예 : 면접시, 첫 출근시, 공식행사 참여, 결혼식/장례식 참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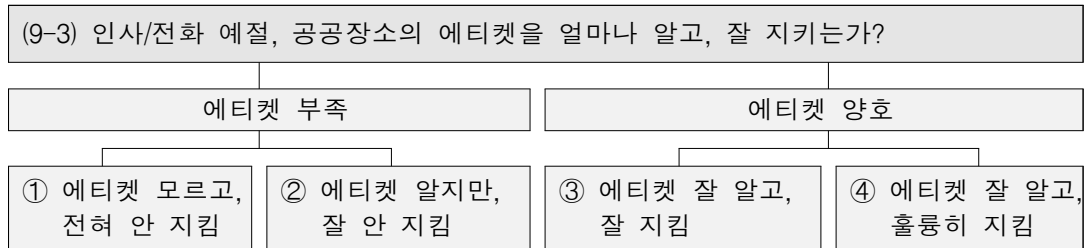
27. [영역9] 사회적 기술 / (9-2) 관계형성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원래 알던 사람들 외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아주 어려운 상태
2점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깊이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는 상태
3점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여 오래가는 상태
4점	친구들이나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람들과 폭넓게 어울리며,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며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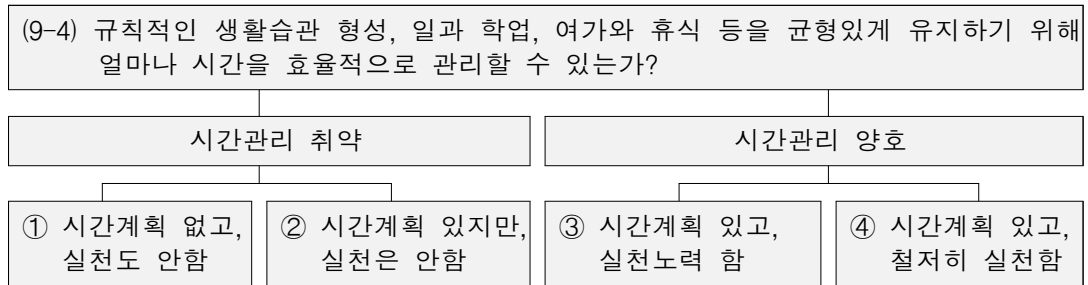
28. [영역9] 사회적 기술 / (9-3) 예절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모르고, 전혀 지키지도 않는 상태
2점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지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익숙하지 않아 잘 지키지 않는 상태
3점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잘 알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상태
4점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잘 갖춰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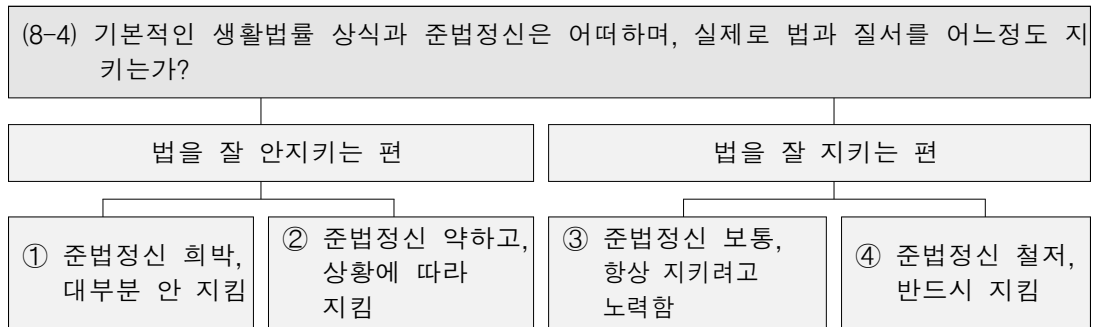
29. [영역9] 사회적 기술 / (9-4) 시간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시간계획도 없고, 실천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하며 생활하는 상태
2점	시간계획을 세워기는 하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아 할 일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상태
3점	시간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가끔씩 일을 이루는 상태
4점	시간계획을 세우고, 자신 및 타인과의 약속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편으로, 시간관념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상태

30. [영역9] 사회적 기술 / (9-5) 준법여부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굳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처벌이 없다면 대부분 안 지키는 상태
2점	법은 할 수 없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손해(돈/시간 낭비) 여부에 따라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는 상태
3점	법은 사회질서를 위해 웬만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지키려고 애쓰는 편이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종종 있는 상태
4점	법은 사회질서와 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남이 모든 안 모든 철저히 지키는 상태

4. 고위험영역 위기수준 평가지(자살, 도박, 약물)

(1)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각 설문에서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보람되게 느껴진다.
① 정말 그렇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 나는 사는 것이 지겹고 정말 죽어 버리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조금은 그렇다 ③ 정말 그렇다
- 당신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살아 있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② 살아 있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저 비슷비슷하다
③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거 같다
- 당신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싶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하긴 하지만 희망하고 있다
③ 정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 당신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①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② 나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다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③ 나는 특별히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 당신은 일단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지속됩니까?
① 잠깐 생각났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다
②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이 지속된다
③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계속되고 있다
- 당신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①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②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③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

8.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 ① 그런 생각을 없애 버리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한다
- ② 그런 생각에 별로 개의하지 않는다
- ③ 크게 동요되는 일 없이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9. 당신에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충동을 스스로 억제/통제할 수 있습니까?

- ① 나는 그런 충동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 ② 내가 그런 충동을 통제할 수 있을 지 나도 잘 모르겠다
- ③ 나는 그런 충동을 억제/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0. 당신이 실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당신 주변의 환경(가족, 친구, 종교, 다시 살 수 없다는 생각 등)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 ①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는 결코 자살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 ② 주변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살 시도를 망설일 것이다
- ③ 주변의 환경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 보겠지만 나의 자살 시도 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11. 당신이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자살을 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미안해하고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②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이 생활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 보았다
- ③ 이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문제해결/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다

12. 자살 시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자살 시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았습니까?

- ①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② 자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지만 방법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 ③ 자살 시도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도 세워 보았다

13. 당신은 정말로 내가 자살을 시도했으면 하고 생각합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그렇다

14. 당신은 자살 시도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완전하지 않지만 있다(예 : 약을 사 모으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 ③ 완전하게 준비했었다(예 : 죽기에 충분한 다량의 약을 사 모았다)

15. 당신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나는 자살할 용기도 없고 겁도 나서 실제로 자살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 ② 나에게 자살할 만한 용기와 재수가 있을 지 자신이 없다
- ③ 나는 실제로 자살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다

16. 자살 시도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또 사용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또 사용할 기회도 없을 것 같다
- ② 내가 생각한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 ③ 내가 생각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할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17. 당신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글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시작했다가 그만두었다 또는 단지 적어볼까 생각만 해 보았다
- ③ 완전히 써 본 적이 있다

18. 당신은 죽음에 대한 준비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주었다 등)

- ① 없다
- ② 생각만 해 보았다
- ③ 있다

19. 당신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 ①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 ②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만두곤 한다
- ③ 남이 알아챌까 봐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나이	정상범위	경도	중등도	고도
20세 미만	0~15점	16~19점	20~23점	24점 이상
20~24세	0~13점	14~17점	18~21점	22점 이상
25세 이상	0~8점	9~11점	12~14점	15점 이상

(2)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돈내기게임(도박)이란 돈 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카드나 화투, (인형 등) 복권/토토 등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래 문항은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이런 경험들을 겪었는지 겪었다면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보기번호에 체크표시(V)해 주세요.

문항	없다 (0점)	가끔 있다 (1점)	자주 있다 (2점)	거의 항상있다 (3점)
1. 돈내기 게임 때문에 단체 활동이나 연습에 빠진 적이 있나요?	0	1	2	3
2. 돈내기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긴 적 있나요?	0	1	2	3
3. 돈내기 게임을 위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요?	0	1	2	3
4. 돈내기 게임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나요?	0	1	2	3
5. 전에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내기 게임을 한 적이 있나요?	0	1	2	3
6. 돈내기 게임 하는 것을 부모나 가족 또는 선생님에게 숨긴 적이 있나요?	0	1	2	3
7.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게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0	1	2	3
아래 두 문항은 응답 보기가 위와 다릅니다.	없다 (0점)	1~3회 있다 (1점)	4~6회 있다 (2점)	7회 이상있다 (3점)
8. 밥이나 옷, 영화표 구입 등에 써야 할 용돈을 돈내기 게임에 쓴 적이 있나요?	0	1	2	3
9. 돈내기 게임을 위해 남의 돈이나 돈이 될만한 물건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나요?	0	1	2	3

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의 도박문제 자가진단 점수는 0~1점에 해당합니다. • 도박신호등 초록불로, 비문제 수준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 도박으로 인한 피해나 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 도박을 자주하면 언제든지 도박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의 도박문제 자가진단 점수는 2~5점에 해당합니다. • 도박 신호등 노란 불이 켜진 상태로, 위험 수준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 도박 경험이 있으며, 경미한 수준에서 조절 실패와 그로 인해 심리/사회/경제적 폐해 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 문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도박중단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임을 권해 드립니다.
6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의 도박문제 자가진단 점수는 6점 이상에 해당합니다. • 도박 신호등 빨간 불이 켜진 상태로, 문제 수준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 반복적인 도박 경험이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조절 실패와 그로 인해 심리/사회/경제적 폐해 등이 발생하여 도박중독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약물 선별 설문조사 (DAST—Korean)

약물 선별 설문조사 (DAST—Korean)

본 도구는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복용하였거나 사용한 물질들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문항도 놓치지 말고 모든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지난 1년동안 다음 약물이나 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필로폰(액체형태, 결정형태)	<input type="checkbox"/> 코카인
<input type="checkbox"/>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초)	<input type="checkbox"/> 마약제(헤로인, 옥시코돈, 메타돈 등)
<input type="checkbox"/> 흡입제(페인트시너, 분무약제, 접착제)	<input type="checkbox"/> 환각제(LSD, 버섯)
<input type="checkbox"/> 신경안정제(발륨)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러한 약물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습니까?

월 1회 이하 매주 거의 매일

주사로 약물을 주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있음, 지난 90일이후 있음, 최근 90일 이내

약물남용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음 과거에 받은 적 있음 현재 치료중

	문항	예	아니오
1	의료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 약물을 사용했습니까?	1	0
2	한번에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남용합니까?	1	0
3	중단하기를 원할 때 약물 사용을 중단할 수 없습니까?	1	0
4	약물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 기억상실 또는 환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0
5	약물 사용에 대하여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느낍니까?	1	0
6	귀하의 약물 사용에 대해 배우자(또는 부모)가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1	0
7	약물 사용을 이유로 가족을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1	0
8	약물을 입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	0
9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금단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0
10	약물 사용으로 인해 의학적 문제(예: 기억상실, 간염, 경련, 출혈)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1	0
총점			

점수	수준	문제의 범위	계획
0	문제 없음	약물 관련 문제 위험 없음	금번 평가에는 보고할 내용이 없음
1-2	낮은 수준	약물 사용 관련 건강 문제의 위험 있음	관찰 및 재평가 필요 교육 자료 제공
3-5	중간 수준	약물 사용 관련 건강 문제의 위험 경한~중간 수준의 물질사용장애 가능성 있음	개입 필요
6-8	심한 수준	약물사용 관련 건강 문제의 위험 중간~심한 수준의 물질사용장애 가능성 있음	집중 관리 요함
9-10	극심한 수준	약물사용 관련 건강 문제의 위험 심한 수준의 물질사용장애 가능성 있음	집중 관리 요함

5. 자립준비 사정을 위한 사전점검 리스트*

영역	요소	자립준비 내용	참고사항
주거관리	주거상태	<input type="checkbox"/> 전/월세 (주거지역/기간)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주거지역/기간) <input type="checkbox"/> 보호시설 (시설명/기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친구집 등 임시거처/기간)	
직업역량	자격증보유	<input type="checkbox"/> 자격증명	
	직업훈련경험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명/훈련기간	
	근로경험 (인턴십)	<input type="checkbox"/> 취업처명/기간	
경제상태	플러스자산	<input type="checkbox"/> 월수입 : <input type="checkbox"/> 월저축 :	
	마이너스자산	<input type="checkbox"/> 월지출 : <input type="checkbox"/> 부채액 :	
자기보호	신체건강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 여부 <input type="checkbox"/> 규칙적인 운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병력 - 병명 : - 치료기간 : <input type="checkbox"/> 장애 종류 및 등급 :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강 특이점(골절, 부상 등) - (예) 다리골절	
	정신건강	<input type="checkbox"/> 정신 병력 - 병명 : - 치료기간 : <input type="checkbox"/> 심리정서적 어려움 - 증상 : - 증상기간 :	
사법	본인	<input type="checkbox"/> 법적 처분 경험(종류/기간) <input type="checkbox"/> 사법절차 진행중	
	친구	<input type="checkbox"/> 법적 처분 경험 친구 수	
학업관리	학력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졸업(검정고시) <input type="checkbox"/> 대학(전공) 재학	
자원활용	사회보장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지원대상	
	가족/지인	<input type="checkbox"/> 도움을 주는 가족 <input type="checkbox"/> 우호적인 친척 <input type="checkbox"/> 친한 친구	
	기타 도움	<input type="checkbox"/> 공공서비스(쉼터, 꿈드림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민간기업(종교시설, 기업재단 등)	

* 주) 객관적 정보는 자립준비 사정도구 외에 별도 수집된 자료(입소신청서,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서, 초기면접사정기록지 등)를 활용하여 파악함. 다만, 기존 자료에서 확인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정시 확인이 필요함

6. 사례판정 결과지

구분	자립준비영역 (요인 수)	가중치		평균치				가중치 환산점수	검토의견
		배점	만점	1	2	3	4		
일반 (80)	자립의지(3)	×5	20						
	주거관리(4)	×2	8						
	직업역량(5)	×3	12						
	경제 관리(3)	×3	12						
	자기보호(3)	×1	4						
	학업관리(2)	×1	4						
	자원활용(2)	×1	4						
	일상생활관리(3)	×2	8						
	사회적기술(5)	×2	8						
	전체(30)	×20	80	(평균 :)					
고위험 (Y/N)	고위험영역	위험수준						적합성 (Y/N)	검토의견
		저			고				
	자살문제								
	중독문제	도박							
약물									
전문가 (20)	적합성			점수 부여	소견내용				
	하(1~7)	중(8~13)	상(14~20)						
종합판정	종합점수								
	판정결과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입소						
	판정의견								
위원1 _____		(서명)			위원4 _____		(서명)		
위원2 _____		(서명)			위원5 _____		(서명)		
위원3 _____		(서명)			위원6 _____		(서명)		
20 년 월 일									
○○○청소년자립지원관									

[판정기준1] 종합점수 : “60점 이상”인 경우 입소 적합

[판정기준2] 고위험 영역 : “1개 이상” 고위험 수준일 경우 입소 부적합

[판정기준3] 조건부 입소 : 미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입소’ 판정

7. 자립준비 사정 가이드라인

1. 조사목적 및 개요

- 조사목적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서비스 목적에 부합된 청소년 대상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정을 하기 위함이며, 입소 후에도 면밀히 파악한 자립준비 수준을 참고하여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본 사정도구는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9개의 자립준비 영역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 30개로 구성되었고, 각 질문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기 1~2번은 부정적, 3~4번은 긍정적인 내용이며, 보기 번호가 높을수록 자립준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 면접시간은 질문당 평균 2분씩으로 전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조사대상의 이해도 및 추가 설명 여부에 따라 10~20분 내외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질문 요령

- 인터뷰 질문시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동일한 대상 청소년에 대해 누가 평정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모호한 질문은 피하고, 조사대상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평가의 확신이 없을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 질문 요령은 우선, 질문내용을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조사대상자가 어떤 수준(1~4점)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4개의 평가 기준과 비교해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질문을 하여 객관성을 탐색해주세요.
- 면접자는 사전에 질문내용과 보기(1~4),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주세요. (특히, 2-3 집구하기 Tip, 4-3 신용관리 Tip 필수 확인)
- 인터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인터뷰 시작 전에 조사대상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이나 별도의 약속이 잡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3. 인터뷰시 유의사항

- 조사대상 청소년이 힘들고 아픈 과거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워하거나 민감한 내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응대해주세요
- 조사대상 청소년에 대한 호칭은 남자는 “~군”, 여자는 “~양”으로 불러주시고, 대화시 가벼운 존댓말을 사용해 주세요.
※ 예) 철수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록 2> 사정도구 개발 기초자료

사정도구 개발 기초자료

1. 현장실무자대상 FGI질문지	136
2. 전문가 자문 질문지 (불임 생략).....	140
3.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	141
4. 청소년 인터뷰 동의서	157

1. 현장실무자대상 FGI질문지

청소년자립준비 사정도구 현장전문가 FGI 인터뷰 질문

1. 연구참여자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립지원관 입소대상 청소년은 주로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나요?
3. 현재 각 기관에서 입소 판정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4. 현재 각 자립지원관에서 입소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입소판정 서식이나 사정도구 등)
5. 현재 자립지원관의 입소 대상을 선별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6. 향후 입소 판정기준과 입소절차 등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7. 다음은 자립준비도 사정도구 예시입니다. 필요도와 적합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의견이나 추가항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붙임1 참고)
8. 입소 판정 사정도구 개발을 위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요?
9. 입소 판정 사전도구 개발을 위한 인터뷰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면 적합할까요?
10. 입소사례 판정 시, 자립지원요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11.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지 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최종학력	① 전문학사 졸업 ② 일반학사 졸업 ③ 석사학위 취득(석사졸업) ④ 박사학위 취득(박사졸업) (전공: _____)
5. 소속기관	_____
6. 관련경력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4년 미만 ⑤ 4년 이상 5년 미만 ⑥ 5년 이상
7. 직 위	_____
8. 취득자격 *중복선택가능	① 청소년지도사1급(국가자격) ② 청소년지도사2급(국가자격) ③ 청소년지도사3급(국가자격) ④ 청소년상담사1급(국가자격) ⑤ 청소년상담사2급(국가자격) ⑥ 청소년상담사3급(국가자격) ⑦ 사회복지사 1급(국가자격) ⑧ 사회복지사 2급(국가자격) ⑨ 임상심리사 1급(국가자격) ⑩ 임상심리사 2급(국가자격) ⑪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⑫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⑬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⑭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⑮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_____)

[붙임 1] 자립준비 사정도구 질문(예시)

(1) 기본 인적사항

- 성명, 생년, 주민등록 여부, 성별, 거주지, 연락처

(2) 직전 소속기관

- 시설명 :
- 입소기간 :
- 지원받은 서비스 :

Q1. 다른 서식들과 중복되는 질문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 입소신청서(중복사항) : 인적사항, 입소 전 시설정보, 취업 및 진학현황, 주거상태, 지출규모, 소득상태, 부채현황 등
- ☞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서(중복사항) : 인적사항, 주거상태, 근로상태, 보장구분, 장애유무, 질병사항, 학력, 자격증, 소득상태

Q2.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

(3) 자립준비 관련

- Q1. 추가할 영역/항목은 없나요?
 Q2. 자립준비도 사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항목은?
 Q3. 적절한 사정 소요시간은?

① 정적변인 ☞ 답이 정해진 객관적인 사항들(fact)

영역	조사 항목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보유 여부(자격증 종류 등) •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훈 종류 등) • 인턴십 참여 여부(종류) • 취업 경험(직종, 취업기간 등)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병력, 치료여부 등) ☞ 특히 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중요 • 장애 여부(종류, 등급)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수급 여부(수급자, 차상위 등)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주거상태(시설, 전월세 등)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 여부(저축액, 만기기간) • 부채 유부(부채금액, 만기기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적 자원(가족, 친구, 친척, 직장동료, 종교단체 등 물질적·비물질적 자원) • 공식적 자원(정부, 공공기관, 복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처분 여부(직종, 취업기간 등) • 비행친구 유무(법적처분 종류 등)

② 동적변인 ☞ 주관적인 항목들

영역	조사항목
자립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렷한 동기, 실천 의지 등 • 자립 노력정도 • 중장기 인생계획 여부(결혼, 성취목표 등)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가치관 • 직업조사 여부 • 직업선택 여부 • 구직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 직장적응기술 • 자격증 취득 시험준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 • 소비 • 세금관리(주민세, 자동차세, 공과금) • 신용관리(신용카드, 신용등급) • 재정관리(급여명세서, 연말정산, 보험, 청약 등)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취득 의지 • 구체적인 학업 계획 • 현재 학습 유지 여부 • 학습기술(암기법, 필기법, 독서법 등)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정보(LH임대주택 등) • 주거마련 계획 • 집구하기(전세계약, 신고) • 집관리(집수리, 집 꾸미기)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준비(요리, 식단체획, 시장보기, 레시피활용, 식품보관 등) • 주방관리(설거지, 음식물처리, 청결위생) • 안전관리(전기, 가스, 수도) • 세탁 관리 • 청소 관리 • 보험료, 공과금 등 생활지식 • 준법 여부(교통신호, 음주운전 등)
사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기술(감정표현 등) • 기본예절(인사, 표정) • 이미지 관리(드레스 코드, 헤어) • 갈등대처 기술 • 대인관계 형성 • 신뢰형성(시간관리, 약속 준수)
자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보호(피임, 임신, 성병) • 신체건강(건강검진, 운동, 음주·흡연, 예방접종, 응급처치, 전염병 예방) •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게임중독, 상담 및 치료, 분노조절 등)
지역사회 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방법 • 공공시설 이용 정보 • 온라인 민원서류 처리절차 • 법률정보 이용

(4) 고위험 관련 질문

Q1. 자립지원관 입소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이 경우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까요?)

Q2. 그 외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까요?

영역	조사항목
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충동(시기, 횟수, 이유)• 자살계획(시기, 자살방법)• 자살시도(시기, 횟수, 결과)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중독• 약물중독(알코올, 마약)• 도박중독

Q3. 현재 유흥업소에 종사(성매매, 윤락, 도우미 등)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여부

Q4. 지적장애 3급 판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여부

(5) 입소판정 결과

Q1. 각 영역의 적정 배점 기준은?

Q2. 종합 판정 시, Cut-off 기준은?

Q3. 종합 판정 시, 자립준비영역 중 필수영역 또는 고려해야할 영역은?

Q4. 판정 결과 시, 0,1,2,3점의 각 척도 기준은?

Q5. ‘자립지원요원 소견’의 점수배점 등에 대한 의견은?

Q6. 전체 입소판정 결과지에 대한 의견은?

2. 전문가 자문 질문지 (붙임 생략)

1. <붙임1>은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개발을 위해 기본사정도구 분석 및 현장전문가 FGI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1. 가. 자립준비 사정도구 구성요인을 검토하시고, 영역/ 변인/ 중요도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작성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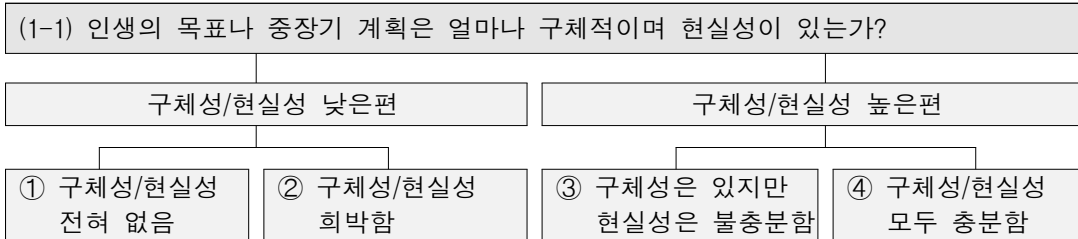
1-2. 나. 정적변인(참고조사)의 영역, 요소, 자립준비 내용이 잘 구성되었는지, 추가/삭제할 내용, 이동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1-3. 다. 동적변인(요약표)와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영역, 요소, 자립준비 내용이 잘 구성되었는지, 추가/삭제할 내용, 이동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자립준비 사정도구 기초문항

자립준비도 사정도구 기초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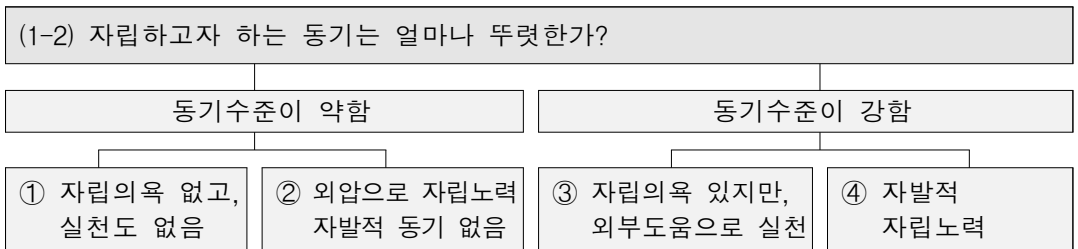
1. [영역1] 자립의지 / (1-1) 중장기목표



【 자립준비수준 평가 기준 】

1점	결혼계획이나 직업목표 등 인생의 중장기목표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음
2점	결혼계획이나 직업목표 등 인생의 중장기목표에 생각해본 적이 있지만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없이 막연한 상태임
3점	결혼계획이나 직업목표 등 인생의 중장기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충분하지 않음
4점	결혼계획이나 직업목표 등 인생의 중장기목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계획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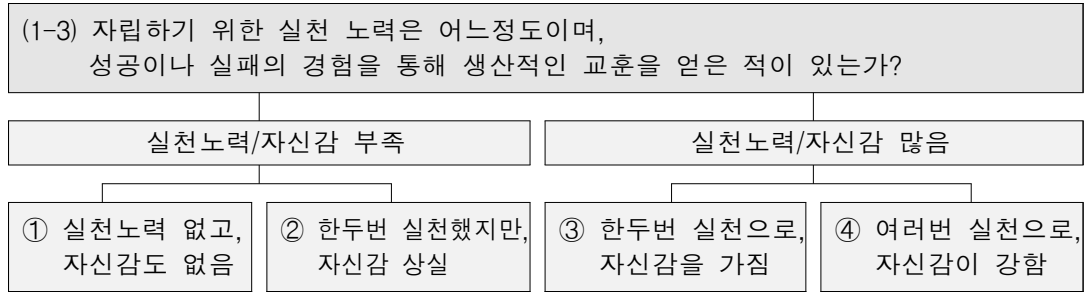
2. [영역1] 자립의지 / (1-2) 자립동기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자립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자립을 위한 실천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 자립무동기
2점	주변의 압박 때문에 자립 노력을 할뿐, 스스로 자립하려는 동기가 없는 상태 → 외적 자립동기
3점	자립 의욕은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주변의 압박이나 도움을 받아야만 실천행동을 보이는 상태 → 내사된 자립동기
4점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자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 → 확인된 자립동기 예)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자립계획을 세워보거나, 자격증 공부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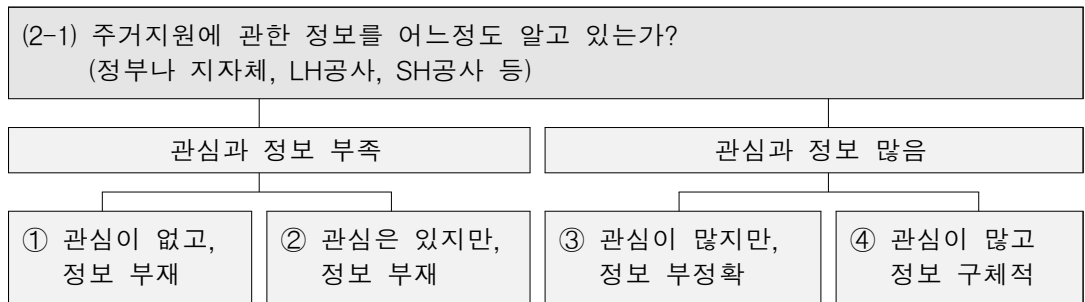
3. [영역1] 자립의지 / (1-3) 자립실천노력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자립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
2점	자립하기 위해 한두번 실천해봤지만, 실패경험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
3점	자립하기 위해 한두번 실천을 통해, 실패나 성공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된 상태
4점	자립하기 위한 여러차례 계속해서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패나 성공경험을 통해 생산적인 교훈을 얻어 자신감이 강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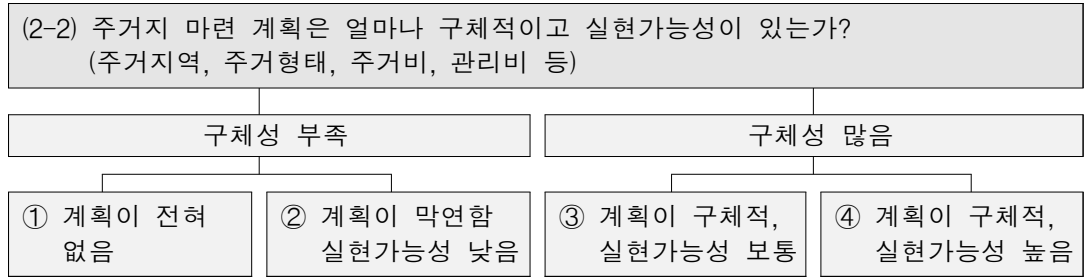
4. [영역2] 주거관리 / (2-1) 주거지원 정보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이 없고, 알고 있는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
2점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 알아보거나 아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
3점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이 많고, 직접 알아 본 적도 있지만, 알고 있는 정보가 다소 부정확한 상태
4점	주거지원 정보에 관심이 많고, 직접 알아 본 적도 많으며, 실제로 알고 있는 정보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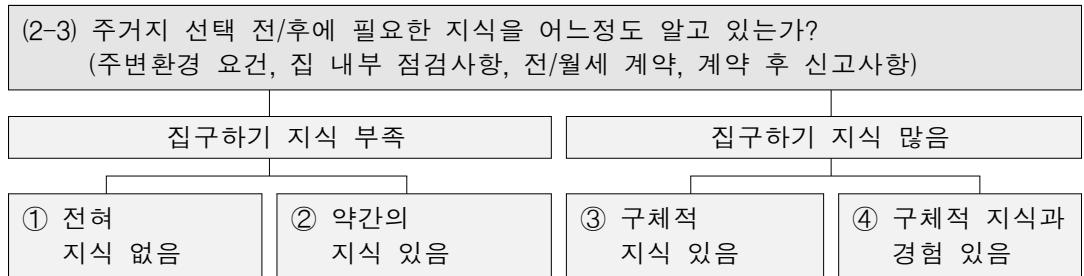
5. [영역2] 주거관리 / (2-2) 주거마련 계획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주거지 마련 계획이 전혀 없으며, 필요성도 못 느끼는 상태
2점	주거지 마련 계획이 막연하며,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태 (주거 지역, 전/월세 형태는 생각해봤지만, 비용 마련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음)
3점	주거지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다소 있음 (주거 지역, 전/월세 형태를 결정하고, 비용 마련 계획이 있음)
4점	주거지 마련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 (주거지역, 전/월세 형태를 결정하고, 주거지와 관리비 마련방법까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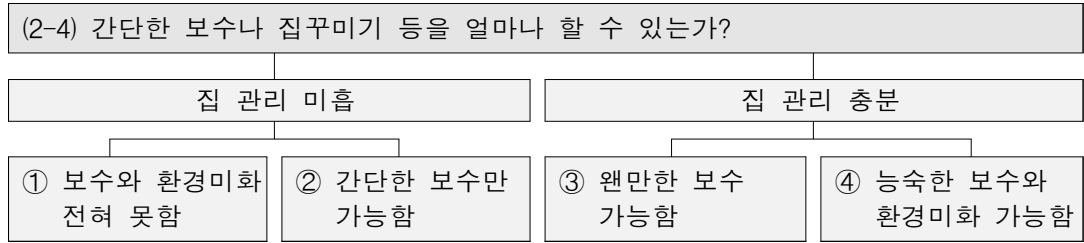
6. [영역2] 주거관리 / (2-3) 집구하기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주거지 선택에 필요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주거지 선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는 상태
3점	주거지 선택시 집 내부 점검사항과 계약 후 전입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 확인 등 구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
4점	주거지 주변환경 요건, 주거지 선택시 집 내부 점검사항, 계약 후 전입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 확인 등 구체적인 지식이 충분하고, 직접 임대 경험이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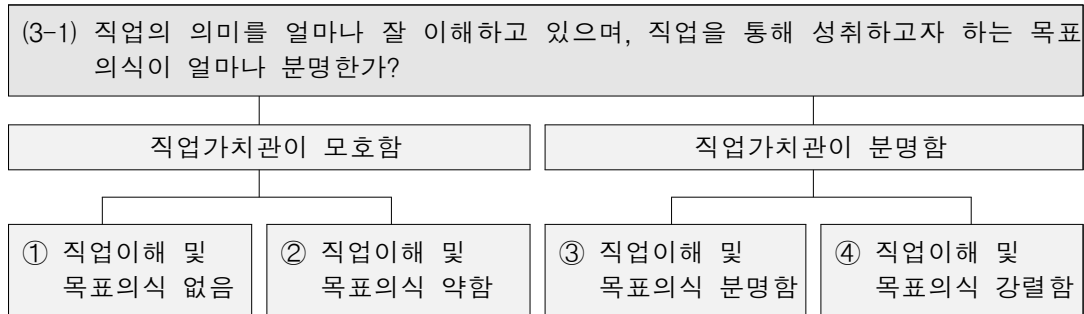
7. [영역2] 주거관리 / (2-4) 집 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집 관리에 필요한 보수나 환경을 꾸미는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간단한 보수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태 (예: 형광등 교체 등)
3점	웬만한 보수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태 (예: 변기 막힘 뚫기, 블라인드 설치 등)
4점	상당한 수준의 보수와 간단한 셀프 인테리어 가능한 상태 (예: 페인팅, 도배, 수납장 설치, DIY가구 조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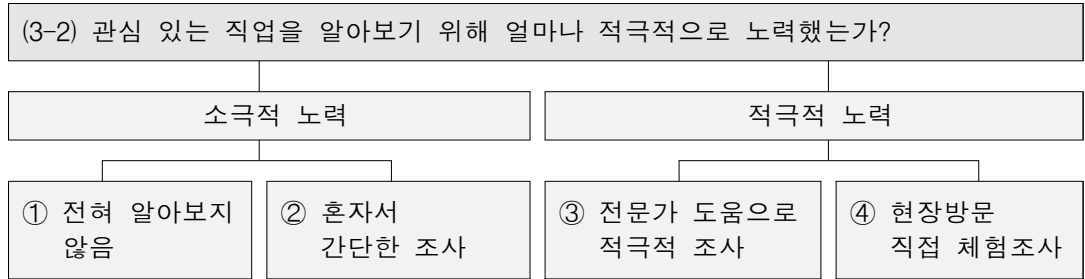
8. [영역3] 직업역량 / (3-1) 직업가치관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직업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고,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직업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있지만 다소 부족한 상태
3점	직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상태
4점	직업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매우 강렬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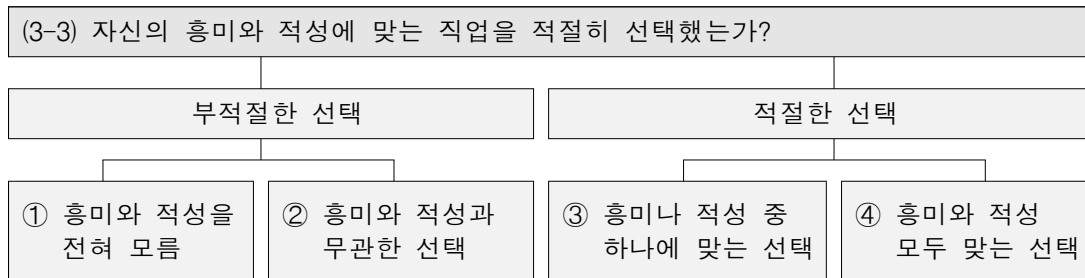
9. [영역3] 직업역량 / (3-2) 직업조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거의 알아본 적이 없는 상태
2점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알아 본 상태
3점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주변의 조언이나 전문가와 직업상담을 해 본 상태
4점	관심있는 직업분야의 직업인을 만나봤거나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체험을 해 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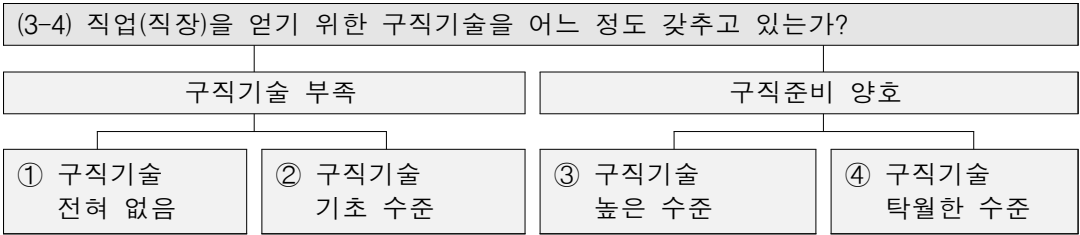
10. [영역3] 직업역량 / (3-3) 직업선택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자신의 직업흥미(좋아하는 직업)와 직업적성(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잘 모르는 상태
2점	자신의 직업흥미와 직업적성을 알지만 이와 무관한 직업을 선택한 상태
3점	자신의 직업흥미나 직업적성 중 한 가지를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한 상태 (예: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재능은 없는 사람이 요리사 직업을 선택)
4점	자신의 직업흥미와 직업적성 모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한 상태 (예: 음식 만들기 취미가 있으면서 재능도 있는 사람이 요리사 직업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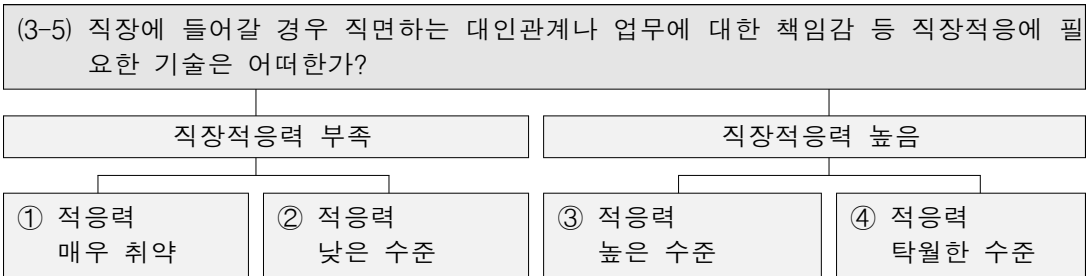
11. [영역3] 직업역량 / (3-4) 구직기술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기본적인 구직기술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
2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 기본적인 구직기술이 있는 상태
3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등의 구직기술이 적절히 갖추어진 상태
4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습득 외 자격증 취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구직기술을 갖추고 있어 구직준비가 충분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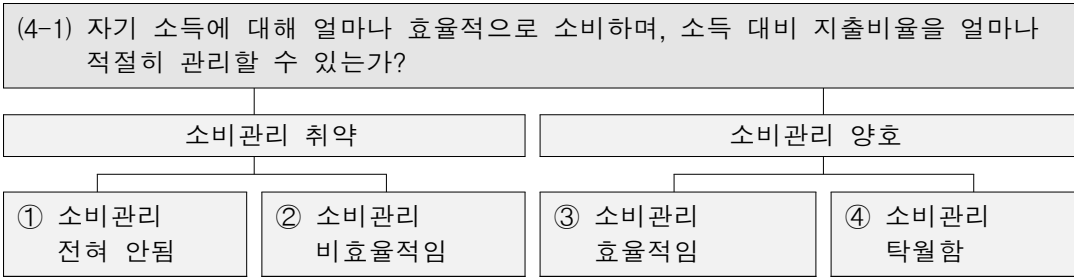
12. [영역3] 직업역량 / (3-5) 직장적응기술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어 직장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
2점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에 부담이 없지만, 시간관리(출근시간 준수 등)와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여 직장에서의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
3점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부담이 없고, 시간관리(출근시간 준수 등)와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만, 부정적 상황(부당한 대우, 퇴직시 대처 등)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
4점	일반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자신감이 있고, 시간관리(출근시간 준수 등)와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며, 부정적 상황(부당한 대우, 퇴직시 대처 등)에서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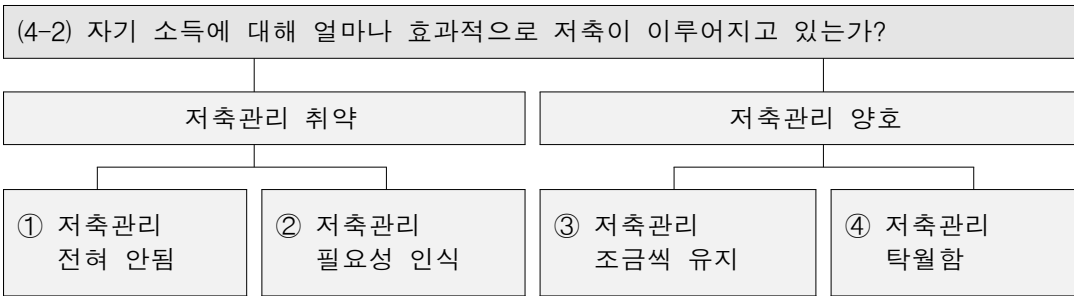
13. [영역4] 경제관리 / (4-1) 소비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자기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총동구매 등의 무분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보다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2점	자기 소득 내에서 소비하는 편이지만, 가격비교나 할인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다소 비효율적으로 지출하는 상태
3점	자기 소득 내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비교, 할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적절한 상태
4점	근검절약하며, 자기 소득 내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비교, 할인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효율적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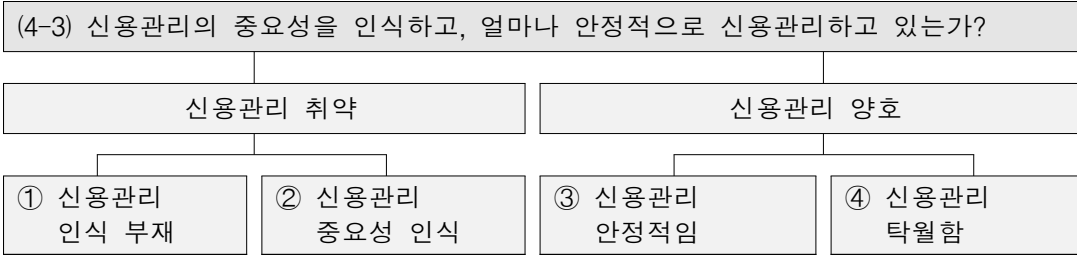
14. [영역4] 경제관리 / (4-2) 저축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저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금융상품 정보도 없어, 전혀 저축을 하지 않는 상태
2점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금융상품 정보를 알아보기는 하지만,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
3점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상품 정보를 알아보며, 조금씩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4점	저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금융상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열심히 저축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

15. [영역4] 경제관리 / (4-3) 신용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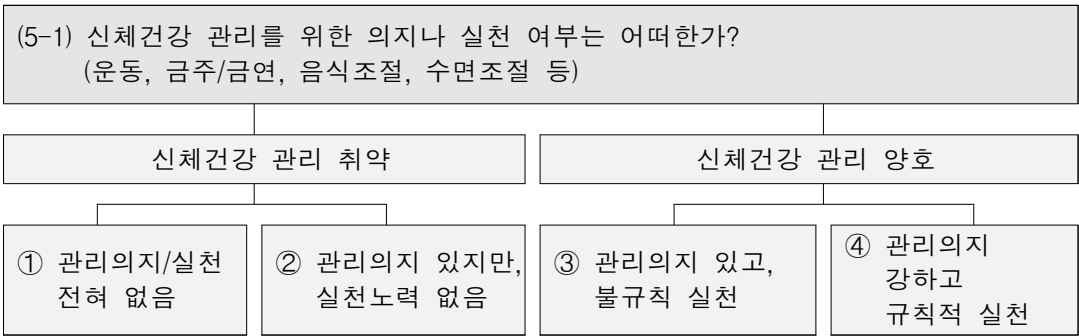
1점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어떻게 신용관리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2점	신용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신용관리 방법을 잘 몰라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 (※ 신용 9~10등급 : '위험'수준으로, 현재 연체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한 상태)
3점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신용관리 방법을 알아 신용등급이 보통인 상태 (※ 신용 7~8등급 : '주의'수준으로,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많고, 단기연체의 경험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태)
4점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용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상태 (※ 신용 3~4등급 이상 : '우량'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하고 우량한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성이 있는 상태)

<Tip> **신용관리의 용도** : 대출의 가능성, 대출금액의 크기,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

<Tip> **신용관리 10계명**

- 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 ②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 꾸준히 쌓아가기
- ③ 값을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채무규모 설정하기
- ④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기
- ⑤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 ⑥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 이용하기
- ⑦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금융회사에 통보하기
- ⑧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 ⑨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 ⑩ 자신의 신용저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기

16. [영역5] 자기보호 / (5-1) 신체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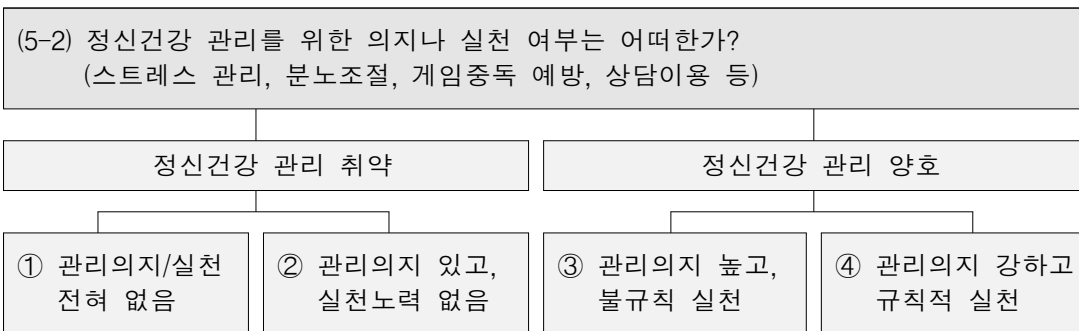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신체건강 관리의지와 실천*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신체건강 관리의지는 있지만, 실천*노력이 없는 상태
3점	신체건강 관리의지가 높고, 불규칙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
4점	신체건강 관리의지가 매우 강하고,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규칙적인 건강관리 실천*에 힘쓰고 있는 상태

* 주) 건강관리 실천 : 경제적 이유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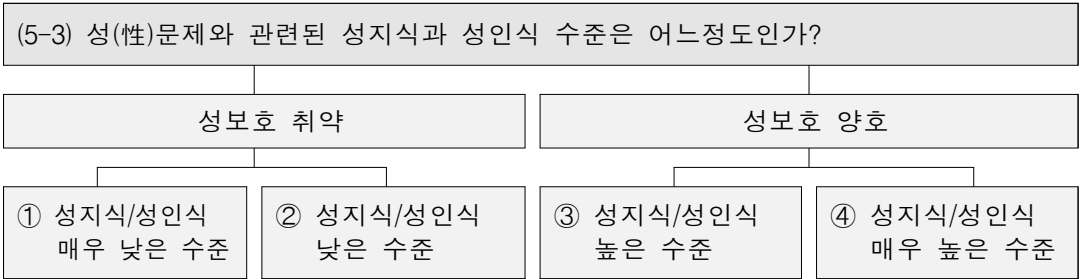
17. [영역5] 자기보호 / (5-2) 정신건강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정신건강 관리의지와 실천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
2점	정신건강 관리의지는 있지만, 실천노력이 없는 상태
3점	정신건강 관리의지가 높고, 불규칙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
4점	정신건강 관리의지가 매우 강하고,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규칙적인 건강관리 실천에 힘쓰고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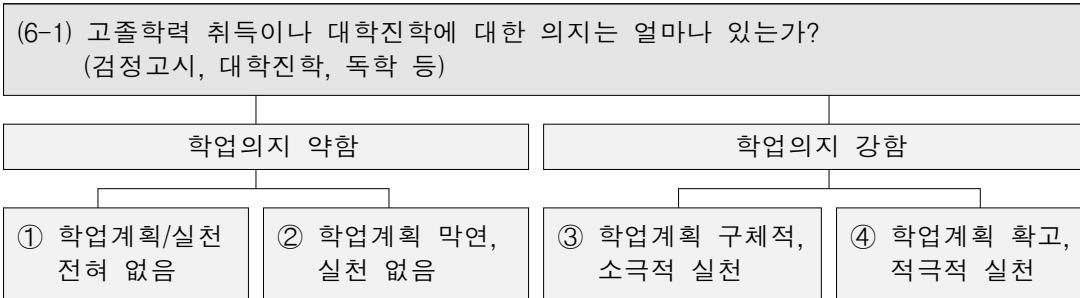
18. [영역5] 자기보호 / (5-3) 성보호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이 거의 없는 상태
2점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이 약간 있는 상태
3점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 외에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등(긴급전화 이용)을 알고 있는 상태
4점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고,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성지식(성병, 피임, 임신 등) 외에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등(긴급전화 이용)을 충분히 알고 적극 대응할 의지가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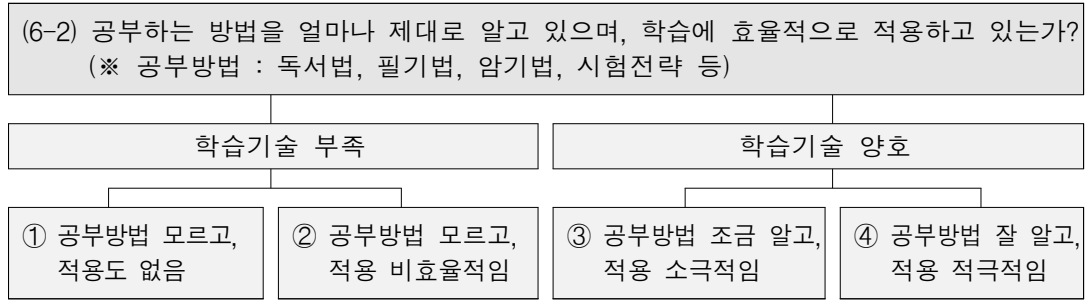
19. [영역6] 학업관리 / (6-1) 학업의지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고, 어떠한 공부도 하지 않는 상태
2점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계획이 막연하고, 검정고시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공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
3점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검정고시나 대학입시를 준비를 위해 불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상태
4점	학력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고, 검정고시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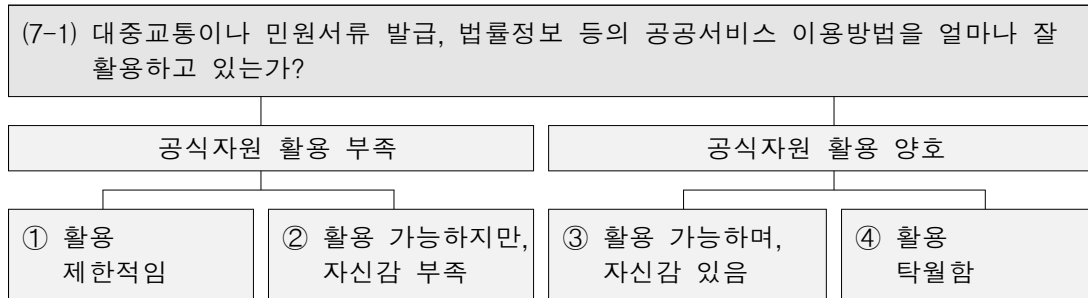
20. [영역6] 학업관리 / (6-2) 학습기술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공부할 생각도 없는 상태
2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무턱대고 책을 보면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상태
3점	독서법이나 필기법 등 공부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학습에 조금씩 적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상태
4점	독서법이나 필기법, 암기법, 시험전략 등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학습에 적용하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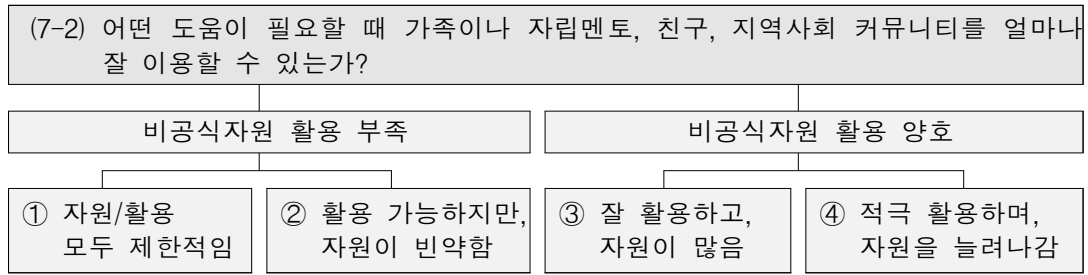
21. [영역7] 자원활용 / (7-1) 공식자원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대중교통 같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자원 외에는 대부분 스스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
2점	공공서비스(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도서관 등)를 이용할 때 스스로 이용방법을 찾는데 자신감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태
3점	공공서비스(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도서관 등) 이용시 인터넷 등을 통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상태
4점	공공서비스(민원서류 발급, 법률정보, 도서관 등) 이용 경험과 지식이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 이용하는 감각이 탁월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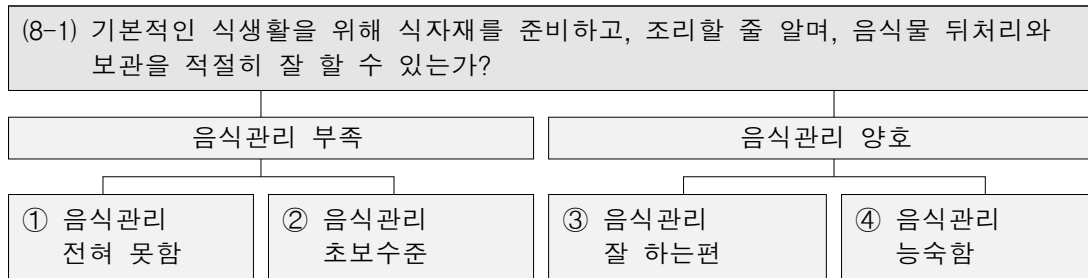
22. [영역7] 자원활용 / (7-2) 비공식자원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가 거의 없어 상당히 고립된 상태
2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소수의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3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비교적 많은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4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기존의 가족이나 친지, 자립멘토, 친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종교모임, 동호회 등)의 도움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 추가로 새로운 자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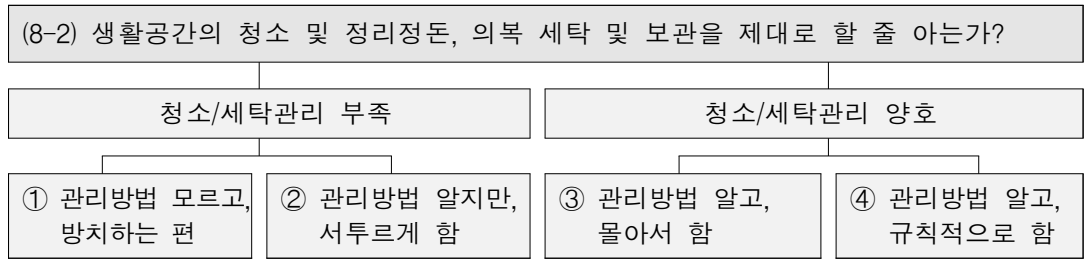
23. [영역8] 일상생활관리 / (8-1) 음식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밥이나 밀반찬 등의 기본적인 음식을 준비하고 보관할 줄 전혀 모르는 상태
2점	밥이나 밀반찬 외에, 좀 더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 식자재를 준비하여 조리해 본 경험이 적고, 위생적인 음식물 뒷처리와 음식물 보관(냉장/냉동보관 등)이 서투른 상태
3점	레시피 등을 활용하여, 식자재를 준비하고 간단한 음식을 조리할 줄 알며, 설거지와 음식물 뒤처리에 익숙하고, 음식물 보관(냉장/냉동보관 등)을 적절히 하는 상태
4점	레시피 없이도 다양한 음식들을 능숙하게 조리할 줄 알며, 설거지와 음식물 뒤처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있으며, 유통기한과 음식물 특성에 맞게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보관(냉장/냉동보관 등)할 줄 아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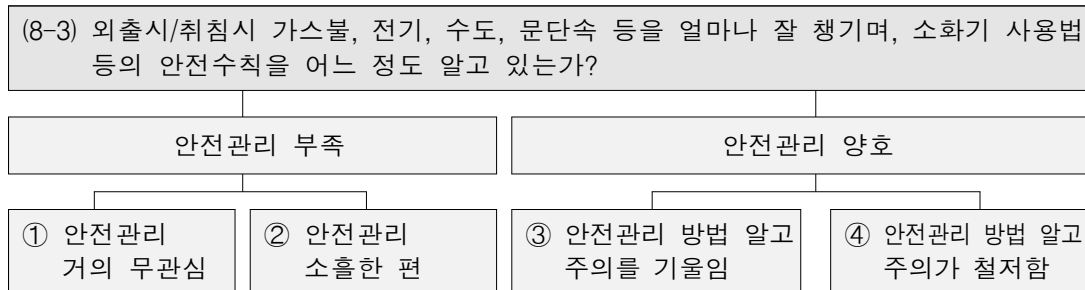
24. [영역8] 일상생활관리 / (8-2) 청소/세탁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집안일을 거의 방치하는 편임
2점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은 알지만, 집안일을 하는데 서투른 상태
3점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집안일을 곧잘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음.
4점	청소나 정리정돈, 세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집안일을 꼼꼼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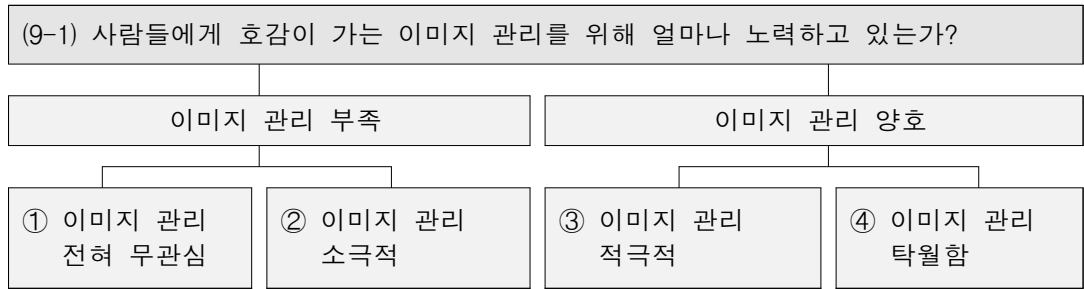
25. [영역8] 일상생활관리 / (8-3) 안전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의 안전을 챙기거나, 화재예방 수칙에 거의 무관심한 상태
2점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소화기 사용법 등의 화재 예방 수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3점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을 잘 챙기며, 소화기 사용법 등의 기본적인 화재예방 수칙을 알고 있는 상태
4점	외출시/취침시 가스불, 전기, 수도, 문단속 등에 대한 안전의식이 철저하며, 화재예방 수칙을 확실히 알고, 습관적으로 점검하며 챙기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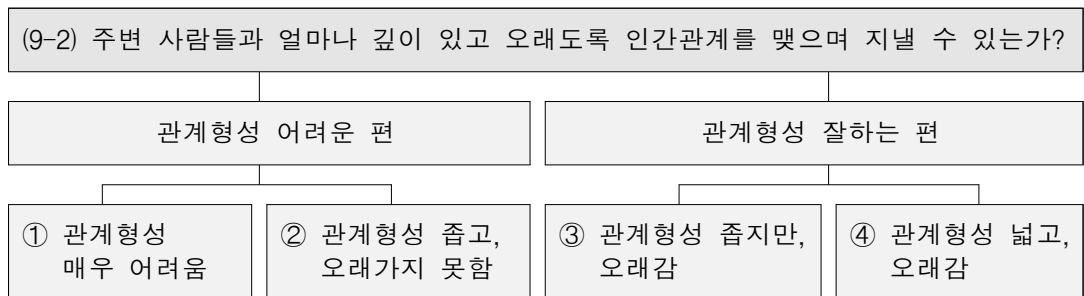
26. [영역9] 사회적 기술 / (9-1) 용모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복장이나 표정 관리에 전혀 무관심하여 이미지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
2점	복장이나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미지 관리 방법을 잘 몰라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3점	표정이나 시선 처리가 다소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상황에 맞는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을 착용할 줄 알고, 호감이 가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상태
4점	항상 표정이 밝고 시선 처리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상황과 개성에 맞는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을 착용할 줄 알고, 항상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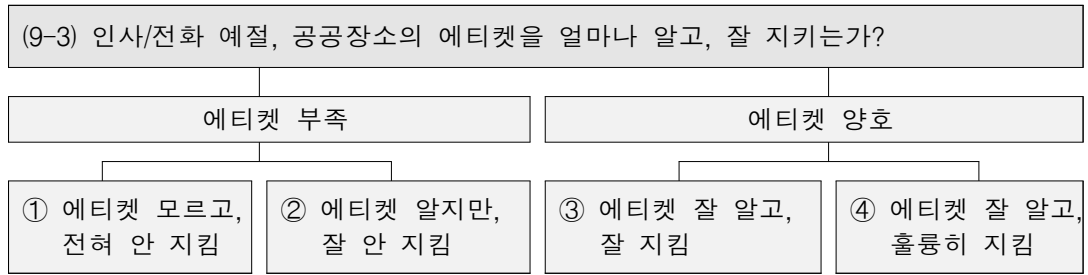
27. [영역9] 사회적 기술 / (9-2) 관계형성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원래 알던 사람들 외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아주 어려운 상태
2점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깊이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는 상태
3점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여 오래가는 상태
4점	친구들이나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람들과 폭넓게 어울리며,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며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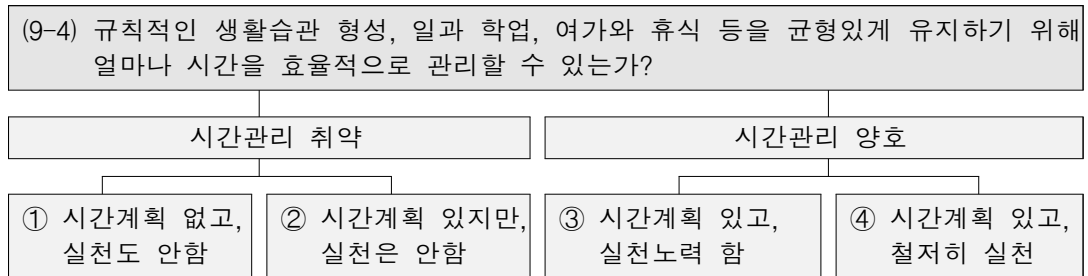
28. [영역9] 사회적 기술 / (9-3) 에티켓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모르고, 전혀 지키지도 않는 상태
2점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지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익숙하지 않아 잘 지키지 않는 상태
3점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잘 알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상태
4점	기본예절(인사/전화)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잘 갖춰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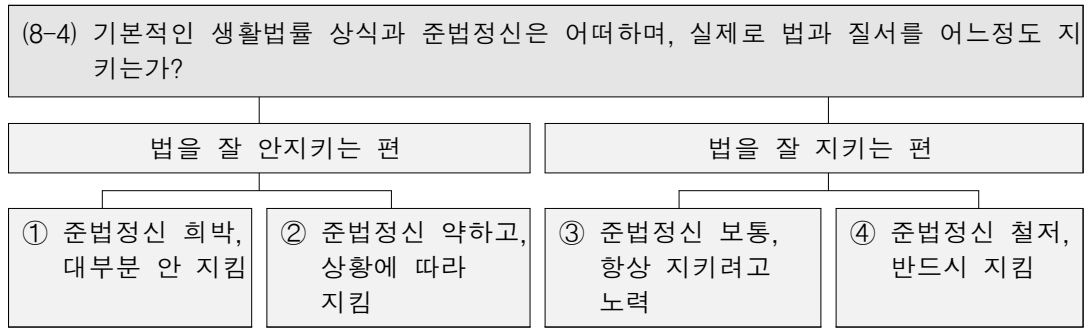
29. [영역9] 사회적 기술 / (9-4) 시간관리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시간계획도 없고, 실천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하며 생활하는 상태
2점	시간계획을 세워기는 하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아 할 일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상태
3점	시간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가끔씩 일을 이루는 상태
4점	시간계획을 세우고, 자신 및 타인과의 약속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편으로, 시간관념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상태

30. [영역9] 사회적 기술 / (9-5) 준법여부



【 자립준비수준 평가기준 】

1점	굳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처벌이 없다면 대부분 안 지키는 상태
2점	법은 할 수 없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손해(돈/시간 낭비) 여부에 따라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는 상태
3점	법은 사회질서를 위해 웬만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지키려고 애쓰는 편이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종종 있는 상태
4점	법은 사회질서와 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남이 모든 안 모든 철저히 지키는 상태

4. 청소년 인터뷰 동의서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연구 청소년 대상 본조사 인터뷰 동의서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아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청소년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소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립준비 사정도구 및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이 포함된 매뉴얼 개발을 위해 청소년 대상 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하는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 면접 내용은 영상기기, 녹음기를 통해 녹화·녹취될 것이며, 간단한 메모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로지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가 종료될 시,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4. 귀하를 비롯한 모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가명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제공·수집 이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 연구 참여자 본인 확인 등

* 개인정보의 항목 :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위 정보는 연구가 종료 되는대로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나는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 (서명)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책임연구자 : 김세진

문의 : 051-662-3111 ~ 3114

2020년 월 일

Abstract

Developing Assessment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for Adolescents:

- Focusing on Adolescents Eligible for Youth living readiness Center-

To foster a healthy and stable adolescent growth,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life-cycle support by systematically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services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is an important process and an achievement that guides all adolescents, who are expected to lead the nation and society, to the path of healthy adulthoo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has been delayed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intense competition and an economic recession followed by an increased unemployment rate. The adolescents are even more burdened with career preparation,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point where their independent living can no longer remain in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for at-risk adolescents to grow and be self-reliant, systematic aid from the public sector is required.

The current youth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upport in Korea varies according to legal grounds, policy targets, delivery system, which makes the system arbitrary and limited. The need to establish a practical and standardized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upport system is urgent. Currently, there are no objective tools to measure the level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of the youth, despite the need for a specialized intervention. Hence, developing an accurate assessment and evaluation tool will facilitate the early stages of independent living.

We developed a tool to assess youth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o that the field staff can objectively judge the level of an adolescent's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and their eligibility for youth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center. Moreover, a manual on how to use this scale is added in the appendix.

This study adhered to the following procedures. We first reviewed the literature and

analyzed the assessment tools and scales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that are currently being used by youth shelters and youth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centers. During this process, we examined the key domains of the assessment including job, education, health, housing, finances,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ocial skills, daily life, and self-protec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by professionals at youth shelters and youth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centers, we collected empirical data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eligible for a youth shelter, assessment tools, main domain for a decision, key criteria for assessment, shelter admission policies, and the results of an admission decision. Based on this, we completed a basic questionnaire on the assessment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basic questionnaire, we complemented it by inquiring the academic and field experts regarding the components of question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e admission, the adequacy of the domains. As a result, we yielded a total of 30 items for 9 domains: willingness to be self-reliant, housing management, vocational competence, financial management, self-protection, academic management, resource use, daily life skills, and social skills. In terms of content validity, all 30 items were found to have a CVI of higher than .60. In addition, some of the items were revised and complemented based on the professional opinions on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clarity.

To review the evaluation process and result,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12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and youth recovery support facilities. After a discussion, we modified the questions and added examples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assessment and to control for the scores given by the professionals.

The revis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148 teenagers in youth shelters, youth self-support centers,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and youth recovery support facilities. Using the manual, two different raters evaluated one adolescent's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As a result, the assessment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howed high internal consistency of .904, and inter-rater reliability of .89. Since the content validity (CVI>.60) and the inter-rater reliability were moderately high, the questionnaire of 30 items was completed after a minor revision of a few words and phrasings. Moreover, every item was presented in detail on a scale of 1 to 4.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a validated assessment tool will minimize the field staff's subjectivity, enable a reliable evaluation, and thus expedite an effective intervention. Second,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upport agencies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level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maximizing the short-term service benefits by establishing personalized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upport plans and interventions. Third, adolescents without a guardian will be provided with the data of their current state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and the domains they need to work on. Fourth,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late adolescents, understanding the level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by domains will shed light on how to categorize different types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upport. Finally, in terms of research, the accumulated data regarding the level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as well as the types of youth eligible for a youth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upport center will help construct the standardized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upport service model.